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 변화 앞에서 선, 한국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의 현실 -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 변화 앞에서 선, 한국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의 현실 -

2018. 12. 20.

인사말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 변화 앞에서 선, 한국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의 현실

1. 통계분석 연구의 취지 및 개요	07
---------------------	----

2. 결과 해석	11
1) 신앙: 한국 개신교 신앙관의 어제와 오늘	
2) 개헌: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안에 깃든 신학적 함의	
3) 통일: 남북 관계 인식조사 결과와 한국교회의 역할	
4) 동성애: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현황	

3. 설문 문항	59
----------	----

4. 조사 결과	67
----------	----

인사말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촛불 혁명의 뜨거운 열기로 인한 평화로운 정권교체로부터 시작된 적폐청산과 정치 개혁의 소용돌이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남북 화해와 북미 관계 정상화의 급물살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발전한다”는 오랜 믿음이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개혁과 적폐 청산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이념적 인식차이가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목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분단의 상처와 이를 통해 형성된 북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남과 북 상호간의 신뢰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화합에도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다름과 차이에 대한 불안감은 거부와 차별을 넘어 험으로 표현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과거 이념과 이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성별과 성정체성의 다름, 지역과 종교의 다름 그리고 소득에 따른 계층 간의 차이 등으로 인해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사회의 주요 사안들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이슈가 되었던 3가지 주제인 ‘개헌’, ‘남북관계’, ‘동성애’ 문제에 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본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변화된 한국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변화된 인식을 파악하고, 동시에 한국 개신교인들의 인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돋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통계분석 연구의 취지 및 개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사장 윤길수
원장 김영주

- 통계분석 연구의 취지 및 개요 -

연구진 : 박 재 형 (기사연연구실장/책임연구원)
 송 진 순 (이화여자대학교/연구원)
 신 익 상 (성공회대학교/책임연구원)
 이 상 철 (한신대학교/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 이사장 윤길수, 원장 김영주)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 간 전국 16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개신교인 800명 :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신앙관, 개헌, 남북관계 및 통일,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 통계분석기관: 인데이터랩,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 조사기간: 2018년 2월 26일 ~ 3월 7일, 표본오차: 신뢰수준 95% 기준 $\pm 3.1\%$ p.).

본 조사는 그간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에 의해 왜곡된 보수적 신앙관이 일부 정치세력에 의해 악용됨으로써 양산되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실체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개헌을 포함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현재 한국사회에 침예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근본주의적 신앙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금번 개신교인 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갈등 해소’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특별히 급변하는 정세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보수 개신교적의 헤게모니가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크게 5단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4단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연구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기간	내용	개요적 설명
1단계	2018.01.01.~2018.02.28.	연구의 기획	연구의 방향을 설정 후 이에 따라 설문의 초안을 작성
2단계	2018.02.19.~2018.03.10.	설문조사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과 설문 문항을 수정하고 확정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3단계	2018.03.11.~2018.04.05.	통계분석	통계분석 전문기관인 인데이터랩 소속 연구팀(팀장: 김선율 연구원)에 통계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검토
4단계	2018.04.05.~2018.04.08.	기초해석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해석 제시
5단계	2018.04.05.~2018.12.20.	논문 작성 및 발표	4인의 연구진이 통계분석 결과에 대한 신학적 해석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 발표

5단계까지 진행된 본 통계조사 연구는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관의 현주소를 밝히고, 이 신앙관이 개헌, 남북문제 및 통일, 동성애에 미치는 영향을 신학적 해석을 통해 다각도로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앞서 밝힌 것처럼 일부 보수 개신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한국의 개신교가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통합에 기여하는데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결 과 해 석

한국 개신교 신앙관의 어제와 오늘: 1982년과 2018년의 통계조사 비교를 중심으로

신 익 상(책임연구원, 성공회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은 1982년 한국 개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다.¹⁾

한국 내 전국 교회의 목회자 787명, 평신도 1991명을 대상으로 총 78개 문항에 이르는 신앙 양태와 사회적 태도 전반에 관한 광범위한 설문통계조사를 벌이고 평가한 것이다. 반면, 본 연구팀이 수행한 2018년의 설문통계조사는 2019년 한국기독교 종합통계분석조사를 준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격을 띤 것으로 개신교인 800명과 비개신교인 200명 등 총 1,000명에게 신앙관, 개헌문제, 통일문제, 동성애 문제와 관련된 25개의 설문을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는 2017년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관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신앙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질문 3가지(신앙생활 기간, 교회 출석 빈도, 신앙심에 대한 주관적 판단), 근본주의적 신앙관에 관련된 질문 4가지(타종교의 진리성, 타종교의 구원 가능성, 타종교의 선함, 성서무오설), 그리고 개인주의적 신앙관에 관련된 질문 2가지(개인주의적 구원관, 교회와 신자의 사회참여)를 설문응답자들에게 제시하여 크게 세 분야에서 신앙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결과를 36년 전의 통계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오늘의 개신교 신앙이 그리는 지형을 살펴보자 한다.

36년을 건너온 세월 동안 한국 개신교 신앙 지형의 높낮이는 변했을까?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

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보고서』(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2).

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한 것이며, 또한 그 원인이나 요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과 마주함으로써 2018년 통계조사분석의 한계를 성찰하는 일은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2019년 종합통계분석조사의 문제의식을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식의 깊이에서 무엇을 길어 올려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36년 전 통계와 오늘의 통계를 비교, 판단하는 일은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다. 양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공통된 문항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공통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설문 문항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판단의 범위나 전제 등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본 연구보고는 오늘의 설문조사 자체를 분석하여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되, 36년 전 기사연의 종합통계 보고서를 이 해석의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본 파일럿 연구의 다음 과제를 설명하게 하는 것에도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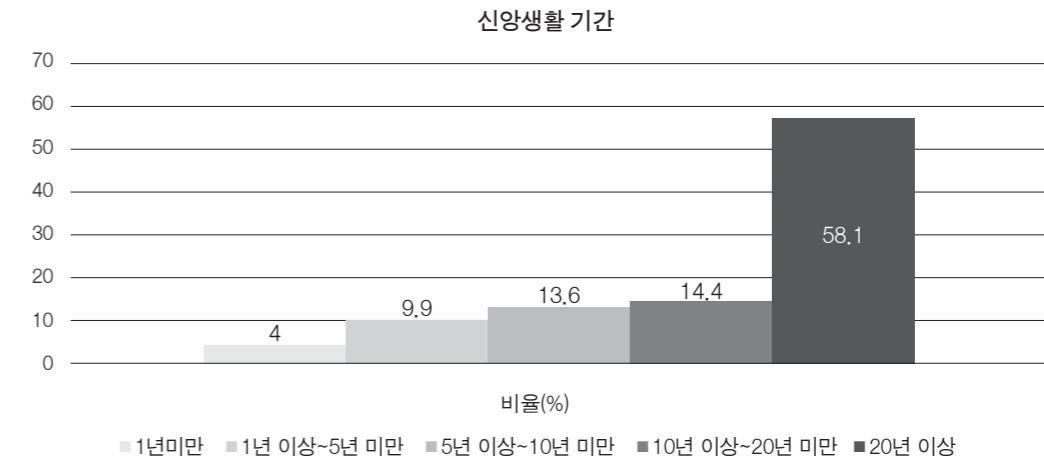
본 연구의 신앙관에 관련한 설문 문항들은 신앙의 충실판, 한국 개신교인들의 근본주의적 성향,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검토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82년과 2018년 사이에 이 세 방향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인식과 상황이 변화했는지,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피고 해석하여 2019년 통계분석조사의 방향과 문제의식을 보다 심화하고 세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설문 문항이 어떤 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지, 어떤 문항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주효할 것인지를 보다 확신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1. 신앙의 충실판 조사

1) 신앙생활 기간

한국 개신교인의 72.5%가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과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차례대로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1982년의 설문통계조사에 의하면 평신도의 교회생활 기간은 10년 이상이 52.3%였다.²⁾

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53: 1982년의 통계 결과와 2018년의 통계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1982년의 표본이 된 대상자들은 15세 이상의 신자들로서 20세 이하가 약 8% 정도를 차지한다. 더욱이 연령대에 상한선을 두지도 않았다. 반면, 2018년에는 만20세 이상에서 만69세 이하의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질문의 내용도 엄밀히 말해 다르다. 1982년에는 교회생활 기간을 물었다면, 2017년에는 신앙생활 기간을 물었기 때문에 2017년의 질문이 1982년의 질문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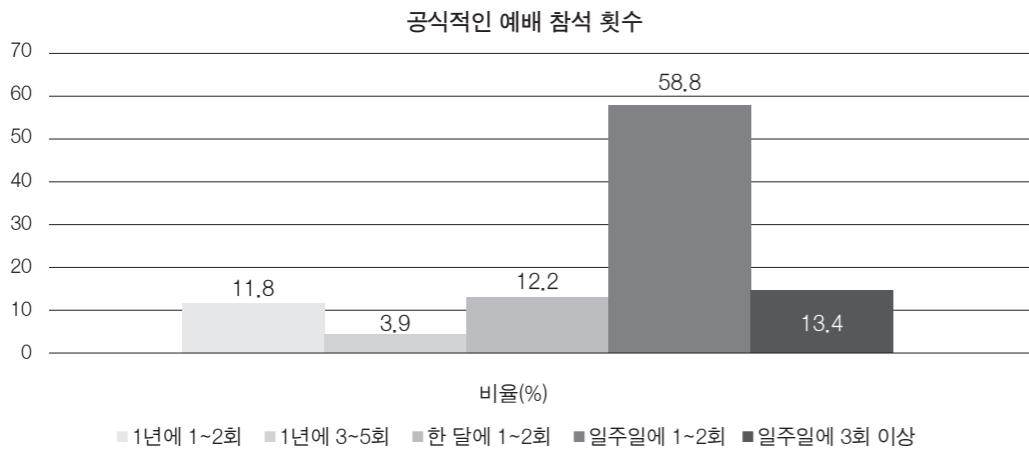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의 비율이 36년 전과 비교해 약 20% 정도 증가했다는 사실, 더욱이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의 비율이 10~20년의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은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충실판이 더욱 강화됐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에도 열려있는데, 새롭게 개신교인으로 전도되는 사람들의 비율이 현격히 감소해왔음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2)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

한국 개신교인의 상당수(72.2%)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이상 공식적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2회 정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58.8%로 가장 높았고, 3회 이상 참여하는 신자들의 비율은 13.4%로 두 번째로 높았다. 36년 전인 1982년의 통계조사³⁾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의 비율이 84.8%에 달했다. 이 통계와 본 설문조사에서의 통계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과거에 비하면 현재의 신자들이 교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비율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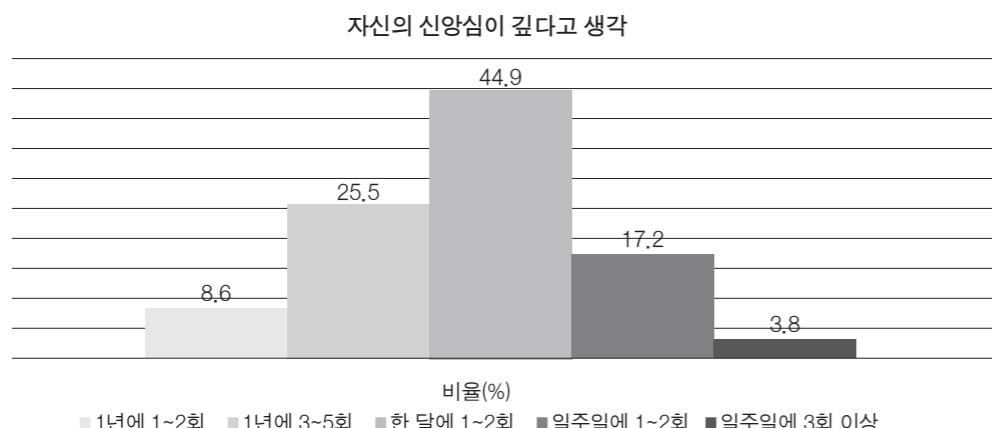
3)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67: 1982년의 설문에서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나가는가"를 물었고, 2018년의 설문에서는 "얼마나 자주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가"를 물었기 때문에 양자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율의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하긴 어려우나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빈도가 36년 전과 비교해서 대체로 줄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앙의 충실성이 강화됐다기보다 형식적인 최소한의 충실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신앙생활의 기간은 평균적으로 상향되었는데 신앙생활에 들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한 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이는 향후 과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2018년의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객관적인 지표에 있어서 신앙에 대한 충실도가 높은 편이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3)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이나 공식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객관적 충실도가 비교적 높음을 가리킨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 개신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앙심이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비율(44.9%)이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은 34.1%로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3명 중 2명은 자신의 신앙심에 자신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982년의 통계조사에서는 신앙심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묻는 문항이 없다. 다만, 구원의 확신을 묻는 문항에 관한 결과만을 알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목회자의 98.3%('확신한다' 95.2%, '확신하는 편이다' 3.1%), 평신도의 93.2%('확신한다' 79.6%, '확신하는 편이다' 13.6%)가 긍정적으로 답했다.⁴⁾ 이에 견주어 판단컨대, 신앙심의 주관적 판단에 관한 질문은 이러한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자신의 신앙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원의 확신에 두었는지, 교회생활에 들이는 시간과 열정에 두었는지, 아니면 윤리적 삶의 변화에 두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설문이 추가되어야 한다.

4) 종합적인 해석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과거에 비하면 신앙의 적극성이나 열성이 감소했을 개연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결속을 훼손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공식행사에 출석하는 횟수가 36년 전과 비교해서 10% 남짓 줄었다고 해도 신앙생활 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장기적인 신자들의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압도적이며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온 신자들이 36년 전보다 더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 개신교를 지탱하고 있는 신자들의 신앙의 지속성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신앙심에 대한 자신감이 약하다는 사실은 신자들 상당수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고 공식적인 예배에도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의 충실성이 신자들 개인의 구체적인 삶에서도 지속하고 있는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이후 과제를 남긴다. 또한, 신앙의 충실성이 신자들 개개인의 결단과 의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 공동체 단위의 신앙의 전통이 정착한 결과로 보태신앙을 지닌 신자들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생활이 삶의 일부가 된 결과에 의한 것인지를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추후의 과제로 남는다.

2. 근본주의 신앙관 조사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에 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사연의 82년도 통계조사에서도 근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조사가 빠지지 않는다. 1920년대 미국의 일부 개신교인들이 이른바 세속화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한 종교적 이념형인 근본주의는 극단주의의 형태로 쉽게 정치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지 교회 내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63.

5) Nancy Tatorm Ammerman, *Bible Believers: Fundamentalist in the Modern World*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7), 3, 8; 정재영, "종교 근본주의의 개념과 역학,"『기독교사상』635 (2011.11), 42.에서 재인용.

한 종교사회학자의 표현처럼, “근본주의자는 현대성이 중대되는 모서리에서 발견될 가능성”⁵⁾이 클 수 있다. 하지만 근본주의가 정치적 현장에서 작동할 경우, 제국주의적 근본주의와 대항적 근본주의로 분기될 수 있다는 사실은⁶⁾ 근본주의와 현대성이 평면적인 이분법으로 나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근본주의는 현대성의 한복판에서 제국주의적 근본주의와 이에 대항하는 대항적 근본주의로 나뉜다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근본주의는 현대성의 수혜자로서 현대성에 저항한다. 반면, 대항적 근본주의는 현대성의 소외자로서 현대성에 저항한다.

현대성의 계기적 성격은 이러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즉, 현대성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며 변화한다. 따라서 현대성은 매 계기적인 시대성이며 본유적인 정체성이란 없다. 반면 근본주의는 매 계기적인 시대성에 저항하는 고착된 시대성의 산물로서 정체성의 위기에 맞서고자 하는 정체성이다. 하지만 근본주의는 하나의 고착된 시대성 자체는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목표 또한 고착된 시대성의 충실한 재현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시대성에 힘입어 형성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인으로, 업데이트되고 변화한 시대성과 상호작용하는 일에 열려있지 말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근본주의자는 현대성이 중대되는 모서리에서만이 아니라 도처에서 발견된다. 근본주의의 핵심은 현대성과의 대립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현대성과 관련해서 정체성이 성공적으로 확립되느냐의 여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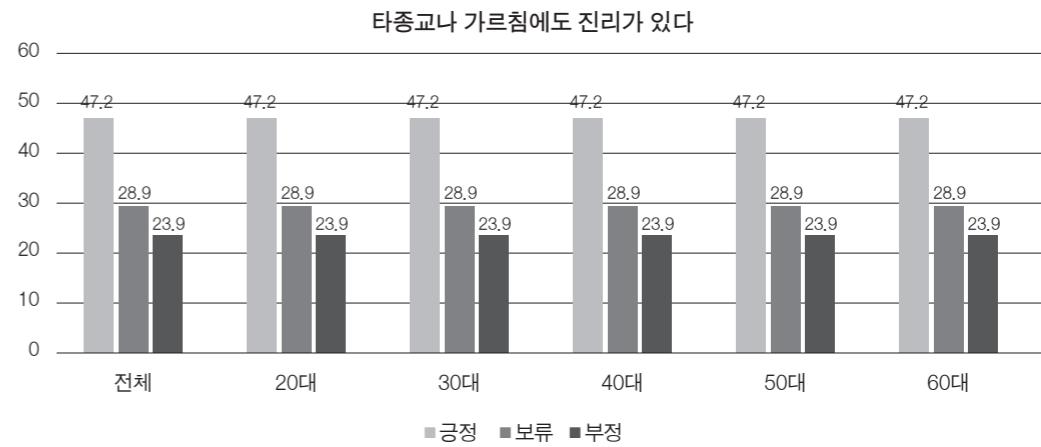
이로 미루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하다. 만일 한 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이 현대성의 지속과 더불어 감소한다면, 그 종교는 새롭게 확립된 현대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의 정체성은 현대성 내부에서 그 현대성을 ‘표면적으로는’⁷⁾ 재현하지 않고서도 현대성의 중심부에 위치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근본주의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만일 한 종교의 근본주의적 성향이 현대성의 지속과 더불어 강화된다면, 그 종교는 새롭게 확립된 현대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욱 증폭되는 정체성 위기는 이 현대성의 모서리에 위치해서 대항적 근본주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설문과 통계분석을 통해 구현하는 데에는 한 가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근본주의를 어떤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1982년의 통계조사에서는 근본주의 척도로 ‘성경은 자자구구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다’, ‘내세가 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려 다시 오신다’의 다섯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분석했다.⁸⁾ 반면 본 설문조사에서는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 ‘

다른 종교나 가르침도 선하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 ‘성서에도 오류가 있다’의 네 가지 문항을 제시하고 분석했다. 근본주의는 정체성 위기와 관련이 있는 까닭에,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통성 주장과 관련된 내적 질문과 배타성 주장과 관련된 외적 질문이 동시에 물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982년의 설문조사는 내적 질문 중심으로 근본주의를 평가하고자 했다면, 2018년의 설문조사는 외적 질문 3가지와 내적 질문 1가지(성서무오설)로 내적 질문과 외적 질문을 모두 고려하고는 있으나 균형감이 없고 포괄적인 척도가 되기에는 질문의 양도 부족하다. 1982년의 설문은 근본주의를 내적 질문만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질문의 내용이 선정된 구조적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듯 내외적인 균형감과 충분한 질문의 양을 확보하는 것은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1) 다른 종교나 가르침의 진리성과 선함

2018년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비율(4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20~60대 전 연령층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반면,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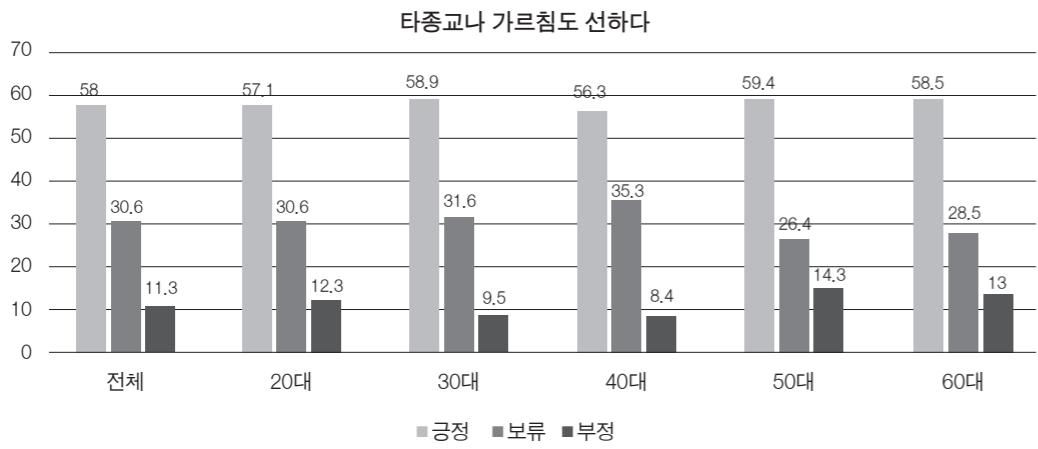
6) 강학순, “근본주의의 극복에 관한 철학적 고찰,”『현대유럽철학연구』27 (2011.12), 73.

7) 제국주의적 근본주의는 현대성에 적응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 현대성에 대한 대립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그 표현형은 현대성에 거리 두기를 하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예컨대, 교회는 신과 재물을 동시에 섭길 수 없다고 가르침으로써 자본주의의 세속화 성향과 거리를 둔다. 하지만 교회는 신을 잘 섬기면 재물의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가르침으로써 자본주의의 세속성을 내면화한다.

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100-102. 참조.

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80: 1982년의 설문과 2018년의 설문은 질문과 선택지의 내용 모두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1982년의 설문에서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고 ‘모든 종교와 같은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우월’, ‘기독교의 진리만이 참 진리’라는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르도록 했다면, 2018년의 설문에서는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묻고 ‘매우 그렇다’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에 이르는 5점 척도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했다. 1982년에는 다른 종교의 진리성을 기독교의 진리성과 비교함으로써 판단하도록 했지만, 2018년에는 기독교와 직접 비교하지 않고 다른 종교나 가르침의 진리성을 판단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질문의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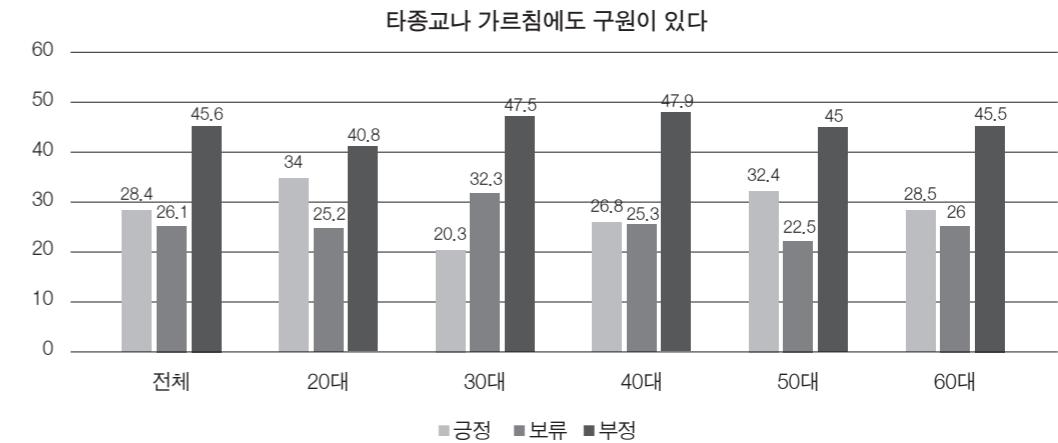
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⁹⁾ ‘기독교의 진리만이 참 진리’라고 응답한 개신교인의 비율은 평신도의 경우 62.6%, 목회자의 경우 70.9%로, 본 설문조사에서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응답한 23.9%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다. 이는 지난 36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인들의 배타주의적인 진리 주장이 상당히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른 종교나 가르침도 선하다고 보는 신자들의 비율(58.0%) 또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종교나 가르침의 진리성에 대한 긍정보다 10%p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다른 종교나 가르침을 진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선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조금 더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윤리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장에서 다른 종교와의 만남을 갖는 일에 가장 거부감이 없으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한다. 한스 킹의 세계 윤리 구상¹⁰⁾은 한국의 개신교인들에게 실효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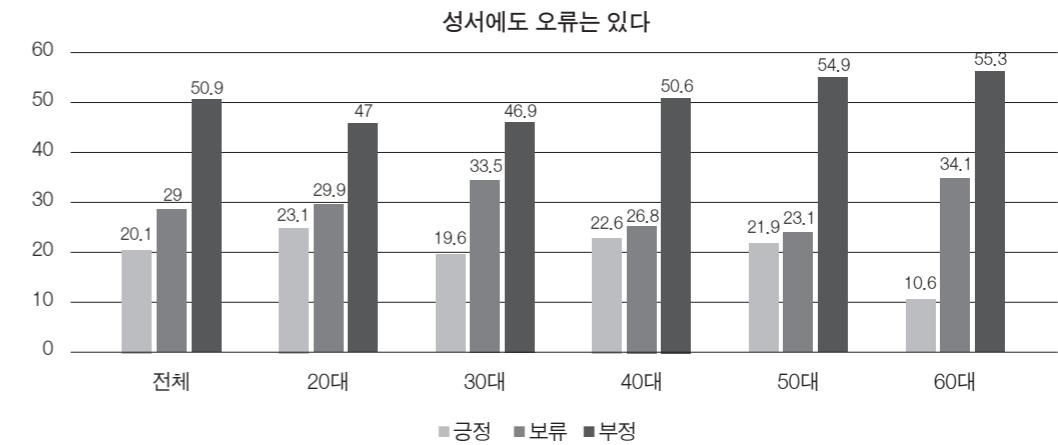
2) 다른 종교나 가르침의 구원 가능성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으며 선하다는 생각과 비교하면, 2018년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여전히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다는 배타적인 생각(45.6%)이 더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들의 비율이 28.4%라는 점, 판단을 유보한 신자들 까지 합하면 과반수 넘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원에 대한 생각의 배타성 또한 완화됐다고 할 수 있다.



3) ‘성서무오설’

성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의 비율(50.9%)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 개신교인들의 비율(20.1%)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한국 개신교인 5명 중 1명은 ‘축자영감설’을 바탕으로 하는 ‘성서무오설’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통계이다. 이러한 양상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82년의 통계는 성서무오설이 아닌 축자영감설에 대한 조사만 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성서무오설이 축자영감설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아예 없지 않기에 소개해 두기로 한다. 1982년 조사에 의하면, 축자영감설을 믿는 평신도의 비율은 92.3%, 목회자의 비율은 84.9%로 상당히 높았다.¹¹⁾ 따라서, 2018년 성서무오설을 믿는 개신교인의

10) 한스 킹/안명옥 옮김,『세계 윤리 구상』(서울: 분도출판사, 1992).

1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56.

비율이 50.9%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성서무오설을 믿는 개신교인들의 비율 또한 지난 36년간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4) 종합적인 해석

이상의 통계 결과들은 다른 종교들에 대한 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가 ‘배타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이행했음을 보여준다. 다른 종교들도 진리가 있고 선하다고 보는 경향이 우세해졌지만, 비록 과거와 비교해서 많이 약화하긴 했으나 구원 가능성은 여전히 기독교에만 있다는 생각이 우세하다는 사실은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구원 가능성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신자들의 수를 고려할 때, 2018년 한국 개신교인들은 포괄주의를 넘어 다원주의를 향해 갈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스레 전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증은 향후 과제로 남는다.

배타주의적 성향의 완화와 성서무오설의 완화는 지난 36년 사이에 한국 개신교인들의 근본주의적 성향이 약화해 왔다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근본주의적 성향의 완화인 것인지, 아니면 현대성의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제도 교회가 끊임없이 재편되어 온 결과 지나간 도전에 관용적인 제도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이 변화한 현대성 속에서 제국주의적 근본주의를 발톱 밑에 숨기고 있는 것인지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종교 다원 상황이 기독교에 도전하는 현대성을 대변하던 시대가 지나고 다른 도전이 오늘의 현대성을 대변하게 된 것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은 동성애 관련 문제다.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한국 개신교인들의 비율(53.5%)은 그 자체로도 높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23.0%)과 비교해서도 두 배를 넘는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국 개신교의 배타성과 근본주의적 경향을 다시 판단한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올 개연성이 크다. 오늘날 개신교 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슬람이나 난민 문제 또한 한국 개신교의 21세기 초반 근본주의의 면모를 밝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향후 과제로 남는다. 다만 여기에서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한국 개신교는 제국주의적 근본주의의 형태로 현대성과 습합하였고, 그 결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개신교 정체성의 위기로 읽고 응전하는 형태로 수혜자들의 근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¹²⁾

3. 개인주의 신앙관 조사

자본주의적 현대성은 근대의 원자론적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주의는 공공성과 관련하여 공동체주의와 대립 내지는 대조되어왔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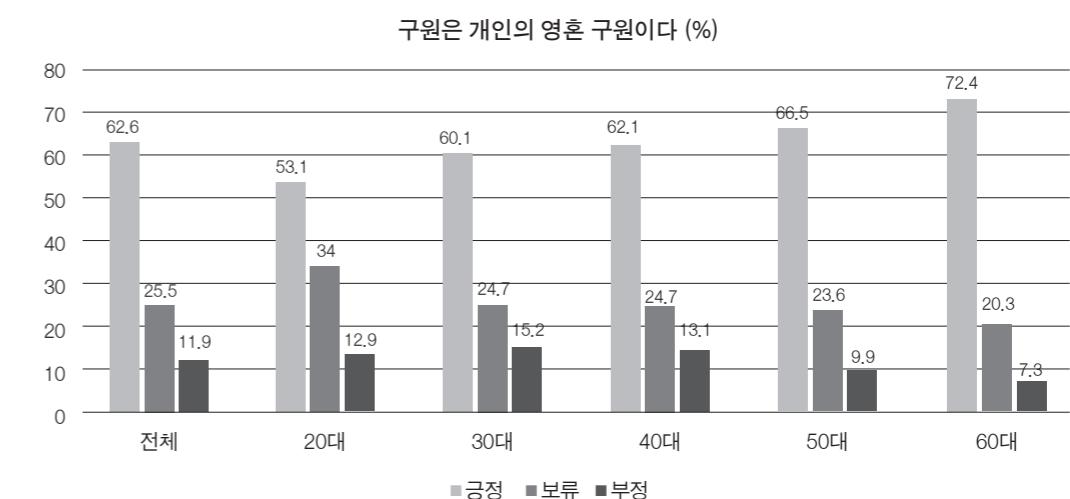
공성을 이해하고 추구하는 방식에서 서로 대립 내지는 대조되어왔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공공성 상실의 주범이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정당한 것인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적어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공공성의 내용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¹³⁾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이며, 이때 개인화와 파편화의 심화는 공공성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공공성 위기의 일부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있다.¹⁴⁾

따라서 종교를 사적 영역에 몰아넣는 세속화 이론을 기반으로 사적 영역에 매몰된 개인주의적 구원관 자체가 한국교회의 공공성 상실의 원인¹⁵⁾이라고 보는 시각은 재고되어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 개신교인들의 개인주의적 구원에 대한 인식과 교회와 신자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을 묻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주의적 구원관

2018년의 한국 개신교인들은 적어도 구원하는 능력만은 다른 종교에 양보하길 원하지 않는데, 구원이 무엇인가를 떠올릴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체로 ‘개인의 영혼 구원’(62.6%)이다. 개인주의적이고 내세적인 구원관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이러한 경향은 평신도의 66.9%, 목회자의 74.6%가 ‘개개인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의 의미와 내용으로 본 36년 전¹⁶⁾과 비교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2) 이 말은 모든 개신교인이 현대성의 수혜자들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이념이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국주의적 근본주의 담론을 공유하는 경향이 우세하다는 의미이다.

13) 김동노, “개인주의, 공동체주의, 그리고 한국사회의 공공성,”『사회이론』45 (2014.06),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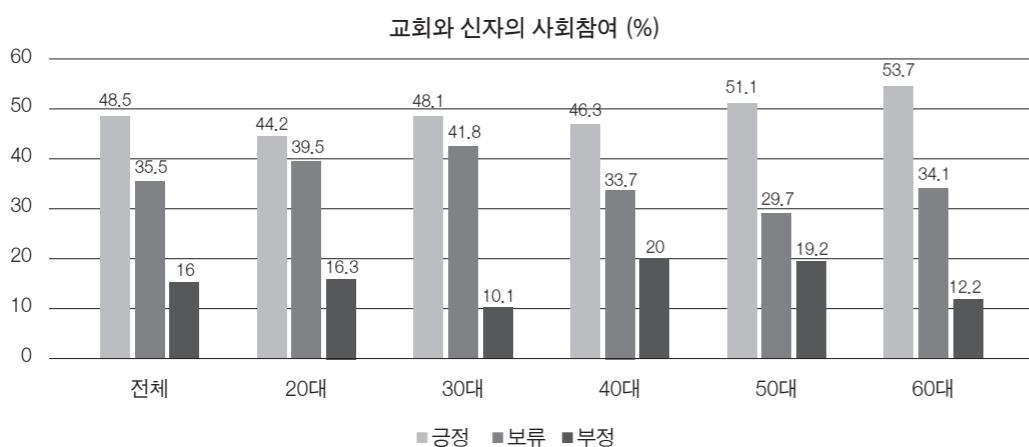
14) Ibid.

15) 정원범, “한국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기독교의 사회선교,”『기독교사회윤리』27 (2013), 345

16)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64.

2) 교회와 신자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흥미롭게도, 교회와 신자의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를 지지하는 비율(48.5%)이 유보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와 비교해서 가장 높게 나왔다. 유보적인 관점(35.5%)이 그 뒤를 잇는 가운데 부정적인 견해는 16%에 불과했다. 1982년의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설문이 자료로 남아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회의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은 목회자가 38.3%(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33.2%, 해야 한다 5.1%), 평신도가 45.4%(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38.4%, 해야 한다 7.0%)였고, 부정적인 태도는 목회자가 59.5%, 평신도는 52.3%였다.¹⁷⁾ 하지만 1982년의 정치참여에 관한 설문 결과를 2018년의 사회문제 참여에 관한 설문 결과와 직접 비교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통계분석의 기술적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1982년의 조사에서는 유보적인 관점을 갖는 신자들이 매우 소수였으나(목회자 2.2%, 평신도 2.3%), 2018년의 조사에서는 35.5%에 달하여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사실, 2018년 설문의 거의 모든 문항에서 판단 보류가 의미 있게 높았다)는 점이다.¹⁸⁾

판단 보류 의견은 문항의 질문 의도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주류의 견해라고 예측되는 선택지를 선택하는 것에 부담이 될 때 나올 수 있다. 본 설문은 이 두 경우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향후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기획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3) 종합적인 해석

개인주의적인 내세적 구원관과 교회와 신자의 사회문제 참여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높은 비율로 나왔다는 점에서, 개인주의적 신앙이 반드시 종교의 사적 영역에로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교회의 공공성 상실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개인주의적 신앙을 분석하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와 사회와의 관계 자체에서 찾아야 할 수 있다. 이 또한 향후의 과제로 남는다.

17)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한국교회 100년 종합조사연구』, 109-110.

18) 이것은 1982년의 설문조사와 2018년의 설문조사가 서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1982년의 설문에는 판단 보류나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지에 넣지 않았고, 이에 따라 판단 보류나 중립적인 입장은 무응답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반면, 2018년의 설문에서는 판단 보류나 중립적인 입장을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있는 5점 척도 방식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의사도 직접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안에 깃든 신학적 함의: ‘개헌관련’을 중심으로

이상철(연구원, 한신대학교)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하 ‘기사연’)’에서 실시한 “신앙/종교적 성향에 따른 개헌, 통일,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는¹⁹⁾ 한국개신교에 대한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었다. 나는 프로젝트 중 개헌 관련 이슈에 참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개신교인들의 개헌 관련 인식은 연구팀이 당초 예상했던 것에 비해 전향적인 것이었다. 한국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과 비판적 전망에 젖어있었던 나는 인식조사를 통해 한국개신교도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풀어야 할 헌법 개정과 더 나아가 도래할 남북평화시대에 개신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 섞인 전망을 낳게 하였다. 이 글은 개헌분야에 드러난 개신교인 인식조사를 근거로 한국개신교의 현재를 파악하고, 한국사회 발전의 속도에 맞는 헌법 개정의 방향에 대해 가늠해 보는 것, 더 나아가 남북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조류 앞에서 한국개신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들어가며

헌법 개정은 지난 2016-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이슈로 떠올랐다. 1987년 개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박근혜 국정논란’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법조계 뿐 아니라 사회 각 층에서 일기 시작했다. 박근혜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권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풍쳤고 그것이 국정농단의 사슬이 되어 정치와 행정을 파행시켰다. 정경유착의 고착화와 각종 탄압과 배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았던 병폐였다.

이러한 분석은 일면 정확한 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적폐 세력들의 입에서도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는 것은 문제다. 물론, 현행 헌법이 지니는 한계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개헌은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자행되었던 비리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에 돌리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로만 한정시키려는 기득권층의 수작이다. 패권적 행정권력, 재벌중심의 경제구조와 시장권력, 그리고 ‘양승태 사법농단’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을 감시해야 할 검찰의 부패와 언론의 무능이 양상을 이뤄 대한민국을 사지로 빼뜨리고 있다. 여기에 빼질 수 없는 세력이 바로 한국개신교이다. 일부 한국의 극우 개신교도가 보이는 퇴행적이고도 편협한 국수주의적 모습은 한국사회가 보이는 적폐의 중핵으로 비춰진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니 말이다.

2. 개헌관련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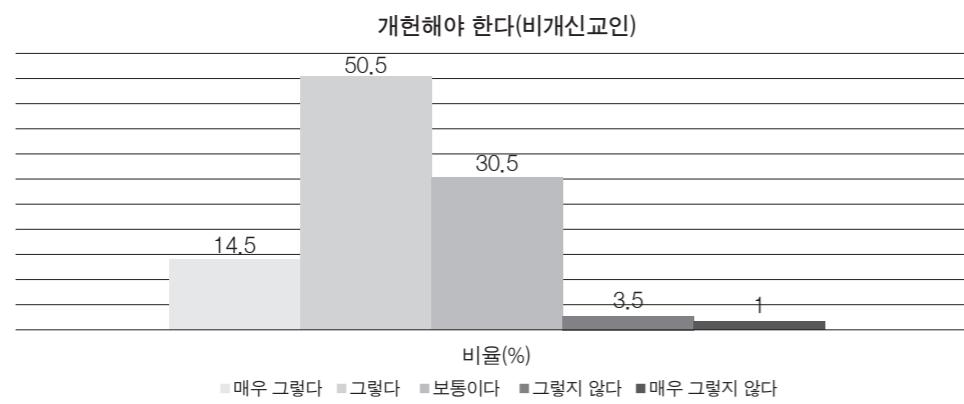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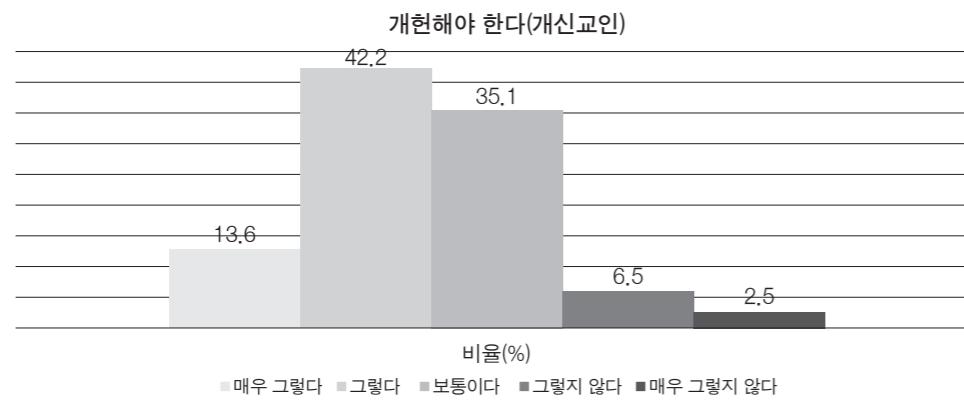
헌법은 크게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기본권 조항’과 통치형태를 규정한 ‘권력구조 조항’으로 나뉜다. 그동안 9차례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방향은 기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의 근본 취지보다는 권리구조 개편에 그 초점이 있어왔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은 ‘유신헌법’으로 알려진 ‘7차 개헌’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기본권 조항을 강화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개헌이었던 1987년 개헌 아래 지금까지 달라진 시대상에 걸 맞는 법정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87년으로부터 30년이 흐르는 동안 변화한 사회 환경과 국민들의 인식을 담아내지 못하는데, 바로 여기에 현 헌법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론의 시작이다.

현행 헌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问题是 많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빈부격차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 1인가구의 급증, 지방자치의 확대,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 난민의 문제,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심각하게 부상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성소수자와 폐미니즘 문제, 남북평화 체제 문제 등 30년 전 만들어진 헌법으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다룰 수 없다는 위기와 함께 우리사회는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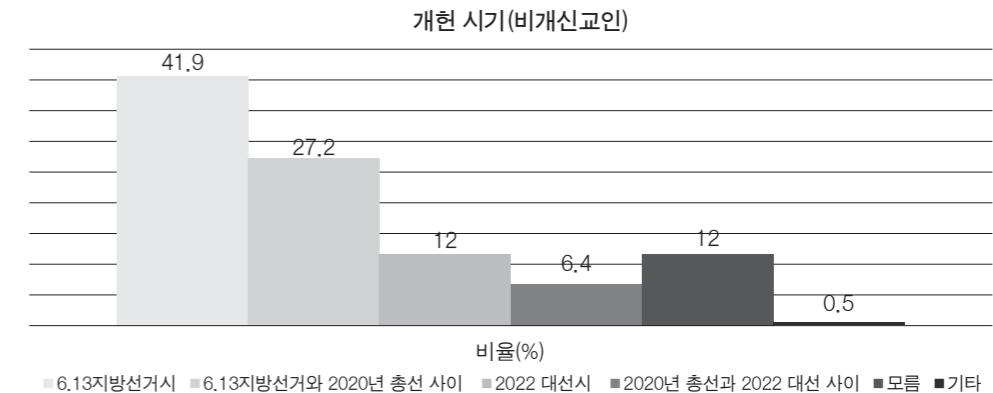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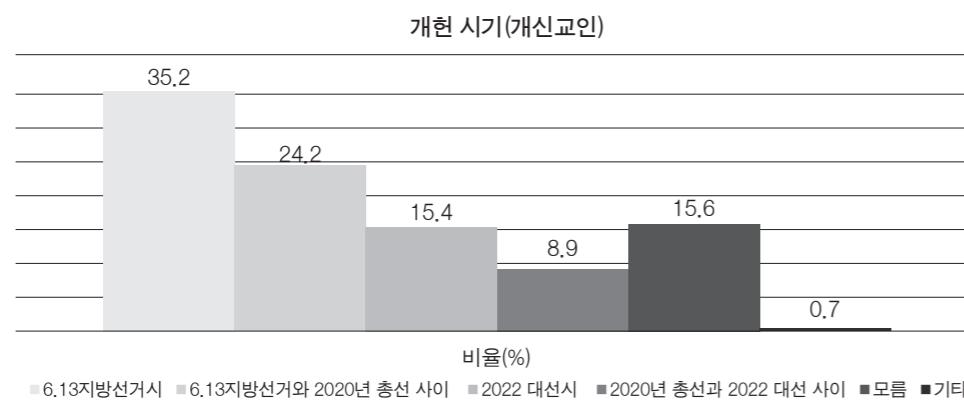
개신교인들의 “신앙관, 개헌, 남북관계 및 통일, 동성애”에 대한 인식조사 중 특별히 ‘개헌’과 관련하여 확인된 중요한 특징은 개신교와 비개신교인 사이 개헌의 필요성, 개헌 시기, 개헌 범위, 통치구조: 인테이터랩 ⑧표본오차: 신뢰수준 95% 기준, ±3.1%p

조 선택 등에 있어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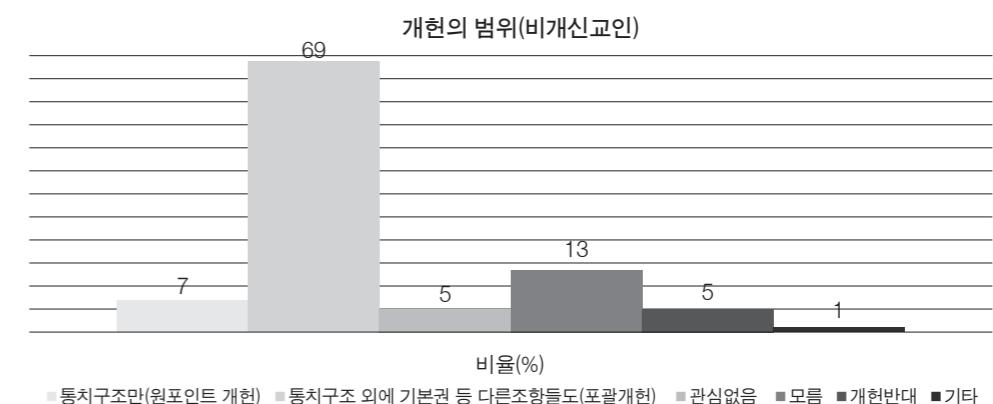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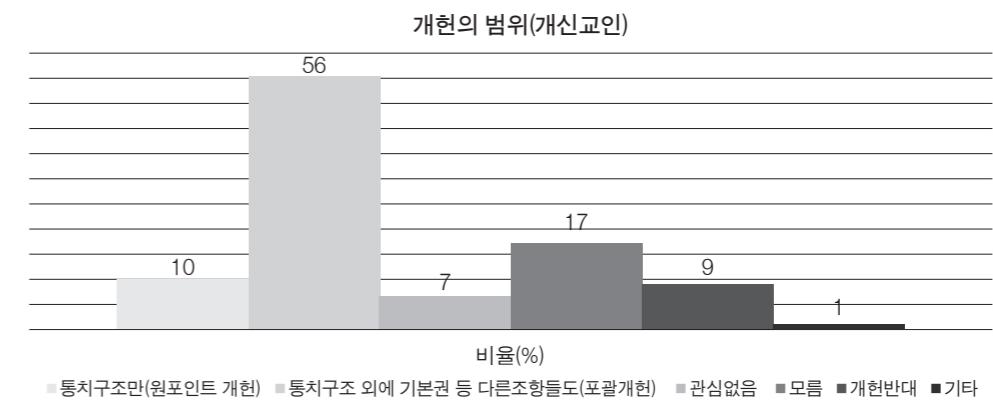
- 먼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다수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비개신교인 65.0%, 개신교인 55.8%) ('보통'으로 답한 비개신교인 30.5%, 개신교인 35.1%)



- '개헌 시기' 관련 질문에서도 양쪽 모두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비개신교인 41.9%, 개신교인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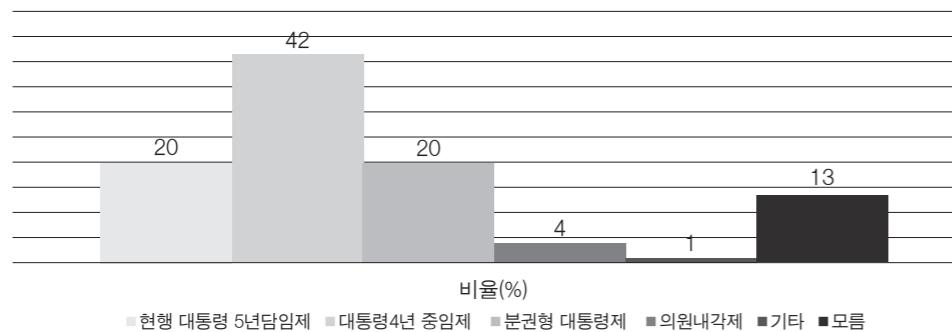


- '개헌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양쪽 모두 통치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포괄개헌을 지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비개신교인 69%, 개신교인 56%) (원포인트 통치구조 개헌지지 - 비개신교인 10%, 개신교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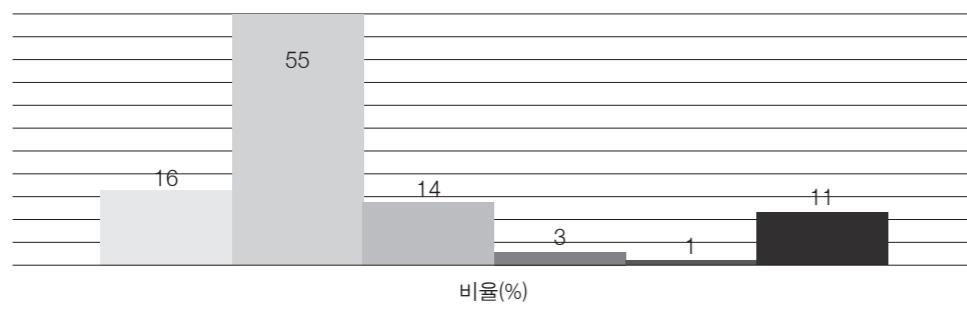


4)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가장 많은 사람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비개신교인 55%, 개신교인 42%). 개신교인 사이에서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각각 20%로 공동 2위권을 형성하였다. 비개신교인 사이에서는 대통령 5년 단임제가 (16%) 분권형 대통령제(1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통치구조(개신교인)



선호하는 통치구조(비개신교인)



3. 개헌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개헌은 시대정신이다. 정파 간 계파의 이익이 절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밀실합의가 아닌 국민정서를 법 정신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보통 개헌의 방향은 권력구조 개편과 권리체계 개혁으로 나뉜다. 설문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중요 쟁점이었다. 권력구조 개편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의원내각제는 일본처럼 나눠먹기 권력세습이라는 인상이 짙어서인지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시되었는데 개신교, 비개신교 공히 1위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나타났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년 단

임제보다 부패를 더 줄이고 권력의 집중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체계 개혁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국민의 실제적 주권행사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개헌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폭과 역할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명실상부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정확히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개헌의 범위를 묻는 항목에서 통치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등 다른 조항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포괄개헌’을 다수가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에 대한 지지도 높으리라는 예상을 해 보게 된다.

따라서 금번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한국 개신교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수적 신앙의 색깔이 빠지고 있으며, 혹은 보수적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선점하거나 주도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각각의 문항에서 개신교인의 비율이 비개신교인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개신교 보수 세력의 입김이 다소간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겠다.

1) 신앙관과 정치적 입장, 신앙관과 개헌의 필요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갖는 정도를 주관적으로 묻는 8번 문항과 교회와 성도가 사회참여에 적극적이어야 하는가의 여부를 묻는 9번 문항의 역치를 평균하여 개인주의 구원관을 갖는 정도로 설정한 후, 이를 정치적 진보성(문항 10), 개헌의 필요성(문항 11) 각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정치적 입장과의 상관관계

귀무가설: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정치적 진보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정치적 진보성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계수	검정통계량(T)	p-value
-0.085	-2.029	0.043

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위의 귀무가설은 기각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정치적 진보성은 상관계수 -0.085로 서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개인주의적 구원관에 경도되어 있는 개신교 신자일수록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②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개헌의 필요성과의 상관관계

귀무가설: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대립가설: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상관계수	검정통계량(T)	p-value
-0.160	-4.579	<0.001

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위의 귀무가설은 기각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적 구원관과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즉, 개인주의적 구원관에 경도된 개신교 신자일수록 개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개헌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모두 압도적으로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는 포괄개헌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개신교 85.7%, 개신교 75%). 반면, 원 포인트 개헌은 비개신교인 8.7%, 개신교인 13%로 나타났다. 이 조사 역시 보수 개신교의 입김이 개헌에 대한 입장에 있어 개신교들의 의견을 주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데이터라 할 수 있겠다.

3) 선호하는 통치 구조를 묻는 질문에서 양자 모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일 선호하는 통치구조로 꼽았다 (비개신교인 62.3%, 개신교인 49.9%).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22.6%), 분권형 대통령제(23.2%)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개신교인이 개신교인에 비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통치구조의 변화는 권력구조와 기득권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른 조사에 비해 비개신교인과 개신교인들 사이 명확한 인식의 차이가 났다. 야당이 제안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개신교인의 비율이 비개신인들 보다 높았다(7% 차이)는 사실은 개신교 세력 중 일부가 여전히 보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4)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통치구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러 연령층 중에서도 만30~39세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56.2%), 만 40~49세 연령층(51.9%)이 그 다음 순서를 차지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만20~29세가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다(27%). 분권형 대통령제는 만60~69세 층에서 가장 수치가 높았다(34.3%).

제왕적 통치 형태라 지적받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20대 개신교인들이 적지 않게 선택했다는 사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선호도가 30, 40대에 비해서도 떨어진다는 사실로 볼 때, 20대 개신교인들의 정치의식이 30대, 40대 개신교인들 보다 보수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30대 말에서 50대 중반까지는 80년대부터 90년대 초, 중반까지 변혁의 시절에 대학을 다녔던 세

대이다. 당시는 기독청년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세력들이 교회의 중견이 되어 한국 개신교의 보수화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진단을 하게 된다.

반면, 현재 20대 개신교인의 비율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청년세대들의 비개신교인 비율은 이전 시대보다 훨씬 높다. 교회가 보수적으로 되어 청년들이 떠난 것인지, 청년들이 떠나서 교회가 보수적으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현재 교회에 남은 20대 청년들은 이전 시대 기독청년들보다는 보수적인 청년들이다. 미래세대라 할 수 있는 청년세대들의 신앙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 여겨진다.

4. 대통령 헌법 개헌안과 개헌관련 설문조사 결과와의 상관성

설문조사 개헌관련 분석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 2018년 3월 22일 청와대발 개헌안 전문이 발표되었다. 이번 개헌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대목이다. 근대 시민사회 특징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등장, 정치적으로는 국민국가의 탄생을 근대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국가는 각자 나름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국가를 운영해 왔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근대초기 국가의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인 후 도달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지만, 국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근대초기 정치철학의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근대의 국민국가들은 더욱 많은 자원 확보를 위해 식민지 경영에 본격적으로 달려들었고 그러면서 느슨한 권리형태를 사랑했던 근대의 국민국가들은 점점 정부의 권한과 힘을 강화되는 쪽으로선회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점차 제국주의화 되어간다. 제국주의국가에서 국민은 이전의 느슨한 형태의 국민이 아니다. 국가라는 강력한 테두리 안에 위치한 존재이고 영토 밖 다른 어딘가에 존재하는 불특정 개인과는 다른 특권과 권위를 부여 받는 특별한 존재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근대 국민국가의 영향력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발 헌법안 전문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전환한 것은 우리나라 헌정사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방인들에게 혐오와 적대의 감정을 드러냈던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난민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편견 어린 시선을 보냈던 우리들이다. 성소수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시선은 또 어떠한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민으로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국민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된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대통령의 제안이 근대적 영토개념과 국민개념에 입각해 경계와 무리를 지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구시대의 달혀있는 사고에 경종을 울

리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폐쇄적인 사고는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경향에 부합하지 않는다. 본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함은 국민과 국민이 아닌 존재와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로 작동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다. 차이가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 안 된다. 그런 면에서 ‘국민’에서 ‘사람’으로의 전환은 존재의 차이가 차별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청와대발 헌법개정안 가운데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을 많이 보완했다는 점이다. 우선 ‘근로자’를 ‘노동자’로 대체하였다. ‘근로’는 ‘사용자(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반면, ‘노동’은 ‘사용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라는 말에는 근면하고 성실하게 기업을 위해 지시대로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노동자라는 말에는 자신의 일에 스스로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노동자라는 표현대신 근로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당시 이념적인 대립 상황 속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 불순하게 여긴 나머지,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근로’라는 단어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오래된 관행을 뒤집고 근로 대신 노동이라는 말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헌법관련 설문조사는 청와대발 헌법 개정안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여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개신교인 뿐 아니라 개신교인들의 의식조사에서도 통치구조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수정해야 한다는 포괄개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은 국민을 법의 적용대상으로 축소하고 한정하는 근대 국민국가의 법질서가 그 시효를 다했음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본다. 이는 국가주의 시스템에 갇힌 법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보다 넓고 깊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배어있는 헌법으로의 진화가 시대의 요구라는 것을 반영한다. 따라서 금번 개헌 관련 개신교 의식조사는 이러한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개헌관련 개신교인 의식조사에 나타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청와대발 헌법개정안과 연결시키면서 양자 간의 상관성에 대해 말하였다. 이제부터는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법정신과 신약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위를 통해 성서가 말하는 법 정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전개되는 개헌관련 움직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성찰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5. 개헌관련 개신교 의식조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1):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구약성서의 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완성되었다. 그 법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은 ‘동태복수’의 원칙이다.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명은 명으로 갚아야 한다는(출 21:23- 25; 롬 24:20; 신 19:21) 것이 바로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이다. 이 법은 잔인하고 원시적인 윤리성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보복 원칙으로서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그 목표로 한다. 형벌을 돈으로 막을 수 없기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평등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법에는 계급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법은 당시 고대 근동의 법을 많이 차용하였다. 하지만 형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다르다. 절도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경우 사적재산에 대한 보호 규정은 다른 근동의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약했다. 개인의 재산보다는 집단의 필요에 좀 더 방점을 두었다. 대부금에 대한 이자 규정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자를 죄악시 하였다. 이자가 채무자를 파산으로 몰아 종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종과 약자들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 이스라엘 법은 다른 고대 근동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너그러웠다. 신명기 5:14~15은 안식일 법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너희도 쉬고, 자녀도 쉬며, 노예도 쉴 것이고 심지어 가축도 쉬게 하라. 나아가 떠돌이 식객도 쉬게 하라.” 레위기 25장 희년법에서도 빚에 대한 탕감과 종들에게 베푸는 자유, 토지 환원에 대해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평등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드러내 보인다. 안식일법과 희년법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게 제한되지 않았다. 국민 뿐 아니라 노예, 떠돌이 식객, 심지어 가축에게 까지 그 적용의 대상이 확대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역사가나 주석가들은 이스라엘 법이 갖는 개혁에 대한 전향적 의지들이 실제로 삶의 현장에 시행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러한 법 정신은 현실적으로 무시되었을 확률이 높으며,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은 그런 현실을 안타깝게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들은 이러한 법 정신을 끊임없이 부르짖었다. 그 내용은 바로 셈하여지지 않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나는 청와대발 헌법 개정안 중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킨 것을 목도하면서, 그리고 개헌관련 설문조사에서 헌법개헌의 범위를 통치구조 개편으로 한정하지 않고 기본권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을 확인하면서, 구약성서에 드러나 있는 평등과 정의를 갈구했던 이스라엘의 법 정신이 떠올랐다. 이는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더 나아가 남북평화체제 수립 및 통일헌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관심과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야 할 중요한 법정신이라 생각한다.

6. 개헌관련 개신교 의식조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2): 신약성서에 나타난 예수의 윤리

개헌관련 개신교 의식조사를 분석하는 이 순간, 유대 사회의 주요 규범이었던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파국을 향해 달려갔던 예수가 생각나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는 타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끝까지 주장하면서 살아간 인물이기 때문이다. 배고픈 사람들이 밀 이삭을 좀 뜯어먹었다고 안식법 위반을 운운하고,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도덕적 규범을 어겼다고 몰아붙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는 분노하였다. 그들을 향해 예수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마15:3)"라는 독설을 펴붓는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예수는 같은 이야기를 한다. 예수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라는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 한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만날 수 없는 타자이다. 역사적으로 양자 간에는 회복할 수 없는 깊은 골이 베여있는 관계다. 사마리아인은 길에서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얻어맞아 초죽음이 된 타자인 유대사람을 섬김을 받아 마땅한 인간으로 이웃으로 대접한다. 타자의 신음에 무조건적인 환대로 반응한 것이다.

예수의 윤리에서 드러난 '무조건적인 환대'는 당시 사회의 법 정신을 넘어가는 행위였다. 그것은 내가 알 수 없는 존재, 내가 모르는 존재에 대한 응답에서 시작된다. 타자란 나의 앎과 계산에 의해 선택되고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내가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응답을 해야 하는 대상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난 예수의 윤리는 타자의 목소리를 들어 자기 자신을 개방할 줄 아는 '무조건적인 환대'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비유로 이어진다.

최후 심판 날 인자는 양을 자기 오른쪽에 염소를 자기 왼편에 세운다. 양과 염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상징한다. 이 심판은 지켜보는 청중이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 그 이유는 판정의 기준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자의 자기인식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복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마 25:35-36). 인자가 타자라는 사실, 즉 내가 모르고 있었고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대접할 그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인자는 내가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환대를 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예수에게 있어 윤리란 '무조건적인 환대'를 전제로 한다.

예수의 '무조건적인 환대'는 유대율법에 대한 해체 아니었을까. 하지만 예수의 율법에 대한 해체는 율법 자체에 대한 파괴가 아니었다. 예수는 율법 안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 즉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하고 자유하게 하고, 인간 사회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자는 구약성서 안에 드러난 율법 본연의 정신을 끝까지 밀어붙인 인물이었다. 율법이 단순히 그것의 준수 여하에 따른 O, X의 문제라면 그것은 얼마나 율법에 대한 모독이고 제한인가. 성서의 진리가 누군가를 향한 혐오와 적대의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야 말로 신성모독 아닐까. 예수는 성서 안에 숨겨져 있는 명백한 진리를 다시 조명하면서, 그 길을 따라 정직하게 걸어간 인물이었다. 그에게 있어 윤리란 상징적 법칙이 지배하는 현실의 질서와 넘어가는 '법 밖의 정의'(Outlaw justice)²⁰⁾를 겨냥한다.

대통령 후보 시절 문재인의 슬로건은 '사람이 먼저다'였다. 이전 정부 교육부 관리였던 사람이 "민

중은 개, 돼지... 신분제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것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대의를 가지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현 정부는 그 촛불의 힘에 절대적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나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전환시켜 발의한 청와대의 헌법개정안 초안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의 연장이었다고 믿고 싶다.

이 법안은 기존 법안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탓에 거대 야당의 반대로 당장은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 비로소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강철천장에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의 대상을 확대시킨 것은 앞으로 기본권을 둘러싼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그것은 인권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 등 무수한 인간의 기본권을 둘러싼 담론투쟁의 근거가 될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약성서에 기록된 안식일법과 희년법의 정신을 소환해야 할 것이고, 신약성서에서 보여준 예수의 법 밖의 정의 향해 나갔던 행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약성서의 안식일 법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이방인과 나그네뿐만 아니라 가축에게까지 확대되었고, 예수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모두가 사람이 먼저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성서의 전거들이다.

7. 에필로그

이번 작업을 실행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한국 개신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의 결이 너무나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세대별, 사안별로 분석하고 해석해야 할 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참여하면서 무엇보다 고무적이었던 것은 '아직 한국 개신교가 희망적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개신교를 떠올리면 보수적 혹은 수구적이라는 인상이 강한데 이는 괜한 선입견에 입각한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에 있어 한국의 개신교도들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일는지 모르겠다. 앞서 살펴보았던 신, 구약 성서의 메시지가 그것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번 조사를 통해 나는 앞으로 한국개신교가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는 하나 아직 바뀌려면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는 또 한 번의 사상투쟁, 이념투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것이다. 그때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 나타난 희년의 정신과 예수를 통해 맛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떤 체제와 시스템과 법보다도 사람을 우선시 하는 태도와 마음이 성서에는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이를 무기로 삼아 한국 개신교는 우리 앞에 주어진 역사적 현실 앞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성실하고 바르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20) Theodore Jennings, *Outlaw Justice: The Messianic Politics of Paul*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3); 시카고 신학교(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 있는 테드 제닝스 교수는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재해석한 바울신학의 핵심을 "법 밖의 정의(Outlaw Justice)"라 지칭하면서, 요즘 급격하게 일고 있는 바울에 대한 새로운 해석학적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다.

남북 관계 인식조사 결과와 한국교회의 역할

박재형(책임연구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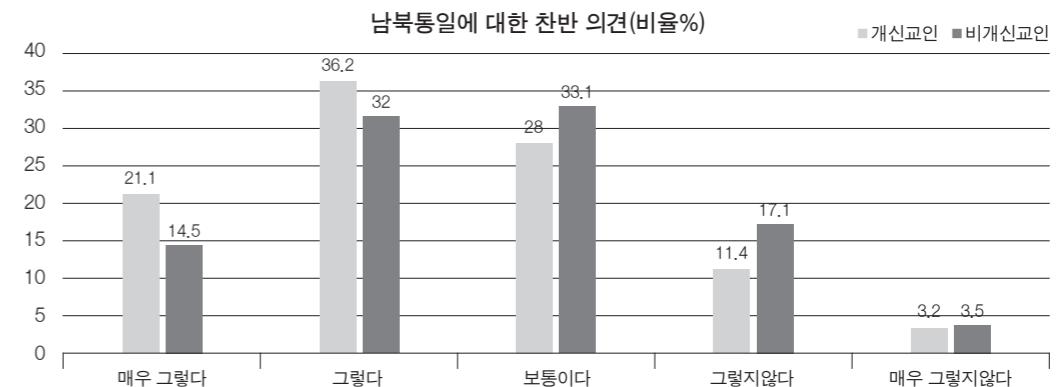
한반도의 분단 역사 속에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는 민족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러한 노력은 'NCCK 88 선언'을 중심으로 단순한 정치, 외교적 노력을 넘어서 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적 통일 운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교회의 변혁과 헌신을 강조하였다. 실제로도 민간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통일 노력은 수많은 민족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북에 대한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선교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개신교의 왜곡된 통일 의지 또한 여전하다. 이러한 개신교 내 상반된 통일 의식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바탕으로 본 조사는 현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남북 관계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동시에 비개신교인들의 인식과 비교함으로써,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개신교 세력들의 주장에 대한 허구성을 밝히고자 기획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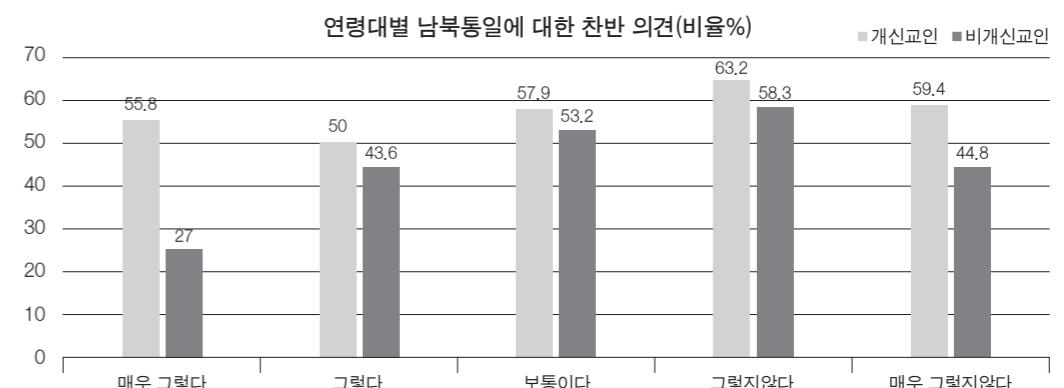
이에 본 조사는 ①통일에 대한 찬반 의견, ②한반도 평화의 위협 요인, ③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④남북문제의 정치/외교적 주도권"에 대한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의식의 분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실제 개신교인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 의식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남북통일 및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2.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우선 "남북통일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57.3%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응답하여 찬성 입장을 드러낸데 비해, 비개신교인은 46.5%만이 찬성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10.8%p. 차이) 반면, 찬성에 대한 반대 입장은 개신교인 14.6%, 비개신교인 20.5%로 5%p.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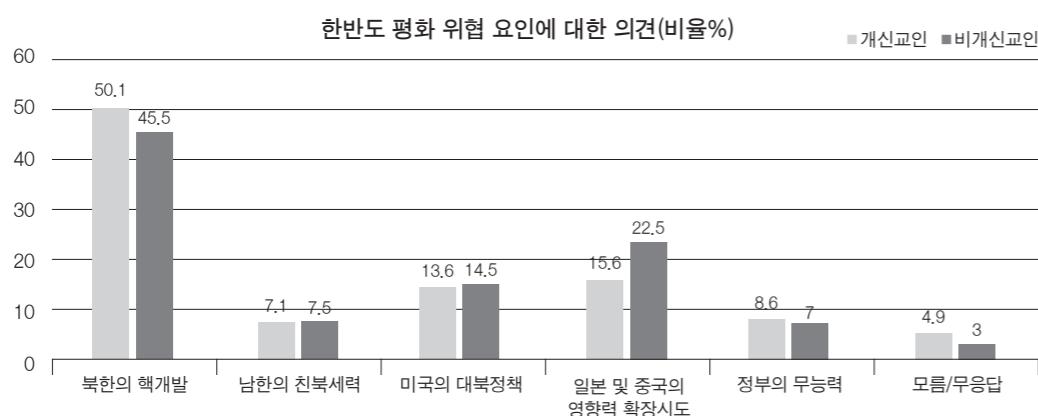


이러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인식 차이는 연령대별 분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개신교인의 경우, 20대에서 60대까지 평균 57.3%의 비교적 고른 찬성 의견을 드러낸데 반해,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20대가 27%로 가장 낮고, 30대와 60대가 각각 43.6%와 44.8%, 40대와 50대가 각각 53.2%와 58.3%로 응답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20대의 경우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많은 수가 통일을 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60대의 경우에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약 15%p. 많은 수가 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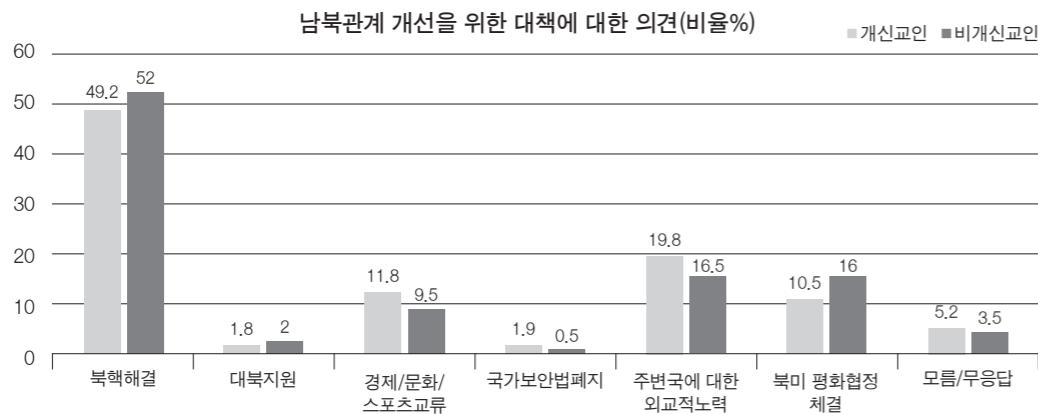


3.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의 큰 인식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의 핵개발”이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개신교인이 50.1%, 비개신교인이 45.5%로 4.6%p.의 차이를 보이고 동시에 “일본 및 중국의 영향력 확장시도”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개신교인 15.6%, 비개신교인 22.5%로 6.9%p.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개신교인의 경우 한반도 평화의 책임을 북한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반면 비개신교인의 경우 개신교인에 비해 미국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의 정치/외교적 책임으로 보는 경우가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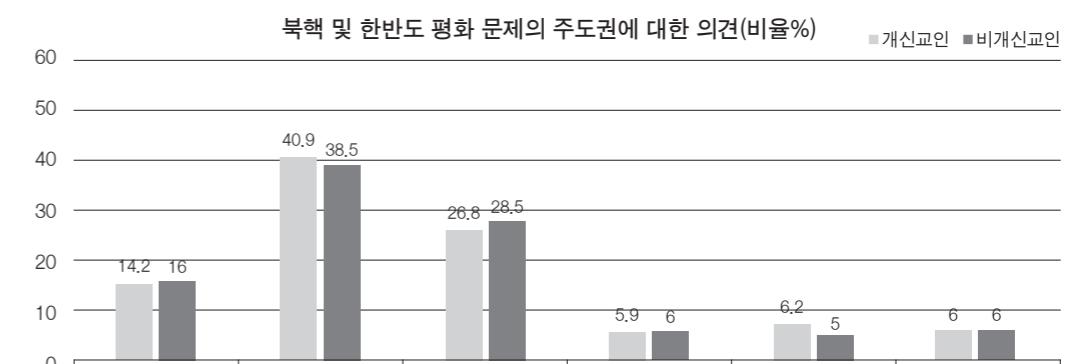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북핵 해결”이라 응답한 경우가 각각 49.2%와 52%로 가장 많다. (1.8%p. 차이) 다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수의 의견이지만 “국가보안법폐지”라 응답한 경우가 개신교인(1.9%)이 비개신교인(0.5)에 비해 약 3배가 많으며, “북미평화협정 체결”이라 응답한 경우는 비개신교인(16%)이 개신교인(10.5%)에 비해 약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남북문제에 대한 정치/외교적 인식

마지막으로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개신교인(40.9%)과 비개신교인(38.5%) 모두 “대한민국”이라 답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개신교인에 비해 비개신교인이 남북문제의 주도권을 “북한”(1.8%p. 차이)과 “미국”(1.7%p. 차이)이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수가 더 많다는 것이다.



5. 종합 해석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개신교인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10%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에서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고르게 찬성의견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만을 가지고 개신교가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개신교인들의 신앙관의 성향과 통일 의식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드러난다. 본 조사는 신앙의 충실했을 가늠할 수 있는 문항인 “신앙생활 기간”, “예배 참석 횟수” 그리고 “주관적인 신앙도 평가”에 대한 응답과 “남북통일 찬반” 문항에 대한 응답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신앙의 충실했을 높을수록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근본주의적 성향을 묻는 질문(타종교의 진리여부, 타종교의 구원여부, 타종교의 선악여부, 성서무오설, 등)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개신교인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크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과거에 비해 개신교인 신앙의 근본주의적 경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과거 1980년도에 시행했던 유사한 주제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면, 개신교인 신앙의 근본주의적 경향이 현재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성서무오설(축자영감설)의 경우 82%가 개인

영혼구원의 경우 77%가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고 타종교에 대한 태도의 경우 목회자 약 72%, 평신도 약 62%가 배타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번 조사결과(타종교 진리 있다 약 47%, 타종교의 가르침도 선하다 약 58%, 성서무오설 지지 약 51%)에 비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앙의 충성도와 근본주의적 성향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신앙의 충성도가 높을수록 근본주의적 성향이 높으며, 그럴수록 통일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보면, 교회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만큼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에 비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온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근본주의적 성향의 대형교회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개신교인들의 신앙관이 오히려 탈근본주의적, 탈배타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신앙과 삶, 정치/사회관이 분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여전히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으며, 반공주의적 관점에서의 흡수통일을 교인들에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교회의 가르침과 그 영향력이 교인들에게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연령대별 통일 인식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대의 경우 28.8%p., 40대의 경우는 4.7%p.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은 교회로부터 받는 영향력의 차이로 해석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아닌, 어떤 방식의 통일을 지지하느냐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여전히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 북진통일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개신교인들의 정치, 사회적 인식이 점차 교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위의 두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여전히 보수적 교회의 통일관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인이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시 교회의 영향력을 벗어난 소위 진보적 정치관을 가진 개신교인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남북관계의 다양한 요인(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남북관계 개선 대책, 북핵 및 한반도 문제 주도권 등)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 확인되는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예, 북핵해결의 필요성 비개신교인이 2%p. 가량 높은데 반해,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은 개신교인이 1.5%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20대의 경우 비개신교인들에 비해 개신교인들의 통일의지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대가 점차 보수화 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서 젊은 20대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대 개신교인 수가 점점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20대 개신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20대들은 대부분 보수적 혹은 근본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개신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대 청년들은 대부분 근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대형교회에 출

석하고 있고, 민족주의나 반공주의적 가르침에 의해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라 할 수 있는, “이웃사랑”, “화합과 일치”, “민족/형제애” 등이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대 개신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개신교 청년들은 통일에 대한 열망이 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개신교 청년들은 “헬조선”으로 상징되는 한국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에 희망을 잃어가며, ‘현재 내 삶도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화체제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본 조사가 진행된 이후, 한반도에는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들을 계기로 개신교인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1995년 진행했던 기독교인 통일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95년 당시 “꼭 통일을 해야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1.6%에 이르렀다. 이 당시의 상황은 구소련의 폐레스트로이카 정책과 동서독 통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적 탈냉전의 시대였다. 그 당시 통일에 대한 전 국민의 희망은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연령에 관계없이 보다 높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내의 평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교육하는 것이다. 사실 남북분단만이 문제가 아니다. 남한 사회 속에도 갈등과 분열이 심각하다. 이제 교회는 평화를 말하고 실천해야 한다. 통일은 평화를 향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우리 안의 평화가 실현되어야 북과의 평화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혐오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60년 가까이 떨어져 지낸 북한과의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 안의 사랑과 평화를 말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관심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오히려 교회가 그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시대의 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생존과 번영의 길임을 교육하고 선포해야 한다.

한국 개신교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현황

송 진 순(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며

“내 한 목숨 죽어서 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에서 삭제되고 소돔과 고모라 윤운하는 가식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준다면 난 그것으로도 나 죽은 게 아깝지 않아요. 죽은 뒤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은 동성애자다’라고요. ...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받아줄 것입니다”

- 육우당의 유서 중²¹⁾

2003년 4월 25일, 19살의 성소수자 활동가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옆에는 동성애를 배척하는 기독교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사회에 절망하며 쓴 6장의 유서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²²⁾의 후원금으로 남긴 34만원 그리고 묵주가 놓여있었다. 육우당.²³⁾ 그는 게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아들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에 의해 고등학교를 자퇴해야 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 평소 시 쓰기를 좋아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 준 유일한 안식처였던 ‘동성애자인권연대’에서 반전 평화운동과 동성애 차별조항 개정운동을 벌였다. 그가 죽기 얼마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는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동성애자 차별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반대하며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²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으로 망했다.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레 18:22, 20:13, 롬 1:27). 동성애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 것도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많이 전염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유명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커밍아웃하면서 세간에 충격을 주었으나, 그들은 지금 활발하게 연예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동성애자들의 사랑과 삶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많은 대학 캠퍼스에서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이 이어지고, 동성애모임은 대학 공식동아리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다.²⁵⁾ 최근 들어 ‘한국성소수자인권연구회’²⁶⁾와 ‘청소년 성소수자위원회(띵동)’²⁷⁾, ‘성소수자 부모모임’²⁸⁾을 비롯하여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은 세미나, 캠페인과 같은 오프라인 운동과 언론 매체, SNS, 유튜브 같은 온라인 활동을 통해 한편으로는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을 상대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와 동성애 담론들이 정치적 올바름을 실천하며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하나의 트렌드이자 개방적 문화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동성애자들은 지적이고 세련된 이 시대의 친구이자 사회 일원으로 수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15년 전, 육우당이 세상에 절망하고 떠나버렸던 그 때와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졌을까? 불행하게도, 유교적 가부장제도와 오랜 군사 독재 정권의 권위 구조가 뿌리깊이 박혀있는 한국 사회는, 특별히 이러한 토대에서 급격한 성장을 감행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한 치의 변화 없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아니 오히려 근본주의적 성향의 보수 기독교는 동성애 차별과 혐오를 강화해나갔고, 전략적으로 보수 정치권과 보수 시민단체들과 결합하면서 동성애 공포와 배제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교회 내에서 침묵하거나, 자의든 타의든 교회에서 쫓겨 나갔고, 또는 교회에 등을 돌린

24) “국가인권위와 청소년보호위의 동성애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성명서. <http://www.cck.or.kr> (홈페이지 자료실, date: 2003-04-07 참조).

25) “30여 개 대학에 성소수자 동아리, 예비 신입생도 가입 문의,” 중앙 SUNDAY, 2015.12.20. <http://news.joins.com/article/19276170>

26) <https://lgbtstudies.or.kr>

27) LGBTQ Youth Crisis Support Center “DDingDong”, <https://www.ddingdong.kr>

28) Parents and Families of LGBTAIQ People in Korea, <http://www.pflagkorea.org>

21) “동성커플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시선 받고 싶지 않아요,” <오마이뉴스> 2018.4.25. <http://bitly.kr/991Y>,

22) 는 현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로 활동 중이다. <http://lgbtpride.or.kr>

23) 육우당의 본명은 윤현석이다. ‘술, 담배, 수면제, 파운데이션, 녹차, 묵주’가 자신의 여성 친구라고 여기며 필명인 육우당을 사용했다.

채 그들만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 개신교 내의 동성애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먼저 개신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다음으로 최근 각 교단별로 동성애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목회적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한다. 그리고 작년 성소수자를 위한 목회로 이단 시비에 따른 임보라 목사의 사례와 함께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 내의 다른 목소리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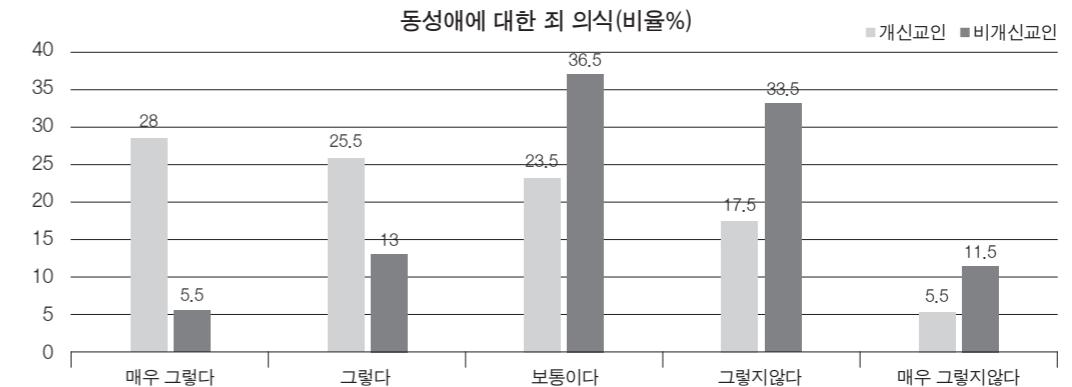
II.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²⁹⁾은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개신교인 800명 : 비개신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신앙관, 개헌, 남북관계 및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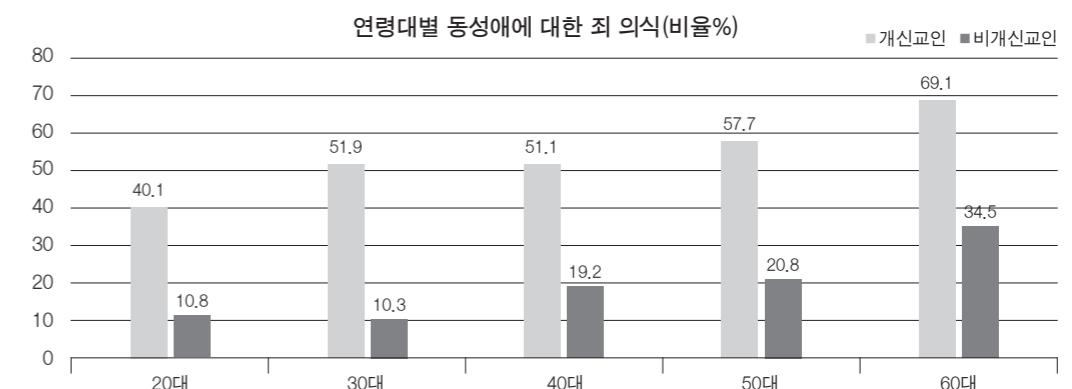
이 조사는 일부 개신교 지도자들의 왜곡된 보수적 신앙관이 일부 보수 정치권력과 결합하여 양산하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실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밝혀내고자 기획되었다. 개헌을 포함하여 남북관계에 관한 인식과 함께 현재 한국 사회에 첨예한 갈등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근본주의적 신앙관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여기서는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간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개신교인이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관과 동성애 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동성애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사이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질문에 개신교인 28%가 ‘매우 그렇다’, 25.5%가 ‘그렇다’의 비율로 답했으나, 비개신교인 5.5%가 ‘매우 그렇다’, 13%가 ‘그렇다’의 비율로 답했다. 즉 ‘동성애의 죄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인(53.5%)은 비개신교인(18.5%)에 비해 35%p 이상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개신교인 23%, 비개신교인 45%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응답함으로써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동성애 인식에 대해 현저하게 다른 의견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인식은 개신교인 내에서도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경향은 20대 40.1%, 30대 51.9%, 40대 51.1%, 50대 57.7%, 60대 69.1%의 수치를 보임으로써 연령대에 따른 인식차를 보였다. 즉 연령대가 높을수록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의 비개신교인과 비교해볼 때 개신교인은 동성애는 죄라는 인식을 매우 크게 갖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여줬는데, 같은 20대라도 개신교인 40.1%가 동성애를 죄로 인식했고 비개신교인 10.8%만이 동성애를 죄로 인식했다(29.3%p 차이). 30대에서는 개신교인 51.9%, 비개신교인 10.3%가 동성애를 죄로 인식함으로써 무려 41.6%p의 차이를 보여줬다. 또한 이것은 젊은 개신교인이 노년의 비개신교인에 비해서 훨씬 왜곡된 방식으로 동성애를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근본주의적 보수 개신교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교회와 교인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왜곡된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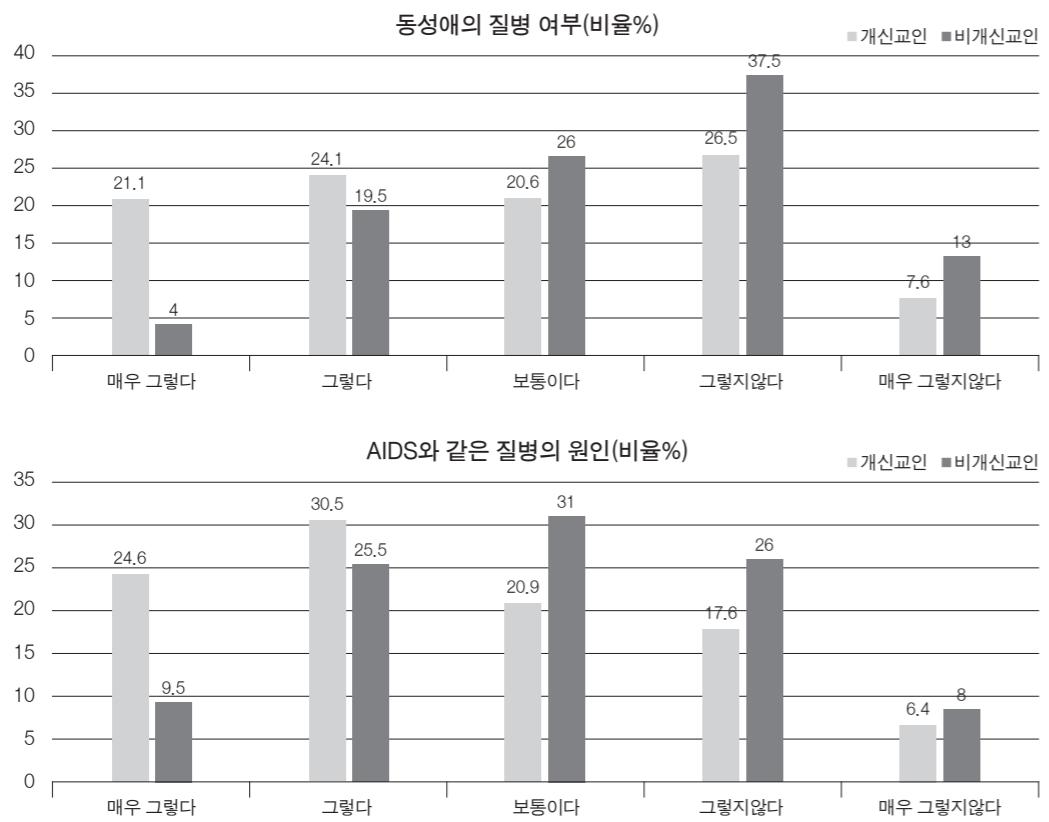


29)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http://jpjc.org>

30)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 통계분석기관: 인데이터랩, 조사방법: 온라인 서베이, 조사기간: 2018년 2월 26일 ~ 3월 7일(10일 간), 표본오차: 신뢰수준 95% 기준 ±3.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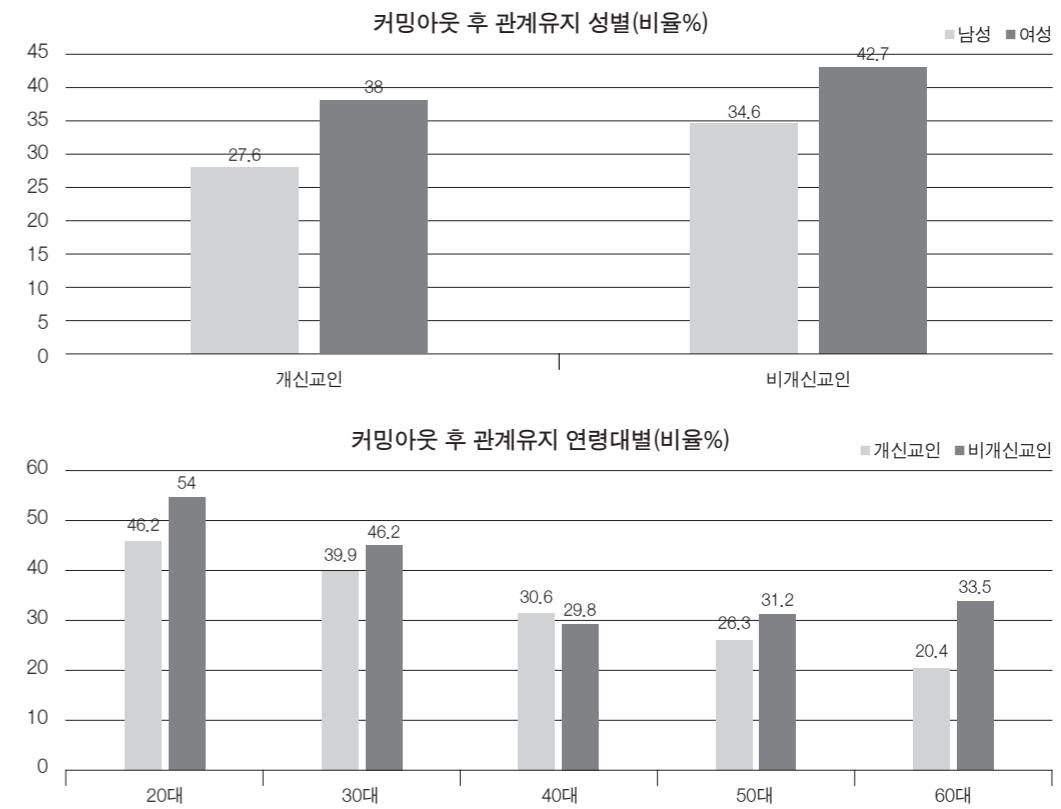
이러한 경향성은 “동성애가 질병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개신교인 45.2% 비개신교인 23.5%가 동성애를 질병으로 인식했다.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개신교인 55.1% 비개신교인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

로 각 문항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는 개신교인일수록 동성애가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성애자에 대한 개신교인의 태도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인식만이 아니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개신교인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는가를 질문했다. “가까운 지인이 커밍아웃하면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신교인 32.7%, 비개신교인 3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앞서 확인한 동성애에 대한 인식만큼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보다 덜 포용적인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개신교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동성애를 죄로 인식할수록 동성애자와의 관계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 동성애에 대한 태도는 개신교 내에서도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달라졌다. 아래 표에 나타나듯이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들 모두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은 충보다는 낮은 충에서 동성애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3.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관계

마지막으로 개신교인의 신앙관과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사했다. 설문에 참여한 개신교인 중 성서무오설을 믿고, 구원은 기독교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0.9%, 45.6%로 나타났다. 이것은 1980년대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근본주의적이고 배타적 신앙관을 가졌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유독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인 경향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 결과 성서무오설을 믿고 개인구원이 사회구원에 우선한다는 근본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개신교인일수록 동성애를 죄로 인식하고 동성애 이슈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그동안 개신교가 보여주었던 동성애 혐오를 잘 설명해준다. 2000년대 이후 개신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조항 삭제에 반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 제정이나 젠더 교육 강화방침을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또한 해마다 열리는 퀴어 축제에서 반대집회를 펼치고, 여성가족부처의 성평등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교회 내 동성애 혐오 캠페인과 의식 교육을 강화했다. 한국 교회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동성애 문제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성서에 위배되는 비기독교적인 행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한 인간을 자연적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³¹⁾ 동성애는 청소년의 성적 타락과 방종을 부추기고 소아성애자를 양상하고 변태 행위를 일삼기 때문에 에이즈의 원인이 된다. 동성애는 육체적이고 정신적 차원에서 개인과 가정을 파괴시키고 나아가 사회와 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행위는 성서적, 윤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기독교와 사회에서 인권 존중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은 성서적으로 옳바른 일이 아니며, 건강한 가족 질서와 공동체 윤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육체적, 영적인 죄인이자 병자인 동성애자를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야 한다.³²⁾

위의 내용은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할 때마다 거론되는 주요 논점들이다. 공식적으로 1974년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제외했고,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 질병분류체계(ICD)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면서 성적 지향과 정신 장애가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에이즈의 원인인 HIV의 감염 경로를 성관계, 수혈이나 혈액 제제를 통한 전파, 모자간 수직 감염 등 다양한 경로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³³⁾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치권과 유관 시민단체와의 연대 포럼을 통해 여전히 동성애는 치유 가능한 질병이며 에이즈 감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이를 명시해야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다. 대표 기독교 언론 매체들은 남성 동성애자의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요 경로라고 연일 보도하면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특히 남성동성애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³⁴⁾ 근본주의 개신교는 시민단체와 함께 동성애대책 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동성애 운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대시키고 있다.³⁵⁾ 그들은 성 소수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동성애자를 에이즈 확

산의 주범이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낙인찍음으로서 종교적, 사회 정치적으로 이중, 삼중의 폭력을 가하고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서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입각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약자와 함께 삶을 나누고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삶에서 구현해냈던 예수의 기본 정신을 저버리는 비기독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III. 한국 개신교 내 동성애 혐오의 현실

종교철학자 김나미 교수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를 ‘개신교 우파(The protestant Right)’로 명명하고, 그들의 동성애 반대 운동(Anti-LGBT movement)³⁶⁾이 대중매체, 학교 그리고 군대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녀는 개신교 우파의 반동성애 운동은 기존의 해제 모니적 남성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군사화와 산업화의 상황에서 구축된 젠더적 위계질서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고 군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남성 권위의 위계질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⁷⁾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한채윤 상임이사는 한국 개신교의 반동성애 운동은 동성애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조장하여 내부 단결과 세력 확장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즉, 반동성애 운동은 교회 세습과 담임목사의 전횡과 횡령, 금권선거 등 비민주적 조직 체계, 여성 목사 안수 불허 등 교회 내 성차별과 성직자들의 성폭력 문제를 무마시키고 보수 개신교계의 내부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적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신교의 다양한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한기총과 한교연) 그리고 심지어 타종교와의 관계에서도 동성애는 ‘공동의 중오’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 반대 운동은 이질적인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교회의 결점을 은폐하며 사회적 지배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 도구가 된다는 것이다.³⁸⁾

그것은 이전에 한국 사회의 주적인 공산주의와 주체사상, 즉 종북, 빨갱이에 대한 혐오가 동성애 혐오로 전이되면서, 보수 기독교는 반동성애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는 독보적인 그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3시대 연구소 김진호 실장은 “한국교회는 마초적이고 권위주의적 체제를 옹호하는 대변자로서 이질적인 것을

31) 한수환, “WCC의 사회윤리 입장에 대한 신학적 비판(동성애 문제를 중심으로),”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11), 330-332.

32)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15.7.27, “한국교회 대표 교단들도 “동성애 반대한다” 입장 천명,” 2017.6.15 <http://www.christiandaily.co.kr>

33) Kor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http://www.cdc.go.kr>

34) “동성애-에이즈 긴밀한 연관성 명시해야,” 2018.3.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1436&code=23111111&cp=nv>, “남성이 압도적인 에이즈, 동성애와 정말 무관한가?,” 2017.8.12.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3097>, CTS 캠페인 “이용희 교수 동성애 STOP: 동성애의 심각성은 에이즈 확산에 있다.” <https://youtu.be/PcGcrvfyfBCQ> 2018.5.3. 김색

35) 2018년 3월 29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윤상현 의원실 주최, 선민네트워크 주관,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협력으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포럼 및 동성애폐해예방국민운동 출범식”을 가졌다.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0993>

36) 사실 Anti-LGBT movement는 성소수자 반대운동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말하는 동성애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등 성적 이분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 소수자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 소수자 중에서도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를 주된 혐오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성적 소수자나 젠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동성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예가 된다.

37) 김나미, “한국 개신교 우파의 젠더화된 동성애 반대 운동,” 『당신들의 신국』(서울: 둘째개, 2017), 263-314.

38) 한채윤,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양성평등에 반대한다』(서울: 교양인, 2016), 154-191. 비온뒤무지개재단(Beyond the Rainbow Foundation)의 홈페이지. <http://www.rainbowfoundation.co.kr>

배제하고 타자에 대한 배타주의를 강화해왔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 내의 지속적인 종북 담론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타종교나 성소수자에 대한 이단시비와 적대적 공격을 가속화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³⁹⁾ 같은 맥락에서 미국, 캐나다의 성심수녀회 수녀이자 신학자 조민아는 한국 기독교가 성소수자를 타자화하고 그들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보수 정치 세력과 결합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제주의적 성격과 폭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⁴⁰⁾ 그러나 반동성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사회 정치적 현상 분석과는 별개로 매주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개신교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철저하게 교단 중심의 교회 정치와 정책 아래 구성된다. 그렇다면 현재 반동성애 운동 이면에 있는 정치적 의도와 폭력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2017년 각 교단 총회의 동성애 정책과 임보라 목사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물론 한국 교회는 2000년대 국가인원위의 차별금지법 조항 삭제를 시작으로 동성애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나 심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7년 사학법 개정과 입법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한 후부터 반동성애운동이 재점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성적 지향에 대한 조항을 종교적 위협으로 간주한 기독교계는 필사적으로 법 제정을 막아내고 법안 발의 자체를 무산 시켰다. 이후 본격적으로 반동성애운동이 전개된 것은 2010년이었다. 이즈음 2013년 WCC의 총회 개최지가 한국의 부산으로 확정되자 한기총은 WCC문제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반대운동에 나섰다.⁴¹⁾ 또한 대중매체에서는 동성애를 그린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결정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 개정 권고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보수 개신교계는 동성애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이에 2013년 3월 13일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한 범종교계와 시민단체들, 한국교회언론회 등 28개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입법을 저지하며 동성애를 위한 모든 활동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면서 교단별 동성애 대책위원회가 신설되었다. 2015년 12월 31일 한기총은 성명을 통해 “동성애에 빠진 소수자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지만 동성애는 죄이며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련의 행위를 거부한다”고 밝히고, 한기총의 주요 계획으로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내세웠다.⁴²⁾ 이와 같은 일련의 반동성애 운동 가운데 이 장에서는 2017년도 각 교단의 정기총회에서 결의한 동성애 대책 법안들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1. 한국 교회 교단별 동성애 대책 현황

2017년 한국 교회 각 교단의 정기 총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였다. 이번 정기 총회는 그동안의 반동성애 운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반동성애 정책들을 새롭게 결정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슈에 대한 총회의 결정과정은 별다른 이견없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한국 교회의 대표 교단인 양대 장로교단은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관련 강경책을 내놓았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GAPCK)는 헌법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옹호자들은 교단 산하 신학교 입학이 전면 금지된다.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가 교단 산하 7개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동성애 신학 지지자가 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토록 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인정하는 중도 성향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PCK) 역시 동성애자와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자는 교단 산하 신학교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통합 총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제26조 [직원 선택] 12항”에서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 옹호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그들은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향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명시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총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는 교단 산하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하도록 했다. 동성애 저지·옹호의 세부 사례로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 옹호 발언이나 설교 강연 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예장 합신은 또 산하 교회에 매주 ‘동성애 바로알기’ 정보를 제공하며 노회 및 지교회에 동성애 강의 및 홍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는 산하 신학교인 고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동성애 관련 신학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1년간 연구했으며 이번 총회에서 동성애·동성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The Presbyterian Church General Assembly of Korea)는 동성애 반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 신설을 반대하며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The Korea Baptist Convention)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결의’를 통과시키고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92조 6항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동성애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에서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 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안이 기각됐다. 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⁴³⁾

2017년 총회에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The Korean Methodist Church)도 2016년 국내 개신교계

39) “성형사회 깊은 교회, 전체주의 옹호 타자 적대시,” 2015.7.21,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31>.

40) 조민아, “그대들의 색(色)과 계(計),” 『당신들의 신국』(서울: 돌베개, 2017), 315-352.

41) 한기총은 WCC의 에큐메니컬한 정신과 사회구원에 대한 관심이 기독론이 빠진 호도된 구원관을 저지하며, 한국 교회를 봉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내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인 구원이 약하고, 신론을 와해시킬 수 있으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성서관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WCC는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참조.

42) “감리교, 동성애 찬성·동조 목회자 출교 조항 신설,” <http://news.donga.com/3/all/20160125/76105490/1#csidx8692ac078ed4316a0112cc3d1ed3693>

에선 처음으로 동성애와 관련한 정계 조항을 신설했다. 목회자가 동성애를 찬성, 동조했을 경우 정직 면직은 물론이고 출교(교적 삭제, 교회 출석 금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⁴⁴⁾

일부 교계에서는 교회 내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돌봄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회심 등의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은 총회의 헌법 개정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각 교단의 총회결정은 현재 범교계 차원에서 진행 중인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 교회의 동성애 혐오를 더 강화하리라고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교회 대내외적인 대립과 분열은 심화되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계토화되는 것은 명약관화해지는 것이다.

2. 임보라 목사의 이단 조사 사례

2017년 7월 20일, 한국 교회 8개 교단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들은 임보라 목사(서울섬돌향린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에 대한 이단성을 조사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 교단의 여성 목사의 이단 시비 조사를 진행했다:

임목사는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오도록 하기 보다는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고, <퀴어성서주석> 번역 활동과 연구를 통해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써 다원주의적 구원론을 주장했다. 이는 동성결혼이라는 가족제도를 정당화하고 잘못된 가족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일부다처제나 근친상간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

그들은 임목사가 잘못된 신관과 구원론을 전개하고 잘못된 가족제도를 옹호하면서 정통교회와 신학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퀴어 성서 주석> 번역, 성소수자 인권 증진 운동을 문제 삼고 각 교단 총회에서 임목사의 이단성을 확정짓겠다고 결정했다.⁴⁵⁾ 8개 교단에서는 임 목사가 소속된 향린교회에 그녀의 파문을 요구했고 친교교류금지 결정까지 내렸다. 실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측은 여성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보라 목사를 임보라씨로 부르며, 그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녀의 활동과 서적에 대한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하기로 동의했다.⁴⁶⁾ 이에 대해 의식

있는 중도 혹은 진보 성향의 교계와 신학계에서는 임보라 목사의 이단성 조사를 비판하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첫째 임 목사가 속한 향린교회에서 “성소수자 관련 목회에 대해 이단 시비를 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토론과 연구를 통해 의논할 일”이라는 입장장을 내놨다. 둘째, 임 목사가 소속된 한국기독교장로회 여교역자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임 목사는 가정과 교회, 사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힘써온 여성 목회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신앙 양심의 자유, 약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이단성 시비 중단을 촉구했다. 셋째, 캐나다 연합교회는 임 목사에 대한 지지 서한을 보냈다. 넷째, 이 사안에 대해 신학자들과 교단 목회자들은 “동성애는 이단성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의 가치판단과 윤리의 문제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게 아니다. 동성애 이슈를 이단 범주에 넣은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헌신한 여성 목회자를 비성경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마녀사냥이다.”라며 보수 교단의 이단 조사 및 결정 사항에 항의했다. 마지막으로 임목사가 소속된 기장 교단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교단 목사라면 “헌법 정치 제4장(목사) 제19조(목사의 직무) 2항에 의거, ‘다른 교파, 교회, 교회 연합회, 기타 특수한 경우에 요청을 받으면 자기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한 성례를 집행하거나 참례’를 보장 받기에 교단 목사의 목회적 활동은 헌법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본 교단 목회자들의 다양한 사역을 존중하며, 소수자를 위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논쟁으로 비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정작 임보라 목사⁴⁷⁾는 이단으로 지목되며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혼들리지 않고 <퀴어 성서 주석>을 통해 성소수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인권보호와 지지를 위한 목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한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다양성과 포용성이다. 성소수자뿐 아니라 여성, 이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고 소수자들을 포용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린공동체가 지향하는 바는 정의와 평화의 실천이다. 목회자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음료수 마시고 하는 거다.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다”라고 하면서 성소수자 외에도 한국 사회의 (강정마을·세월호·성주 등) 사회적 약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⁴⁸⁾ 임보라 목사의 이단 시비를 통해 우리는 ‘목회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43) “[키워드로 보는 2017 교단총회 결산] 동성애 활동에 철퇴… 강력한 반대 결의 잇달아,”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823133&code=23111111&cp=nv>

44) “감리교, 동성애 찬성·동조 목회자 출교 조항 신설,” <http://news.donga.com/3/all/20160125/76105490/1#csidx56cbeaa1a769037be3b112089ae4d93>

45) “임보라 목사, 잘못된 신론 구원론 갖고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30280&code=61221111&cp=du>

4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0>,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은 103회 총회에서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에 ‘이단성’이 있다고 결의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예장백석대신·이주훈 총회장)은 임보라 목사와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다.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887>

47)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대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향린교회와 연이 닿았다. 2008년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 찬성’을 발언한 뒤, 성소수자·여성 인권 등을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성소수자를 품는 교회를 이끌게 됐다. 5년 전 79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2017년 말 15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다.

48) “동성애자 괴물로 만든 목사들, 한 번이라도 만나 봤나,”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093>, “신의 사랑엔 ‘이성애 중심’ 없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15024025&wlog_tag3=naver#csidx1c45ba5580d0009765011cfcafa759

IV. 나오며 - 한국 교회의 온전한 포용을 위한 담론의 활성화를 바라며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 개신교인 비율은 967만 6천 명(19.7%)으로 불교(761만 명, 15.5%)와 천주교(389만 명, 7.9%)를 제치고 종교인 비율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인구 오천만 명 중 천만 명이 개신교인이다. 지나가는 사람 대여섯 명 중 한 명이 개신교인이라는 말이다. 매 주일 같은 시간,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젠더 이분법에 근거한 가부장체제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강화하고 여성,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고, 후기 자본주의의 타락한 금권정치를 답습하고 있다. 하여 교회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자기 모순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채 사회적 구원과 책임은커녕 개인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단은 총회의 성명서와 입장문 말미에는 늘 다음과 같은 문구로 결론을 맺는다.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수 교단들의 폭력적이고 권위적인 의사결정방식과 다양성과 포용성을 잊어버린 획일화되고 전체주의적 행동 방식, 그리고 동성애를 비롯한 소수자 약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보수 교회가 주장하는 동성애 혐오와 반동성애 운동은 성서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신앙심이나 건강한 공동체 확립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분열과 모순 그리고 사회적 괴리를 봉합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동성애 정책에 대해 여성신학회와 여신학자협의회를 비롯하여 각 교단 신학생들과 신학자들, 대한성공회, 소수자 모임들을 비롯한 각 단체는 서로 연대하여 성명서를 내며 활동하고 있다. “동성애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자 예수의 친구이고 교회의 동반자입니다. 이 시대 한국 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폭력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생명창조 역사의 파트너로 초대받았습니다.” 지금도 성소수자들을 위한 목회자들과 교회의 연대 활동은 보수 기독교의 폭력적이고 조직적 물량 공세와 저지운동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고 이 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임보라 목사가 소속된 향린 공동체의 교인이 들었던 포스터의 문구는 이 시대 거룩한 공교회로서 사랑과 정의의 예언자적 소리를 잊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반성하게 한다. “차별은 하느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혐오로 담합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결론을 대신하며: 2019년의 개신교에게 묻는다

근본주의 신앙, 개헌, 통일, 동성애에 대한 물음을 통해 통계분석과 신학 제분야 해석과의 융합을 시도한 것에서 본 연구의 독특함을 찾을 수 있다. 종교철학, 기독교윤리학, 조직신학, 성서 및 여성신학이 통계분석의 냉정한 합의를 뜨거운 신학적 해석을 통해 재주조합으로써 통계분석이 열어주는 양적 지평을 질적 지평과 교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본 연구가 보여준 것은, “개신교 주류 담론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주류 개신교인들의 정서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가?” 하는 질문을 발본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2018년의 개신교인들은 근본주의적 성향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타종교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용의 정신이 묻어나고, 자신의 종교를 배타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독선적 조급함에 균열을 일으킬 만한 성찰적 태도가 여유를 더하기 시작했다. 한편, 개신교의 안과 밖을 막론하고, 개신교의 주류 담론으로 평가되어 온 근본주의적 신앙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이 한국사회 정치 지형도에 무시하지 못할 영향을 끼치고 있으리란 추측은 거의 상식이었다. 이를 의식하듯 개신교 근본주의와 정치적 보수주의의 입장을 신앙의 이름으로 대변하는 일부 대형교회의 목사들은 자신 있게 목소리를 높여왔고, 이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개신교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메아리쳤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통계분석에 의하면, 2018년의 개신교인들은 정치적 보수주의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헌과 통일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치적 보수주의와는 다른 결을 따라 표현되고 있는 한국인 대다수의 입장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근본주의적 신앙은 정치적 보수주의와 맥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근본주의적 신앙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본 통계분석은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관련성이 2018년 개신교인들의 일반적인 태도를 대표하는 시금석은 되지 못한다는 점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에 기대어, 개헌이 주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옮기고 환대의 정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조에 힘을 실어주는 용기와, 한국교회는 갈등과 분열, 혐오를 조장하는 독선에서 벗어나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자신감이 본 연구자들의 문장 사이사이에 깃들어 있다.

하지만,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2018년의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과 비교하여 보여준 상대적인 배타성, 그리고 2, 30대 개신교인들이 신앙에 있어서나 정치에 있어서나 한층 보수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진단들 등은 새로운 문제의식과 향후 과제를 떠올리게 한다. 다양한 방향에서 분출하고 있는 소수자 인권 문제가 한국 개신교의 정체성을 판가름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박탈당했다는 상실감에 처한 2, 30대가 개신교의 유타리 안에 남겨졌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의 근본주의 담론을 답습하거나 고쳐서 사용하는 일일 수 있다. 세대적 특성과 새로운 상황이 개신교 근본주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아니면 탈 근본주의의 활로를 모색할 핵심적인 틈새가 될 것인지를 전망하는 일이 새로운 과제로 남아 있다. 여기에 생태환경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2018년도에는 담지 못한 질문들이 차고 넘친다. 이는 오롯이 2019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2019년의 개신교에게 묻는다. 지금,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03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설문 문항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관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며,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설문지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박재형 책임연구원

Tel. 02-312-3317 / cisjd@chol.com

I. 기본사항

SQ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prog:출생연도 기입] [Prog: Quota] [단수 선택]

(만 세) →(20세 미만은 조사 중단)

- ① 만 20세 미만 →(조사 종료) ② 만20~29세 ③ 만30~39세 ④ 만40~49세 ⑤ 만50~59세
- ⑥ 만 60~69세 ⑦ 70세 이상 →(조사 종료)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Prog: Quota] [단수 선택]

- ① 남
- ② 여

SQ3.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prog: 시도 체크 후 시군구 체크(지도 제시)] [1개 선택] [Prog: Quota] [단수 선택]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세종
- ⑨ 경기
- ⑩ 강원
- ⑪ 충북
- ⑫ 충남
- ⑬ 전북
- ⑭ 전남
- ⑮ 경북
- ⑯ 경남
- ⑰ 제주

S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선택]

- ① 나는 개신교인이다
- ② 나는 개신교인이 아니다 →(문10으로 이동)

1. 신앙생활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단수 선택]

- ① 1년 미만
- ② 1~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20년 미만
- ⑤ 20년 이상

2. 공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일주일에 3회 이상
- ② 일주일에 1~2회
- ③ 한 달에 1~2회
- ④ 1년에 3~5회
- ⑤ 1년에 1~2회

3.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II. 신앙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6.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7. 성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8.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9. 교회와 신앙인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III. 개헌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다음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을 골라주세요. [단수 선택]

- ① 진보
- ② 중도 진보
- ③ 중도 보수
- ④ 보수
- ⑤ 없음
- ⑥ 모르겠다

11.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12. 어디까지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통치구조만 고쳐야 한다(원 포인트 개헌)
- ② 통치구조 외에 기본권 등 다른 조항들도 함께 고쳐야 한다(포괄개헌)
- ③ 관심 없다
- ④ 모르겠다
- ⑤ 개헌에 반대한다
- ⑥ 기타 ()

[prog: 문11=4,5 경우 문12에 5번 자동선택 후 skip, 문11=1,2,3 경우 5번 보기 미 제시]

13.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무엇인가요? [단수 선택]

- 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 ② 대통령 4년 중임제
- ③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내정을 책임지는 분권형 대통령제
- ④ 의원내각제
-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14.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제도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선택]

- ① 한 선거구에서 2~3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 ②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하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 ③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추천할 수 있게 해, 지역구에서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소선거구제 하에서의 석패율제
- ④ 현행 유지
- ⑤ 모르겠다
- ⑥ 기타()

15. 개헌에 찬성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수 선택]

(문11에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자는 문16으로 이동)

- ①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
- ② 6.13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 사이
- ③ 2020년 총선과 동시에 실시
- ④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사이
- ⑤ 기타 ()
- ⑥ 모르겠다

[prog: 문11=4,5 경우 문15 skip]

IV. 남북관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남북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문17로 이동)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로 이동)

17.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북한의 핵개발
- ② 남한의 친북세력
- ③ 미국의 대북정책
- ④ 일본 및 중국의 영향력 확장 시도
- ⑤ 정부의 무능력
- ⑥ 모름/무응답

18.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북핵 해결
- ② 대북지원
- ③ 경제/문화/스포츠 교류
- ④ 국가보안법 폐지
- ⑤ 주변국(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 ⑥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 ⑦ 모름/무응답

19.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북한
- ② 대한민국
- ③ 미국
- ④ 일본, 중국 등 주변국
- ⑤ UN 등 국제사회
- ⑥ 모름/무응답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 동성애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1.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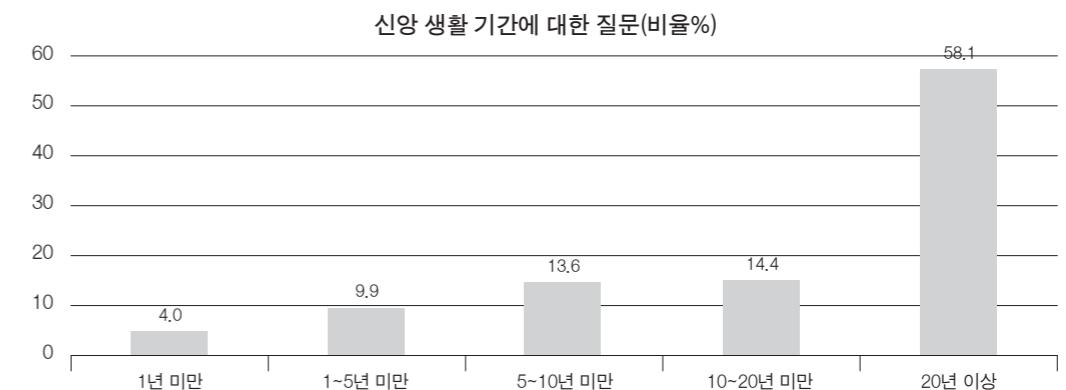
22.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 ① 매우 그렇다
- ② 그렇다
- ③ 보통이다
- ④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지 않다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

I. 기본사항

1. 신앙생활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항 1.

	표본 수 (명)	1년 미만 %	1~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20년 미만 %	20년 이상 %
전 체/평 균	800	4.0	9.9	13.6	14.4	58.1
만 20~29세	147	6.8	13.6	19.0	18.4	42.2
만 30~39세	158	3.2	7.0	17.1	11.4	61.4
만 40~49세	190	3.7	9.5	11.6	12.6	62.6
만 50~59세	182	3.3	9.9	10.4	15.9	60.4
만 60~69세	123	3.3	9.8	10.6	13.8	62.6

표 1.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기간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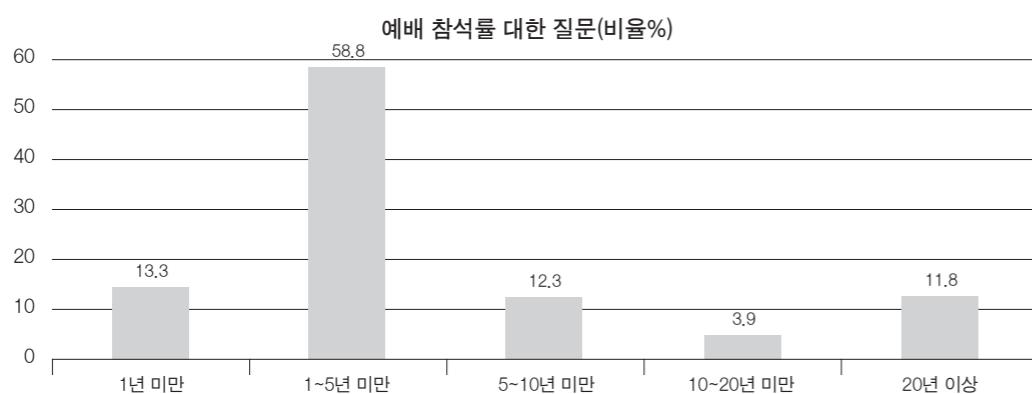
	표본 수 (명)	1년 미만 %	1~5년 미만 %	5~10년 미만 %	10~20년 미만 %	20년 이상 %
전 체/평 균	800	4.0	9.9	13.6	14.4	58.1
여성	395	2.8	9.6	13.9	13.9	59.7
남성	405	5.2	10.1	13.3	14.8	56.5

표 2.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기간 분포(성별)

	표본 수	1년 미만	1~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명)	%	%	%	%	%
전체/평균	800	4.0	9.9	13.6	14.4	58.1
서울	159	3.1	6.9	13.8	13.8	62.3
부산	55	7.3	10.9	16.4	7.3	58.2
대구	39	2.6	12.8	15.4	12.8	56.4
인천	47	4.3	8.5	6.4	6.4	74.5
광주	21	0.0	19.0	14.3	23.8	42.9
대전	24	0.0	16.7	8.3	20.8	54.2
울산	18	16.7	11.1	5.6	16.7	50.0
세종	200	0.5	10.0	17.0	16.0	56.5
경기	24	0.0	8.3	8.3	29.2	54.2
강원	24	8.3	16.7	4.2	20.8	50.0
충북	31	9.7	3.2	16.1	12.9	58.1
충남	25	20.0	12.0	4.0	20.0	44.0
전북	27	0.0	3.7	3.7	22.2	70.4
전남	41	2.4	9.8	19.5	9.8	58.5
경북	51	5.9	9.8	7.8	19.6	56.9
경남	10	0.0	20.0	10.0	20.0	50.0
제주	4	0.0	25.0	25.0	0.0	50.0

표3. 한국 개신교인의 신앙생활 기간 분포(지역별)

2. 공식적인 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문항 2.

	표본 수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연 3~5회	연 1~2회
	(명)	%	%	%	%	%
전체/평균	800	13.3	58.8	12.3	3.9	11.8
만 20~29세	147	8.8	61.2	13.6	2.0	14.3
만 30~39세	158	9.5	65.8	10.8	3.2	10.8
만 40~49세	190	10.5	58.4	14.2	4.7	12.1
만 50~59세	182	17.6	56.6	12.1	4.9	8.8
만 60~69세	123	22.0	50.4	9.8	4.1	13.8

표 4. 한국 개신교인의 예배 참석 횟수 분포(연령별)

	표본 수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연 3~5회	연 1~2회
	(명)	%	%	%	%	%
전체/평균	800	13.3	58.8	12.3	3.9	11.8
여성	395	14.4	57.5	11.4	4.1	12.7
남성	405	12.3	60.0	13.1	3.7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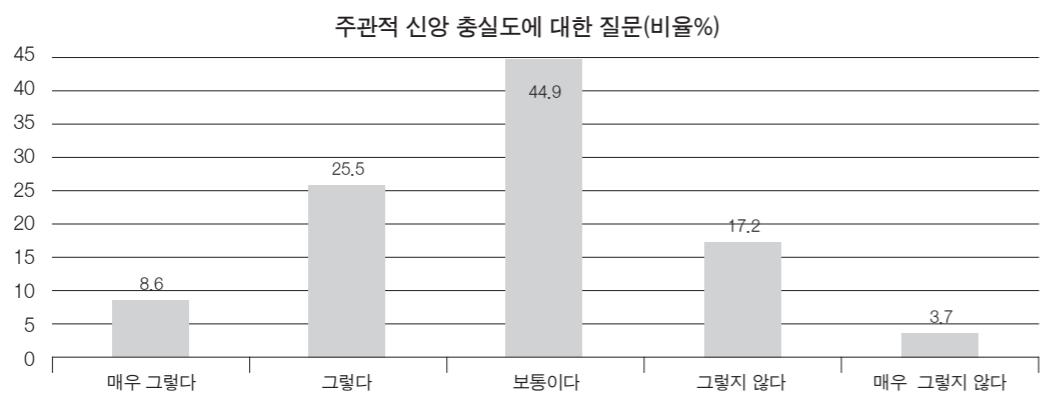
표 5. 한국 개신교인의 예배 참석 횟수 분포(성별)

	표본 수	주 3회 이상	주 1~2회	월 1~2회	연 3~5회	연 1~2회
	(명)	%	%	%	%	%
전체/평균	800	13.3	58.8	12.3	3.9	11.8
서울	159	11.9	60.4	7.5	6.9	13.2
부산	55	12.7	63.6	12.7	3.6	7.3
대구	39	25.6	56.4	7.7	7.7	2.6
인천	47	2.1	68.1	10.6	2.1	17.0
광주	21	9.5	71.4	14.3	0.0	4.8
대전	24	4.2	66.7	16.7	4.2	8.3
울산	18	27.8	33.3	11.1	5.6	22.2
세종	200	9.5	61.0	14.5	2.5	12.5
경기	24	16.7	41.7	8.3	16.7	16.7
강원	24	12.5	45.8	33.3	4.2	4.2

충북	31	25.8	58.1	6.5	0.0	9.7
충남	25	4.0	64.0	16.0	4.0	12.0
전북	27	29.6	40.7	18.5	0.0	11.1
전남	41	22.0	58.5	12.2	0.0	7.3
경북	51	17.6	56.9	9.8	2.0	13.7
경남	10	10.0	40.0	20.0	0.0	30.0
제주	4	0.0	75.0	0.0	0.0	25.0

표 6. 한국 개신교인의 예배 참석 횟수 분포(지역별)

3. 자신의 신앙심이 깊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항 3.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 균	800	8.6	25.5	44.9	17.2	3.7
만 20~29세	147	6.1	27.2	48.3	15.6	2.7
만 30~39세	158	8.9	29.7	43.0	14.6	3.8
만 40~49세	190	5.3	24.7	46.8	19.5	3.7
만 50~59세	182	13.2	20.3	44.0	18.1	4.4
만 60~69세	123	22.0	50.4	9.8	4.1	13.8

표 7. 한국 개신교인의 주관적 신앙 총실도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 균	800	8.6	25.5	44.9	17.2	3.7
여성	395	9.1	26.1	43.5	17.5	3.8
남성	405	8.1	24.9	46.2	17.0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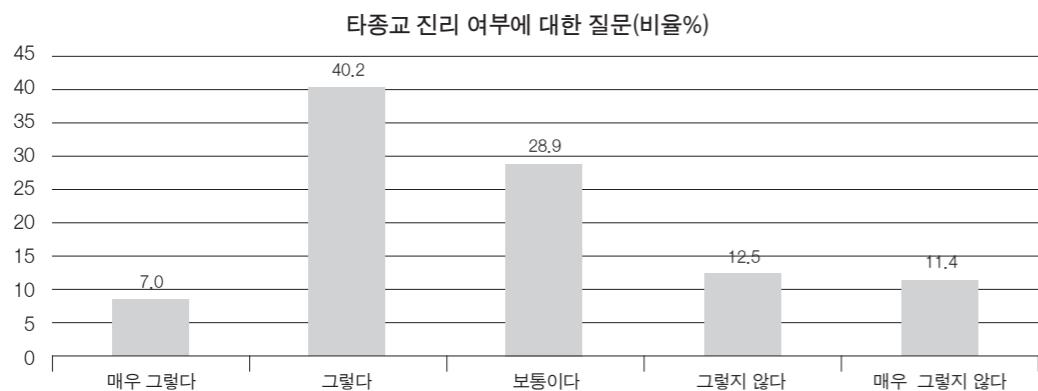
표 8. 한국 개신교인의 예배 참석 횟수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 균	800	8.6	25.5	44.9	17.2	3.7
서울	159	8.8	26.4	45.9	15.1	3.8
부산	55	5.5	29.1	45.5	10.9	9.1
대구	39	7.7	23.1	48.7	20.5	0.0
인천	47	14.9	27.7	36.2	19.1	2.1
광주	21	0.0	38.1	52.4	9.5	0.0
대전	24	4.2	16.7	45.8	20.8	12.5
울산	18	5.6	33.3	50.0	5.6	5.6
세종	200	9.5	25.5	43.5	17.0	4.5
경기	24	4.2	20.8	50.0	20.8	4.2
강원	24	4.2	20.8	50.0	25.0	0.0
충북	31	9.7	38.7	35.5	12.9	3.2
충남	25	8.0	8.0	60.0	24.0	0.0
전북	27	7.4	18.5	51.9	22.2	0.0
전남	41	9.8	29.3	41.5	14.5	4.9
경북	51	15.7	25.5	39.2	19.6	0.0
경남	10	0.0	10.0	30.0	50.0	10.0
제주	4	0.0	25.0	75.0	25.0	0.0

표 9. 한국 개신교인의 주관적 신앙 총실도 분포(지역별)

II. 신앙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4.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항 4.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7.0	40.2	28.9	12.5	11.4
만 20~29세	147	5.4	40.1	32.0	10.9	11.6
만 30~39세	158	5.1	33.5	34.8	16.5	10.1
만 40~49세	190	6.8	43.7	28.4	11.1	10.0
만 50~59세	182	8.8	40.7	26.4	9.3	14.8
만 60~69세	123	8.9	43.1	22.0	16.3	9.8

표 10.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1(타종교 진리인정)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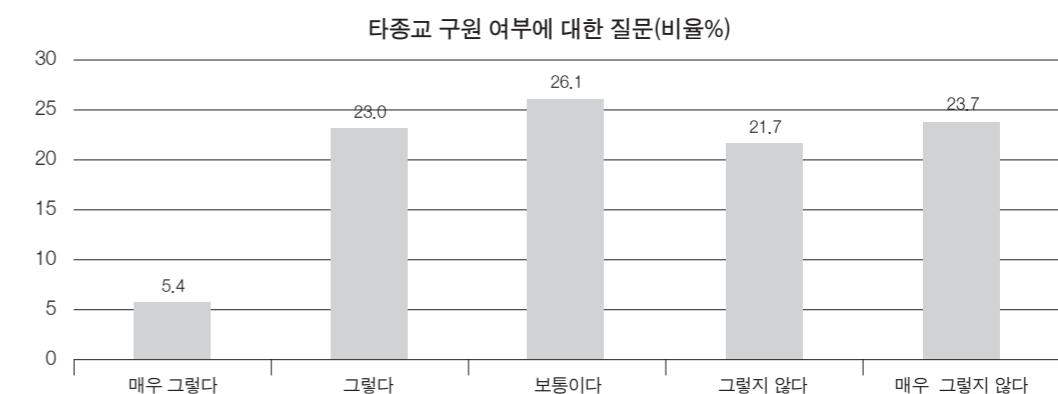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7.0	40.2	28.9	12.5	11.4
서울	159	8.8	42.8	26.4	10.1	11.9
부산	55	5.4	36.4	29.1	9.1	20.0
대구	39	7.7	41.0	33.3	7.7	10.3
인천	47	8.5	31.9	27.7	23.4	8.5
광주	21	0.0	52.4	23.8	14.3	9.5
대전	24	12.5	45.8	25.0	8.3	8.3
울산	18	5.6	44.4	33.3	5.6	11.1
세종	200	8.0	38.5	32.5	12.0	9.0
경기	24	4.2	50.0	29.2	8.3	8.3
강원	24	4.2	58.3	25.0	4.2	8.3
충북	31	9.7	41.9	35.5	12.9	0.0
충남	25	16.0	28.0	36.0	4.0	16.0
전북	27	0.0	40.8	18.5	29.6	11.1
전남	41	2.5	26.8	26.8	24.4	19.5
경북	51	3.9	39.2	25.5	13.7	17.7
경남	10	0.0	60.0	20.0	20.0	0.0
제주	4	0.0	50.0	25.0	0.0	25.0

표12.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1(타종교 진리인정) 분포(지역별)

5.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7.0	40.2	28.9	12.5	11.4
여성	395	7.1	37.2	28.4	13.9	13.4
남성	405	6.9	43.2	29.4	11.1	9.4

표 11.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1(타종교 진리인정) 분포(성별)



문항 5.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전 체/평 균	800	5.4	23.0	26.1	21.7	23.7
만 20~29세	147	6.8	27.2	25.2	21.1	19.7
만 30~39세	158	3.8	16.4	32.3	22.2	25.3
만 40~49세	190	4.2	22.6	25.3	22.1	25.8
만 50~59세	182	7.2	25.3	22.5	19.2	25.8
만 60~69세	123	4.9	23.6	26.0	25.2	20.3

표 13.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2(타종교 구원인정)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전 체/평 균	800	5.4	23.0	26.1	21.7	23.7
여성	395	5.3	20.8	23.3	22.5	28.1
남성	405	5.4	25.2	28.9	21.0	19.5

표 14.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2(타종교 구원인정) 분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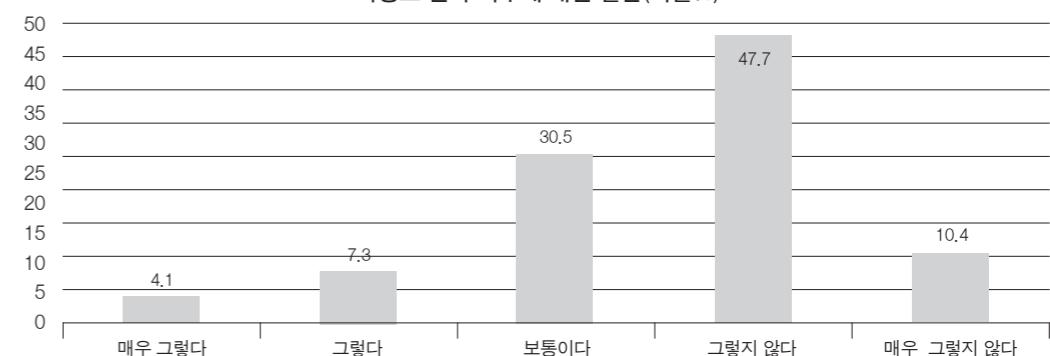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전 체/평 균	800	5.4	23.0	26.1	21.7	23.7
서울	159	6.9	25.8	23.3	20.7	23.3
부산	55	7.3	20.0	25.4	16.4	30.9
대구	39	5.1	23.1	25.6	25.6	20.5
인천	47	6.4	21.3	27.6	23.4	21.3
광주	21	0.0	42.9	14.3	14.3	28.5
대전	24	4.1	37.5	25.0	16.7	16.7
울산	18	11.1	11.1	27.8	33.3	16.7
세종	200	4.5	24.0	27.5	21.5	22.5
경기	24	0.0	37.5	33.3	8.3	20.8
강원	24	0.0	25.0	33.3	20.8	20.8

충북	31	6.4	16.1	22.6	32.3	22.6
충남	25	12.0	16.0	32.0	12.0	28.0
전북	27	7.4	14.8	22.2	22.2	33.3
전남	41	4.9	9.8	26.8	34.1	24.4
경북	51	3.9	19.6	27.5	21.5	27.5
경남	10	0.0	20.0	40.0	20.0	20.0
제주	4	0.0	25.0	0.0	50.0	25.0

표 15.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2(타종교 구원인정) 분포(지역별)

6. 다른 종교나 가르침은 악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타종교 선악 여부에 대한 질문(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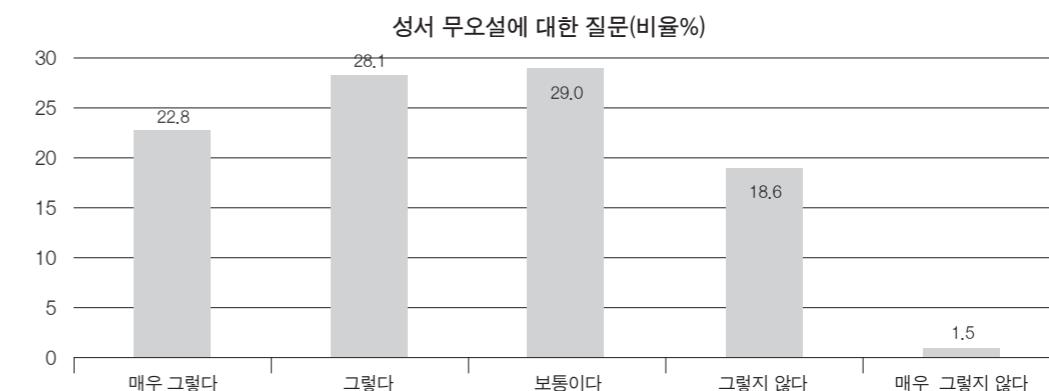


문항 6.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전 체/평 균	800	4.1	7.3	30.5	47.7	10.4
만 20~29세	147	4.1	8.2	30.6	46.9	10.2
만 30~39세	158	1.9	7.6	31.6	47.5	11.4
만 40~49세	190	3.7	4.7	35.3	46.3	10.0
만 50~59세	182	6.6	7.7	26.4	48.3	11.0
만 60~69세	123	4.1	8.9	28.5	49.6	8.9

표 16.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3(타종교를 악으로 보는 경향) 분포(연령별)

7. 성서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항 7.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4.1	7.3	30.5	47.7	10.4
여성	395	4.3	7.1	27.1	51.4	10.1
남성	405	3.9	7.4	34.1	44.0	10.6

표 17.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3(타종교를 악으로 보는 경향)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4.1	7.3	30.5	47.7	10.4
서울	159	5.0	9.4	29.6	47.2	8.8
부산	55	1.8	5.4	27.3	58.2	7.3
대구	39	2.6	5.1	41.0	41.0	10.3
인천	47	4.3	10.6	29.8	38.3	17.0
광주	21	0.0	4.8	38.1	47.6	9.5
대전	24	4.2	12.5	33.3	33.3	16.7
울산	18	5.6	22.2	33.3	38.9	0.0
세종	200	4.0	7.0	25.0	51.5	12.5
경기	24	0.0	8.3	25.0	54.2	12.5
강원	24	0.0	0.0	29.2	50.0	20.8
충북	31	3.2	3.2	41.9	45.2	6.5
충남	25	4.0	0.0	36.0	44.0	16.0
전북	27	7.4	0.0	40.7	48.2	3.7
전남	41	9.8	9.8	34.1	41.4	4.9
경북	51	3.9	7.8	33.3	49.0	5.9
경남	10	0.0	0.0	30.0	50.0	20.0
제주	4	25.0	0.0	25.0	50.0	0.0

표 18.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3(타종교를 악으로 보는 경향) 분포(지역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2.8	28.1	29.0	18.6	1.5
만 20~29세	147	18.4	28.6	29.9	20.4	2.7
만 30~39세	158	22.8	24.1	33.5	17.7	1.9
만 40~49세	190	21.1	29.5	26.8	22.1	0.5
만 50~59세	182	31.3	23.6	23.1	20.3	1.6
만 60~69세	123	17.9	37.4	34.1	9.8	0.8

표 19.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4(성서무오설 지지 성향)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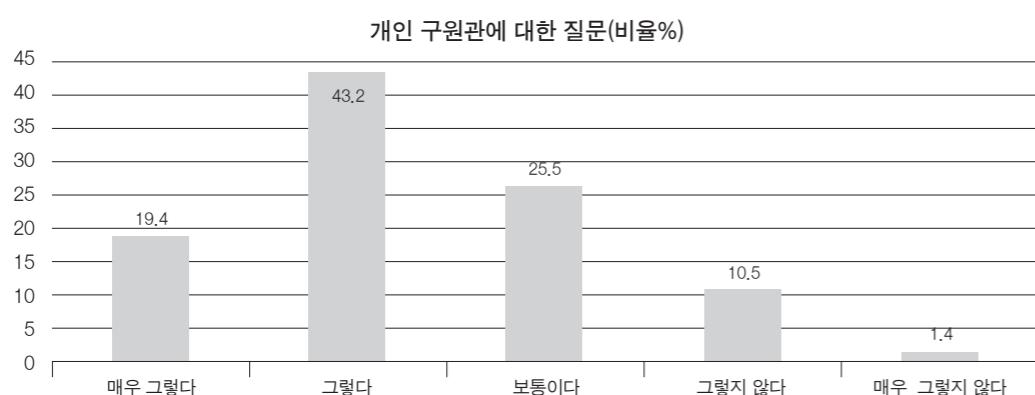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2.8	28.1	29.0	18.6	1.5
여성	395	25.6	26.3	26.3	21.0	0.8
남성	405	20.0	29.9	31.6	16.3	2.2

표 20.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4(성서무오설 지지 성향)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22.8	28.1	29.0	18.6	1.5
서울	159	20.8	29.5	31.4	17.6	0.6
부산	55	25.4	23.6	25.5	18.2	7.3
대구	39	23.1	25.6	30.8	20.5	0.0
인천	47	23.4	27.7	21.3	23.4	4.2
광주	21	33.3	23.8	19.1	23.8	0.0
대전	24	12.5	37.5	33.3	16.7	0.0
울산	18	27.8	27.8	27.8	16.6	0.0
세종	200	20.5	29.5	32.0	16.5	1.5
경기	24	16.7	16.7	37.5	25.0	4.1
강원	24	20.8	25.0	29.2	25.0	0.0
충북	31	16.1	35.5	29.0	16.1	3.3
충남	25	32.0	20.0	16.0	32.0	0.0
전북	27	29.6	29.6	33.3	7.4	0.0
전남	41	26.8	31.7	31.7	9.8	0.0
경북	51	31.3	25.5	21.6	21.6	0.0
경남	10	10.0	40.0	20.0	30.0	0.0
제주	4	25.0	0.0	25.0	50.0	0.0

표21.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4(성서무오설 지지 성향) 분포(지역별)

8. '구원은 개인의 영혼 구원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항 8.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9.4	43.2	25.5	10.5	1.4
만 20~29세	147	17.7	35.4	34.0	8.8	4.1
만 30~39세	158	15.8	44.3	24.7	14.6	0.6
만 40~49세	190	18.4	43.7	24.7	12.6	0.5
만 50~59세	182	25.3	41.2	23.6	8.8	1.1
만 60~69세	123	18.7	53.7	20.3	6.5	0.8

표 22.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5(개인구원관)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9.4	43.2	25.5	10.5	1.4
여성	395	21.3	42.0	23.5	12.2	1.0
남성	405	17.5	44.4	27.4	8.9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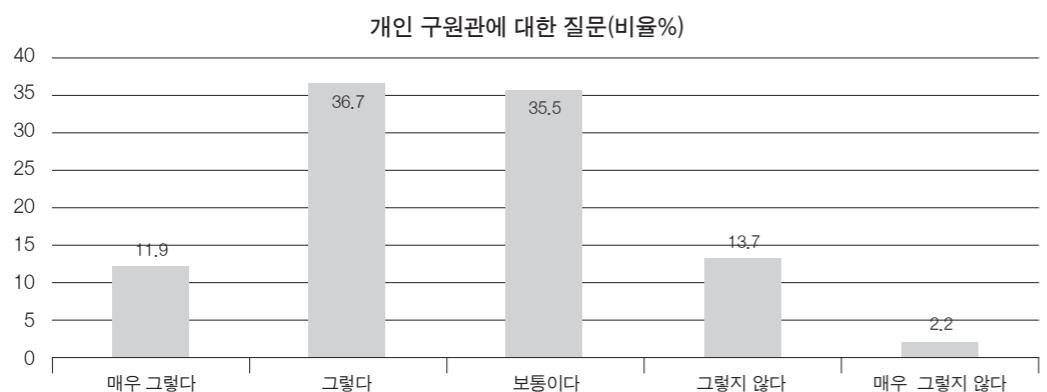
표 23.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5(개인구원관)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9.4	43.2	25.5	10.5	1.4
서울	159	18.9	46.5	25.2	7.5	1.9
부산	55	23.6	40.0	27.3	7.3	1.8
대구	39	15.4	46.2	25.6	12.8	0.0
인천	47	12.8	46.8	25.5	10.6	4.3
광주	21	28.6	38.1	23.8	9.5	0.0
대전	24	12.5	37.5	29.2	20.8	0.0
울산	18	27.8	33.3	22.2	11.1	5.6
세종	200	20.5	42.5	26.0	10.5	0.5
경기	24	12.5	25.0	37.5	25.0	0.0
강원	24	12.5	54.2	20.8	12.5	0.0

충북	31	19.4	54.8	16.1	6.5	3.2
충남	25	16.0	28.0	36.0	20.0	0.0
전북	27	26.0	40.7	22.2	7.4	3.7
전남	41	19.5	43.9	24.4	9.8	2.4
경북	51	21.6	45.1	25.5	7.8	0.0
경남	10	20.0	50.0	10.0	20.0	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표 24.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5(개인구원관) 분포(지역별)

9. 교회와 신앙인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항 9.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만 20~29세	147	16.3	27.9	39.5	14.3	2.0
만 30~39세	158	12.0	36.1	41.8	8.2	1.9
만 40~49세	190	8.9	37.4	33.7	17.9	2.1
만 50~59세	182	12.1	39.0	29.7	15.9	3.3
만 60~69세	123	10.6	43.1	34.1	10.6	1.6

표 25.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6(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장)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여성	395	10.1	35.0	38.7	13.9	2.3
남성	405	13.6	38.3	32.3	13.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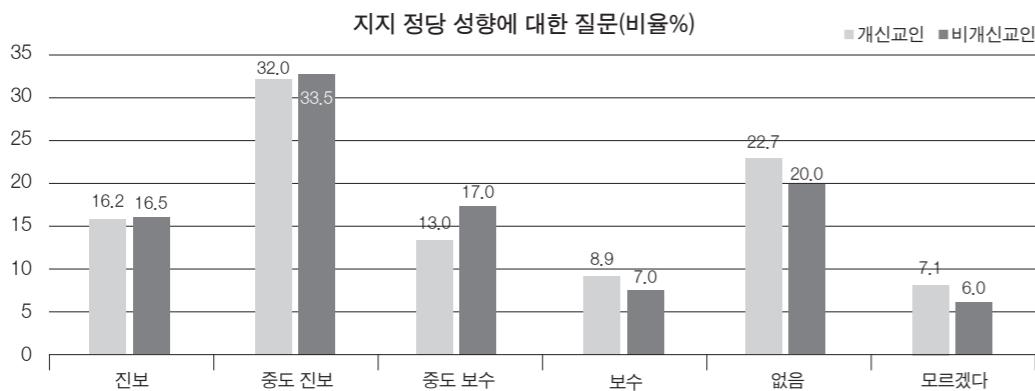
표 26.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6(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장)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서울	159	12.0	37.7	37.7	10.7	1.9
부산	55	16.4	38.2	30.9	14.5	0.0
대구	39	15.4	38.5	33.3	12.8	0.0
인천	47	10.6	34.0	40.4	15.0	0.0
광주	21	4.8	57.1	28.6	9.5	0.0
대전	24	25.0	25.0	41.7	8.3	0.0
울산	18	11.1	27.8	38.9	22.2	0.0
세종	200	11.5	35.5	34.5	15.0	3.5
경기	24	4.2	33.3	41.7	12.5	8.3
강원	24	0.0	37.5	37.5	25.0	0.0
충북	31	9.7	48.4	32.2	9.7	0.0
충남	25	4.0	48.0	20.0	28.0	0.0
전북	27	18.5	29.6	40.7	7.4	3.7
전남	41	17.1	26.8	36.6	17.1	2.4
경북	51	11.8	35.3	35.3	9.8	7.8
경남	10	10.0	30.0	50.0	10.0	0.0
제주	4	0.0	75.0	0.0	25.0	0.0

표 27. 한국 개신교인의 종교적 배타성 척도6(교회의 사회 참여에 대한 입장) 분포(지역별)

III. 개헌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다음 중에서 지지하는 정당의 성향을 골라주세요.



문항 10. 개신교인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만 20~29세	147	17.0	32.6	8.2	2.0	25.2	15.0
만 30~39세	158	20.3	31.0	12.0	5.1	25.3	6.3
만 40~49세	190	15.8	40.0	12.1	5.8	20.5	5.8
만 50~59세	182	14.3	30.2	16.5	13.7	20.3	4.9
만 60~69세	123	13.8	22.8	16.2	19.5	23.6	4.1

표 28. 개헌 I-1 한국 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연령별)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여성	395	17.2	28.1	10.1	7.1	27.3	10.1
남성	405	15.3	35.8	15.8	10.6	18.3	4.2

표 29. 개헌 I-1 한국 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성별)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서울	159	18.9	34.6	12.6	10.0	20.1	3.8
부산	55	14.5	29.1	12.7	16.4	23.6	3.6
대구	39	10.3	30.8	17.9	10.3	17.9	12.8
인천	47	17.0	36.2	6.4	4.2	36.2	0.0
광주	21	14.3	23.8	9.5	0.0	28.6	23.8
대전	24	4.2	50.0	12.5	12.5	20.8	0.0
울산	18	22.2	22.2	11.1	16.7	22.2	5.6
세종	200	17.5	34.0	13.5	8.0	20.5	6.5
경기	24	16.7	25.0	12.5	0.0	33.3	12.5
강원	24	25.0	33.3	20.8	12.5	4.2	4.2
충북	31	12.9	29.0	9.7	6.5	25.8	16.1
충남	25	20.0	40.0	0.0	4.0	20.0	16.0
전북	27	22.2	18.5	11.1	0.0	29.6	18.5
전남	41	7.3	22.0	24.4	9.7	22.0	14.6
경북	51	9.8	31.4	13.7	11.8	31.4	1.9
경남	10	20.0	30.0	20.0	10.0	20.0	0.0
제주	4	50.0	25.0	0.0	25.0	0.0	0.0

표 30. 개헌 I-1 한국 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지역별)

문항 10. 비개신교인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5	33.5	17.0	7.0	20.0	6.0
만 20~29세	37	8.1	37.8	18.9	0.0	24.3	10.8
만 30~39세	39	30.8	28.2	12.8	0.0	23.1	5.1
만 40~49세	47	14.9	34.0	12.8	4.2	27.7	6.4
만 50~59세	48	14.6	29.2	20.8	14.6	16.7	4.2
만 60~69세	29	13.8	41.4	20.7	17.2	3.4	3.4

표 31. 개헌 I-2 비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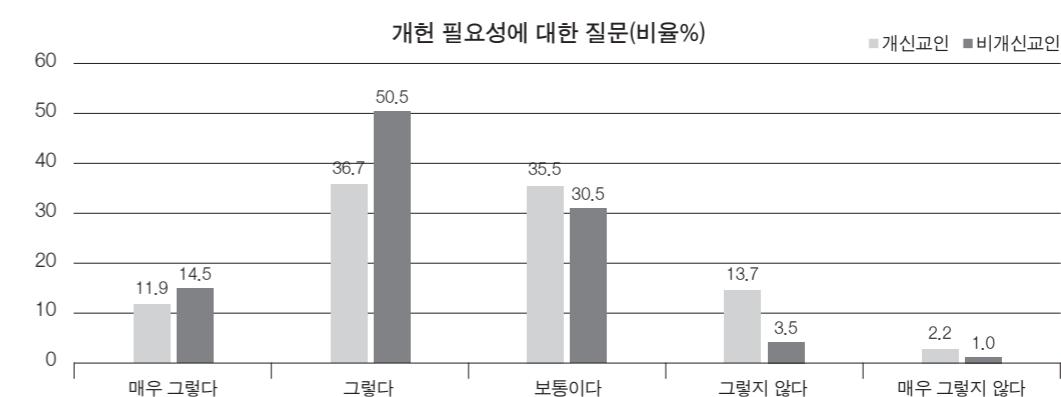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 체/평균	200	16.5	33.5	17.0	7.0	20.0	6.0
여성	96	21.9	27.1	9.4	5.2	25.0	11.4
남성	104	11.5	39.4	24.0	8.7	15.4	1.0

표 32. 개헌 I-2 비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성별)

	표본 수	진보	중도 진보	중도 보수	보수	없음	모르겠다
	(명)	%	%	%	%	%	%
전 체/평균	200	16.5	33.5	17.0	7.0	20.0	6.0
서울	38	13.2	28.9	21.0	5.3	23.7	7.9
부산	12	16.7	8.3	33.3	25.0	16.7	0.0
대구	10	10.0	20.0	30.0	0.0	40.0	0.0
인천	10	10.0	30.0	30.0	0.0	30.0	0.0
광주	7	14.3	57.1	14.3	0.0	0.0	14.3
대전	8	12.5	37.5	12.5	0.0	12.5	25.0
울산	4	0.0	0.0	75.0	0.0	0.0	25.0
세종	48	29.2	35.4	6.3	8.3	12.5	8.3
경기	6	0.0	33.3	16.7	33.3	16.7	0.0
강원	6	0.0	66.6	16.7	0.0	16.7	0.0
충북	10	10.0	40.0	10.0	0.0	40.0	0.0
충남	10	20.0	40.0	0.0	0.0	30.0	10.0
전북	9	33.3	55.6	0.0	0.0	11.1	0.0
전남	10	10.0	30.0	30.0	20.0	10.0	0.0
경북	12	8.3	33.3	16.7	8.3	33.3	0.0
경남	10	20.0	30.0	20.0	10.0	20.0	0.0
제주	4	50.0	25.0	0.0	25.0	0.0	0.0

표 33. 개헌 I-2 비개신교인의 지지 정당 성향 분포(지역별)

11.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1.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만 20~29세	147	16.3	27.9	39.5	14.3	2.0
만 30~39세	158	12.0	36.1	41.8	8.2	1.9
만 40~49세	190	8.9	37.4	33.7	17.9	2.1
만 50~59세	182	12.1	39.0	29.7	15.9	3.3
만 60~69세	123	10.6	43.1	34.1	10.6	1.6

표 34. 개헌 II-1 한국 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여성	395	10.1	35.0	38.7	13.9	2.3
남성	405	13.6	38.3	32.3	13.6	2.2

표 35. 개헌 II-1 한국 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1.9	36.7	35.5	13.7	2.2
서울	159	12.0	37.7	37.7	10.7	1.9
부산	55	16.4	38.2	30.9	14.5	0.0
대구	39	15.4	38.5	33.3	12.8	0.0
인천	47	10.6	34.0	40.4	15	0.0
광주	21	4.8	57.1	28.6	9.5	0.0
대전	24	25.0	25.0	41.7	8.3	0.0
울산	18	11.1	27.8	38.9	22.2	0.0
세종	200	11.5	35.5	34.5	15.0	3.5
경기	24	4.2	33.3	41.7	12.5	8.3
강원	24	0.0	37.5	37.5	25.0	0.0
충북	31	9.7	48.4	32.2	9.7	0.0
충남	25	4.0	48.0	20.0	28.0	0.0
전북	27	18.5	29.6	40.7	7.4	3.7
전남	41	17.1	26.8	36.6	17.1	2.4
경북	51	11.8	35.3	35.3	9.8	7.8
경남	10	10.0	30.0	50.0	10.0	0.0
제주	4	0.0	75.0	0.0	25.0	0.0

표 36. 개헌 II-1 한국 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지역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14.5	50.5	30.5	3.5	1.0
여성	96	13.5	43.8	36.5	5.2	1.0
남성	104	15.4	56.7	25.0	1.9	1.0

표 38. 개헌 II-2 비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14.5	50.5	30.5	3.5	1.0
서울	38	7.9	63.2	23.7	5.2	0.0
부산	12	8.3	75.0	16.7	0.0	0.0
대구	10	30.0	20.0	40.0	0.0	10.0
인천	10	20.0	60.0	20.0	0.0	0.0
광주	7	0.0	57.1	42.9	0.0	0.0
대전	8	25.0	25.0	50.0	0.0	0.0
울산	4	0.0	75.0	25.0	0.0	0.0
세종	48	18.7	41.7	35.4	2.1	2.1
경기	6	16.7	33.3	50.0	0.0	0.0
강원	6	0.0	66.7	33.3	0.0	0.0
충북	10	0.0	50.0	30.0	20.0	0.0
충남	10	0.0	70.0	30.0	0.0	0.0
전북	9	22.2	44.4	33.3	0.0	0.0
전남	10	30.0	40.0	20.0	10.0	0.0
경북	12	25.0	41.7	25.0	8.3	0.0
경남	10	25.0	41.7	25.0	8.3	0.0
제주	4	0.0	75.0	0.0	25.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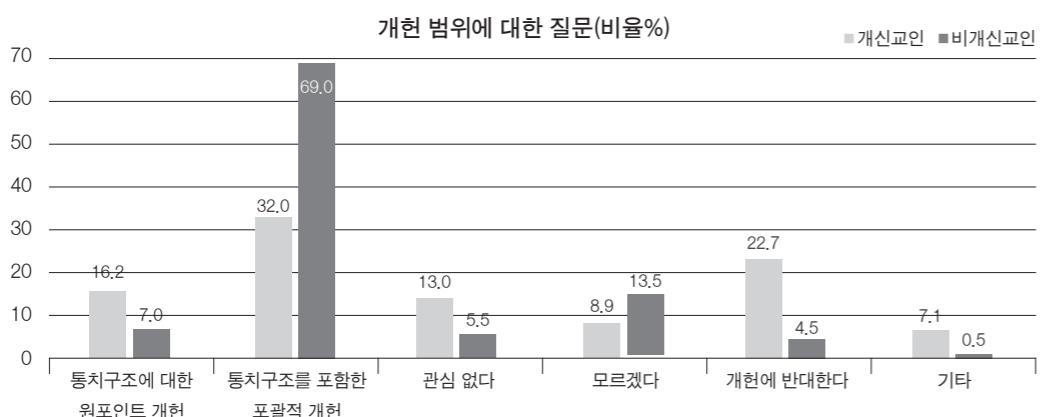
표 39. 개헌 II-2 비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11. 비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14.5	50.5	30.5	3.5	1.0
만 20~29세	37	2.7	54.1	32.4	10.8	0.0
만 30~39세	39	10.3	53.8	35.9	0.0	0.0
만 40~49세	47	21.3	48.9	27.7	0.0	2.1
만 50~59세	48	14.6	52.1	29.2	4.1	0.0
만 60~69세	29	24.1	41.4	27.6	3.4	3.4

표 37. 개헌 II-2 비개신교인의 개헌 필요성 인식 분포(연령별)

12. 어디까지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2. 개신교인

	표본 수 (명)	원 포인트 개헌 %	포괄 개헌 %	관심 없다 %	모르겠다 %	개헌에 반 대한다 %	기타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만 20~29세	147	17.0	32.6	8.2	2.0	25.2	15.0
만 30~39세	158	20.3	31.0	12.0	5.1	25.3	6.3
만 40~49세	190	15.8	40.0	12.1	5.8	20.5	5.8
만 50~59세	182	14.3	30.2	16.5	13.7	20.3	4.9
만 60~69세	123	13.8	22.8	16.2	19.5	23.6	4.1

표 40. 개헌II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연령별)

	표본 수 (명)	원 포인트 개헌 %	포괄 개헌 %	관심 없다 %	모르겠다 %	개헌에 반 대한다 %	기타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여성	395	17.2	28.1	10.1	7.1	27.3	10.1
남성	405	15.3	35.8	15.8	10.6	18.3	4.2

표 41. 개헌II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성별)

	표본 수 (명)	원 포인트 개헌 %	포괄 개헌 %	관심 없다 %	모르겠다 %	개헌에 반 대한다 %	기타 %
전체/평균	800	16.2	32.0	13.0	8.9	22.7	7.1
서울	159	18.9	34.6	12.6	10	20.1	3.8
부산	55	14.5	29.1	12.7	16.4	23.6	3.6
대구	39	10.3	30.8	17.9	10.3	17.9	12.8
인천	47	17.0	36.2	6.4	4.2	36.2	0.0
광주	21	14.3	23.8	9.5	0.0	28.6	23.8
대전	24	4.2	50.0	12.5	12.5	20.8	0.0
울산	18	22.2	22.2	11.1	16.7	22.2	5.6
세종	200	17.5	34.0	13.5	8.0	20.5	6.5
경기	24	16.7	25.0	12.5	0.0	33.3	12.5
강원	24	25.0	33.3	20.8	12.5	4.2	4.2
충북	31	12.9	29.0	9.7	6.5	25.8	16.1
충남	25	20.0	40.0	0.0	4.0	20.0	16.0
전북	27	22.2	18.5	11.1	0.0	29.6	18.5
전남	41	7.3	22.0	24.4	9.7	22.0	14.6
경북	51	9.8	31.4	13.7	11.8	31.4	1.9
경남	10	20.0	30.0	20.0	10.0	20.0	0.0
제주	4	50.0	25.0	0.0	25.0	0.0	0.0

표 42. 개헌II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지역별)

문항 12. 비개신교인

	표본 수 (명)	원 포인트 개헌 %	포괄 개헌 %	관심 없다 %	모르겠다 %	개헌에 반 대한다 %	기타 %
전체/평균	200	7.0	69.0	5.5	13.5	4.5	0.5
만 20~29세	37	8.1	62.2	8.1	10.8	10.8	0.0
만 30~39세	39	2.6	79.4	2.6	15.4	0.0	0.0
만 40~49세	47	6.4	74.5	0.0	17.0	2.1	0.0
만 50~59세	48	8.3	64.6	12.5	10.4	4.2	0.0
만 60~69세	29	10.4	62.1	3.4	13.8	6.9	3.4

표 43. 개헌II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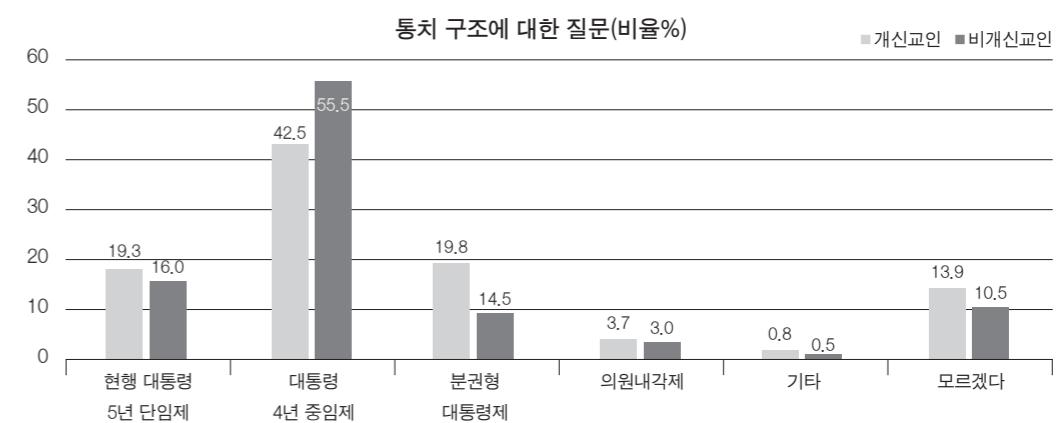
	표본 수	원 포인트 개헌	포괄 개헌	관심 없다	모르겠다	개헌에 반 대한다	기타
	(명)	%	%	%	%	%	%
전 체/평균	200	7.0	69.0	5.5	13.5	4.5	0.5
여성	96	6.2	61.5	5.2	20.8	6.2	0.0
남성	104	7.7	76.0	5.8	6.7	2.9	0.9

표 44. 개헌 II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성별)

	표본 수	원 포인트 개헌	포괄 개헌	관심 없다	모르겠다	개헌에 반 대한다	기타
	(명)	%	%	%	%	%	%
전 체/평균	200	7.0	69.0	5.5	13.5	4.5	0.5
서울	38	7.9	73.6	7.9	5.3	5.3	0.0
부산	12	0.0	91.7	0.0	8.3	0.0	0.0
대구	10	10.0	40.0	20.0	20.0	10.0	0.0
인천	10	10.0	80.0	10.0	0.0	0.0	0.0
광주	7	0.0	85.7	0.0	14.3	0.0	0.0
대전	8	12.5	75.0	0.0	12.5	0.0	0.0
울산	4	25.0	75.0	0.0	0.0	0.0	0.0
세종	48	8.3	64.6	6.2	16.7	4.2	0.0
경기	6	0.0	100.0	0.0	0.0	0.0	0.0
강원	6	0.0	50.0	16.7	33.3	0.0	0.0
충북	10	0.0	60.0	0.0	20.0	20.0	0.0
충남	10	10.0	50.0	0.0	30.0	0.0	10.0
전북	9	0.0	88.9	0.0	11.1	0.0	0.0
전남	10	10.0	50.0	10.0	20.0	10.0	0.0
경북	12	8.3	66.7	0.0	16.7	8.3	0.0
경남	10	20.0	30.0	20.0	10.0	20.0	0.0
제주	4	50.0	25.0	0.0	25.0	0.0	0.0

표 45. 개헌 II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 방식(범위) 분포(지역별)

13. 선호하는 통치구조는 무엇인가요?



문항 13. 개신교인

	표본 수	대통령 5년 단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 체/평균	800	19.3	42.5	19.8	3.7	0.8	13.9
만 20~29세	147	21.1	38.1	16.3	2.7	0.0	21.8
만 30~39세	158	19.6	46.2	12.0	4.4	1.9	15.8
만 40~49세	190	22.1	44.2	16.3	2.6	1.6	13.2
만 50~59세	182	15.9	44.0	25.8	6.0	0.0	8.2
만 60~69세	123	17.1	38.2	30.1	2.4	0.8	11.4

표 46. 개헌 I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연령별)

	표본 수	대통령 5년 단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 체/평균	800	19.3	42.5	19.8	3.7	0.8	13.9
여성	395	22.8	31.6	19.0	5.3	1.0	20.3
남성	405	15.8	53.1	20.5	2.2	0.7	7.7

표 47. 개헌 I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성별)

	표본 수	대통령 5년 담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800	19.3	42.5	19.8	3.7	0.8	13.9
서울	159	21.4	44.7	17.0	3.1	0.6	13.2
부산	55	16.4	32.7	21.8	7.3	3.6	18.2
대구	39	15.4	46.2	25.6	5.1	0.0	7.7
인천	47	17.0	46.8	19.1	6.4	0.0	10.6
광주	21	14.3	38.1	23.8	9.5	0.0	14.3
대전	24	29.2	45.8	16.6	0.0	4.2	4.2
울산	18	11.1	50.0	22.2	5.6	0.0	11.1
세종	200	16.0	45.0	21.5	4.0	0.5	13.0
경기	24	25.0	45.8	16.7	4.2	0.0	8.3
강원	24	16.7	41.7	29.2	0.0	0.0	12.5
충북	31	16.1	38.7	22.6	3.2	0.0	19.4
충남	25	8.0	68.0	8.0	0.0	0.0	16.0
전북	27	22.2	29.6	14.8	0.0	3.7	29.6
전남	41	24.4	34.1	24.4	0.0	0.0	17.1
경북	51	27.4	31.4	19.6	5.9	0.0	15.7
경남	10	50.0	20.0	0.0	0.0	10.0	20.0
제주	4	25.0	75.0	0.0	0.0	0.0	0.0

표 48. 개헌I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지역별)

	표본 수	대통령 5년 담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55.5	14.5	3.0	0.5	10.5
여성	96	19.8	47.9	13.5	2.1	0.0	16.7
남성	104	12.5	62.5	15.4	3.8	1.0	4.8

표 50. 개헌IV-2 비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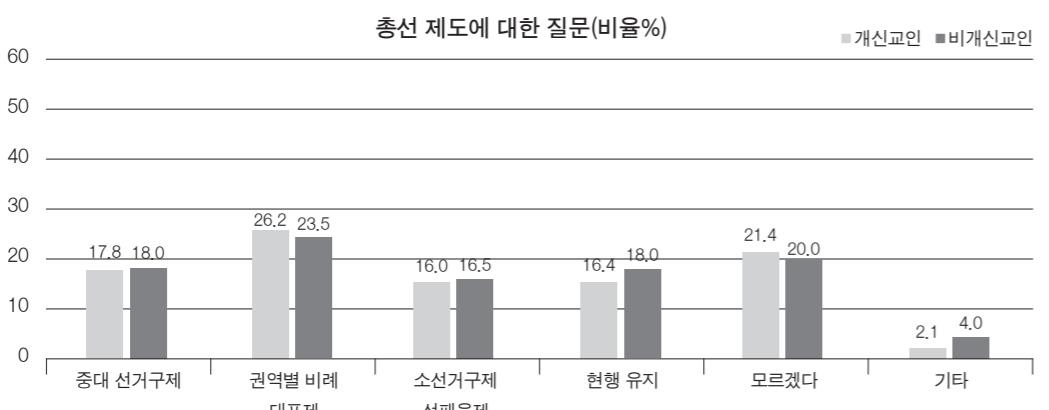
	표본 수	대통령 5년 담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55.5	14.5	3.0	0.5	10.5
서울	38	13.1	57.9	15.8	5.3	0.0	7.9
부산	12	25.0	50.0	0.0	16.7	0.0	8.3
대구	10	30.0	50.0	0.0	0.0	0.0	20.0
인천	10	10.0	60.0	10.0	0.0	0.0	20.0
광주	7	0.0	85.7	14.3	0.0	0.0	0.0
대전	8	50.0	37.5	12.5	0.0	0.0	0.0
울산	4	0.0	75.0	25.0	0.0	0.0	0.0
세종	48	14.6	52.1	20.8	2.1	0.0	10.4
경기	6	16.7	50.0	33.3	0.0	0.0	0.0
강원	6	16.7	33.3	33.3	0.0	16.7	0.0
충북	10	30.0	40.0	10.0	10.0	0.0	10.0
충남	10	20.0	60.0	0.0	0.0	0.0	20.0
전북	9	0.0	66.7	11.1	0.0	0.0	22.2
전남	10	10.0	70.0	10.0	0.0	0.0	10.0
경북	12	8.3	58.3	16.7	0.0	0.0	16.7
경남	10	50.0	20.0	0.0	0.0	10.0	20.0
제주	4	25.0	75.0	0.0	0.0	0.0	0.0

표 51. 개헌IV-2 비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지역별)

	표본 수	대통령 5년 담임제 (현행)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 통령제	의원내각제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55.5	14.5	3.0	0.5	10.5
만 20~29세	37	27.0	43.2	19.0	2.7	0.0	8.1
만 30~39세	39	12.8	59.0	5.1	7.7	0.0	15.4
만 40~49세	47	12.8	61.7	10.6	0.0	2.1	12.8
만 50~59세	48	10.4	58.3	18.8	2.1	0.0	10.4
만 60~69세	29	20.7	51.7	20.7	3.4	0.0	3.4

표 49. 개헌IV-2 비개신교인의 선호 통치 구조 분포(연령별)

14.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제도는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항 14. 개신교인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800	17.8	26.2	16.0	16.4	21.4	2.1
만 20~29세	147	13.6	27.9	13.0	17.0	26.5	2.0
만 30~39세	158	10.1	31.0	17.1	12.0	26.6	3.2
만 40~49세	190	18.4	27.4	20.5	16.3	16.8	0.5
만 50~59세	182	24.2	25.8	12.1	18.1	17.0	2.7
만 60~69세	123	22.0	16.2	17.1	18.7	22.0	4.0

표 52. 개헌 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800	17.8	26.2	16.0	16.4	21.4	2.1
여성	395	16.2	21.8	17.7	14.7	27.6	2.0
남성	405	19.3	30.4	14.3	18.0	15.3	2.7

표 53. 개헌 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성별)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800	17.8	26.2	16.0	16.4	21.4	2.1
서울	159	17.6	25.2	14.5	16.3	23.3	3.1
부산	55	12.7	27.3	20.0	14.5	20.0	5.5
대구	39	12.8	25.6	20.5	12.8	23.1	5.1
인천	47	21.3	21.3	21.3	23.4	12.7	0.0
광주	21	33.3	23.8	9.5	19.0	14.3	0.0
대전	24	20.8	37.5	16.7	8.3	16.7	0.0
울산	18	16.6	27.8	5.6	22.2	22.2	5.6
세종	200	15.0	28.5	18.5	14.0	21.0	3.0
경기	24	29.2	29.2	16.7	4.2	20.8	0.0
강원	24	12.5	50.0	4.2	8.3	25.0	0.0
충북	31	9.7	16.1	19.4	25.8	25.8	3.2
충남	25	28.0	8.0	16.0	28.0	20.0	0.0
전북	27	14.8	26.0	7.4	22.2	25.9	3.7
전남	41	14.6	24.4	12.2	26.8	22.0	0.0
경북	51	27.5	19.6	17.6	11.8	23.5	0.0
경남	10	30.0	10.0	10.0	20.0	30.0	0.0
제주	4	0.0	100.0	0.0	0.0	0.0	0.0

표 54. 개헌 V-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지역별)

문항 14. 비개신교인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200	18.0	23.5	16.5	18.0	20.0	4.0
만 20~29세	37	21.6	32.4	13.5	21.6	10.8	0.0
만 30~39세	39	10.2	15.4	23.1	23.1	25.6	2.4
만 40~49세	47	19.1	14.9	21.3	12.8	29.8	2.1
만 50~59세	48	20.8	27.1	10.4	16.7	18.8	6.2
만 60~69세	29	17.2	31.0	13.8	17.2	10.4	10.4

표 55. 개헌 V-2 비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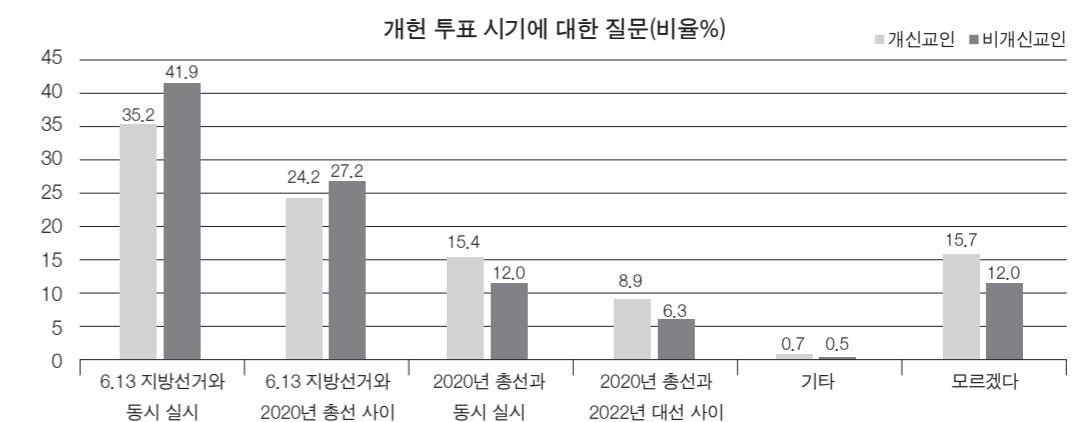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200	18.0	23.5	16.5	18.0	20.0	4.0
여성	96	12.5	19.8	13.5	21.9	31.3	1.0
남성	104	23.1	27.0	19.2	14.4	9.6	6.7

표 56. 개헌 V-2 비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성별)

	표본 수	증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석패율제	현행 유지	모르겠다	기타
	(명)	%	%	%	%	%	%
전체/평균	200	18.0	23.5	16.5	18.0	20.0	4.0
서울	38	10.5	28.9	15.8	21.1	18.4	5.3
부산	12	8.3	25.0	16.7	16.7	25.0	8.3
대구	10	30.0	20.0	0.0	10.0	40.0	0.0
인천	10	20.0	30.0	10.0	10.0	30.0	0.0
광주	7	14.3	0.0	42.8	28.6	14.3	0.0
대전	8	25.0	12.5	12.5	25.0	0.0	25.0
울산	4	25.0	25.0	25.0	0.0	25.0	0.0
세종	48	14.6	29.2	16.7	18.7	18.7	2.1
경기	6	50.0	16.7	0.0	16.7	16.7	0.0
강원	6	16.7	16.7	33.3	16.7	16.7	0.0
충북	10	20.0	20.0	20.0	20.0	20.0	0.0
충남	10	20.0	20.0	20.0	10.0	20.0	10.0
전북	9	22.2	33.3	11.1	22.2	11.1	0.0
전남	10	10.0	10.0	20.0	30.0	30.0	0.0
경북	12	33.3	16.7	16.7	8.3	16.7	8.3
경남	10	30.0	10.0	10.0	20.0	30.0	0.0
제주	4	0.0	100.0	0.0	0.0	0.0	0.0

표 57. 개헌 V-2 비개신교인의 선호 총선제도 방식 분포(지역별)

15. 개헌에 찬성할 경우, 개헌 국민투표로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항 15. 개신교인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에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728	35.2	24.2	15.4	8.9	0.7	15.7
만 20~29세	132	22.7	22.0	16.7	11.4	1.5	25.7
만 30~39세	146	28.8	27.4	16.4	11.6	2.1	13.7
만 40~49세	181	39.8	29.3	13.3	6.6	0.0	11.0
만 50~59세	163	43.5	20.9	13.5	9.2	0.0	12.9
만 60~69세	106	38.7	18.9	18.9	5.6	0.0	17.9

표 58. 개헌 V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연령별)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에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728	35.2	24.2	15.4	8.9	0.7	15.7
여성	358	28.2	25.7	14.3	10.3	1.1	20.4
남성	370	41.9	22.7	16.5	7.5	0.3	11.1

표 59. 개헌 V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성별)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728	35.2	24.2	15.4	8.9	0.7	15.7
서울	140	30.7	25.0	20.0	7.9	1.4	15.0
부산	50	38.0	28.0	12.0	8.0	0.0	14.0
대구	37	35.1	37.8	8.1	5.4	0.0	13.5
인천	45	26.7	28.9	20	15.5	0.0	8.9
광주	19	42.1	15.8	15.8	10.5	0.0	15.8
대전	22	45.5	22.7	9.1	4.5	0.0	18.2
울산	18	44.4	5.6	11.1	11.1	5.6	22.2
세종	178	42.1	18.5	16.3	10.1	0.0	12.9
경기	23	43.5	21.7	21.7	4.4	0.0	8.7
강원	24	20.8	37.5	0.0	16.7	0.0	25.0
충북	29	27.6	38.0	13.8	3.4	0.0	17.2
충남	24	54.2	4.2	12.5	8.3	0.0	20.8
전북	24	25.0	29.2	16.7	4.2	0.0	25.0
전남	38	26.3	31.6	15.8	2.6	2.6	21.1
경북	45	24.4	24.4	13.3	20.0	0.0	17.8
경남	8	37.5	12.5	12.5	0.0	0.0	37.5
제주	4	50.0	25.0	25.0	0.0	0.0	0.0

표 60. 개헌VI-1 한국 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지역별)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191	41.9	27.2	12.0	6.3	0.5	12.0
여성	90	34.4	24.4	14.4	10.0	0.0	16.7
남성	101	48.5	29.7	9.9	3.0	1.0	7.9

표 62. 개헌V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성별)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191	41.9	27.2	12.0	6.3	0.5	12.0
서울	36	44.4	22.2	16.7	2.8	0.0	13.9
부산	12	41.6	25.0	16.7	16.7	0.0	0.0
대구	9	55.6	11.1	0.0	0.0	0.0	33.3
인천	10	40.0	40.0	0.0	10.0	0.0	10.0
광주	7	42.9	42.9	0.0	0.0	0.0	14.2
대전	8	25.0	25.0	37.5	12.5	0.0	0.0
울산	4	75.0	0.0	25.0	0.0	0.0	0.0
세종	46	32.6	30.4	8.7	10.9	0.0	17.4
경기	6	66.6	16.7	0.0	16.7	0.0	0.0
강원	6	50.0	33.3	0.0	0.0	0.0	16.7
충북	8	50.0	25.0	0.0	0.0	0.0	25.0
충남	10	40.0	50.0	10.0	0.0	0.0	0.0
전북	9	55.6	44.4	0.0	0.0	0.0	0.0
전남	9	22.2	22.2	44.4	0.0	0.0	11.1
경북	11	45.4	9.1	18.2	9.1	9.1	9.1
경남	8	37.5	12.5	12.5	0.0	0.0	37.5
제주	4	50.0	25.0	25.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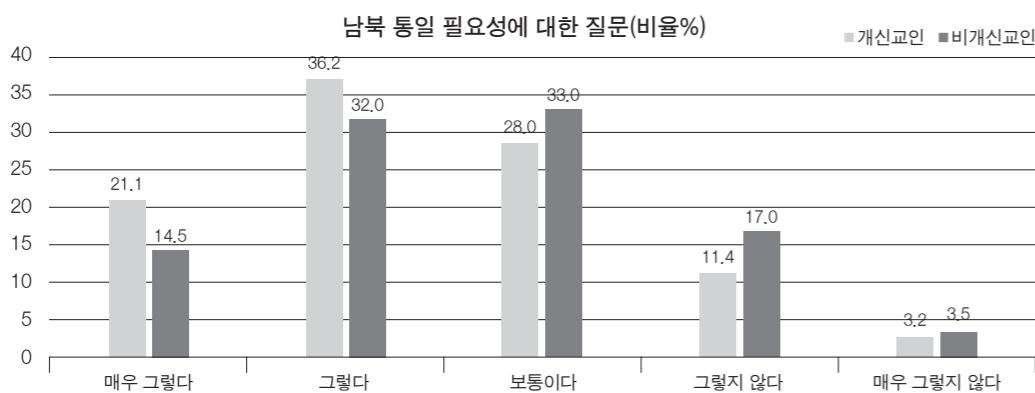
표 63. 개헌V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지역별)

	표본 수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	6.13선거와 2020총선 사이	2020 총선과 통시 실시	2020총선과 2022대선 사이	기타	모르겠다
	(명)	%	%	%	%	%	%
전체/평균	191	41.9	27.2	12.0	6.3	0.5	12.0
만 20~29세	33	21.2	30.3	15.2	12.1	0.0	21.2
만 30~39세	39	38.5	33.3	15.4	2.6	0.0	10.2
만 40~49세	46	39.1	28.3	13.0	6.5	0.0	13.0
만 50~59세	46	63.0	17.4	6.5	4.4	2.2	6.5
만 60~69세	27	40.7	29.6	11.1	7.4	0.0	11.1

표 61. 개헌VI-2 비개신교인의 선호 개헌국민투표 시기 분포(연령별)

IV. 남북관계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6. 남북통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6. 개신교인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800	21.1	36.2	28.0	11.4	3.2
만 20~29세	147	14.3	41.5	27.9	13.6	2.7
만 30~39세	158	19.0	31.0	30.4	13.3	6.3
만 40~49세	190	21.1	36.8	31.6	8.9	1.6
만 50~59세	182	27.5	35.7	23.1	11.5	2.2
만 60~69세	123	22.8	36.6	26.8	9.7	4.1

표 64. 남북관계 I -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800	21.1	36.2	28.0	11.4	3.2
여성	395	13.7	36.5	31.1	14.4	4.3
남성	405	28.4	36.0	25.0	8.4	2.2

표 65. 남북관계 I -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800	21.1	36.2	28.0	11.4	3.2
서울	159	17.0	36.5	30.8	10.1	10.1
부산	55	23.6	38.2	29.1	9.1	9.1
대구	39	12.8	38.5	23.1	17.9	17.9
인천	47	21.3	48.9	23.4	4.3	4.3
광주	21	42.8	23.8	28.6	0.0	0.0
대전	24	33.3	33.3	20.8	12.5	12.5
울산	18	16.7	50.0	16.7	16.7	16.7
세종	200	19.5	33.5	30.5	12.0	12.0
경기	24	4.2	50.0	33.3	12.5	12.5
강원	24	20.8	33.3	45.8	0.0	0.0
충북	31	19.4	51.6	16.1	12.9	12.9
충남	25	40.0	28.0	24.0	8.0	8.0
전북	27	33.3	18.5	37.0	11.1	11.1
전남	41	17.1	31.7	31.7	17.1	17.1
경북	51	25.5	37.2	15.7	19.6	19.6
경남	10	30.0	20.0	20.0	20.0	2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표 66. 남북관계 I -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16. 비개신교인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200	14.5	32.0	33.0	17.0	3.5
만 20~29세	37	8.1	18.9	46.0	24.3	2.7
만 30~39세	39	12.8	30.8	35.9	12.8	7.7
만 40~49세	47	14.9	38.3	25.5	21.3	0.0
만 50~59세	48	20.8	37.5	25.0	10.4	6.3
만 60~69세	29	13.8	31.0	38.0	17.2	0.0

표 67. 남북관계 I -2 비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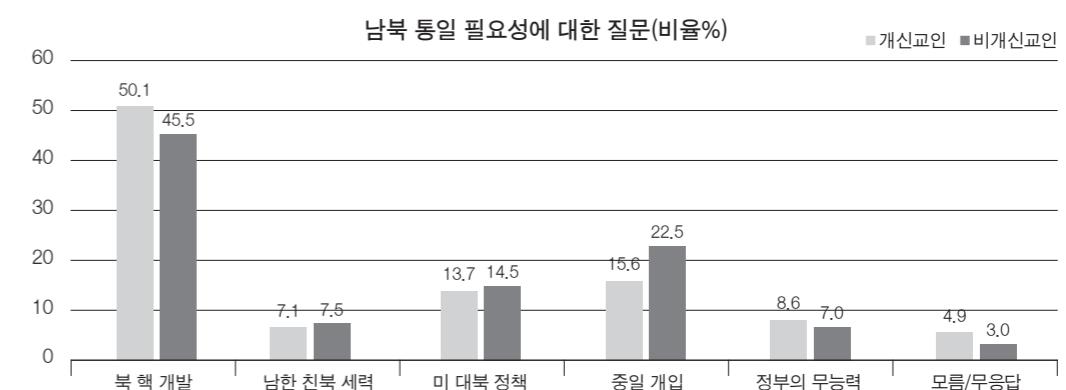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14.5	32.0	33.0	17.0	3.5
여성	96	8.3	30.2	34.4	22.9	4.2
남성	104	20.2	33.7	31.7	11.5	2.9

표 68. 남북관계 I -2 비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14.5	32.0	33.0	17.0	3.5
서울	38	13.2	18.4	34.2	28.9	5.3
부산	12	8.3	41.7	25.0	25.0	0.0
대구	10	0.0	30.0	40.0	30.0	0.0
인천	10	10.0	30.0	60.0	0.0	0.0
광주	7	28.6	42.8	28.6	0.0	0.0
대전	8	12.5	75.0	12.5	0.0	0.0
울산	4	0.0	75.0	25.0	0.0	0.0
세종	48	18.8	33.3	18.8	20.8	8.3
경기	6	16.7	66.6	0.0	16.7	0.0
강원	6	16.7	16.7	33.3	33.3	0.0
충북	10	10.0	60.0	30.0	0.0	0.0
충남	10	20.0	50.0	30.0	0.0	0.0
전북	9	22.2	33.3	44.4	0.0	0.0
전남	10	10.0	20.0	50.0	20.0	0.0
경북	12	25.0	16.7	41.7	8.3	8.3
경남	10	30.0	20.0	20.0	20.0	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표 69. 남북관계 I -2 비개신교인의 남북통일 필요성 인식 분포(지역별)

17.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7. 개신교인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능력	모름/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800	50.1	7.1	13.7	15.6	8.6	4.9
만 20~29세	147	50.3	9.5	9.5	14.3	10.2	6.1
만 30~39세	158	51.3	5.7	12.0	16.4	10.8	3.8
만 40~49세	190	48.4	2.6	22.1	15.3	5.3	6.3
만 50~59세	182	48.4	5.5	13.2	20.3	7.7	4.9
만 60~69세	123	53.7	15.4	8.1	9.8	10.6	2.4

표 70. 남북관계 II -1 한국 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능력	모름/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800	50.1	7.1	13.7	15.6	8.6	4.9
여성	395	51.9	5.6	12.7	15.4	8.3	6.1
남성	405	48.4	8.6	14.6	15.8	8.9	3.7

표 71. 남북관계 II -1 한국 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 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 능력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 체/평균	800	50.1	7.1	13.7	15.6	8.6	4.9
서울	159	50.3	6.9	17.0	15.1	6.9	3.8
부산	55	54.5	9.1	10.9	16.4	7.3	1.8
대구	39	38.5	15.4	15.4	7.7	12.8	10.2
인천	47	51.1	0.0	12.8	27.6	6.4	2.1
광주	21	42.9	9.5	14.3	19.0	4.8	9.5
대전	24	37.5	16.7	16.7	16.7	8.3	4.1
울산	18	55.5	0.0	11.1	16.7	11.1	5.6
세종	200	50.5	8.0	13.5	12.0	10.0	6.0
경기	24	45.8	4.2	8.3	25.0	12.5	4.2
강원	24	58.3	8.3	8.3	16.7	4.2	4.2
충북	31	51.6	0.0	19.4	12.9	12.9	3.2
충남	25	44.0	4.0	28.0	20.0	0.0	4.0
전북	27	48.1	11.1	11.1	18.5	0.0	11.1
전남	41	53.7	7.3	2.4	22.0	12.2	2.4
경북	51	51.0	3.9	11.8	11.8	15.7	5.9
경남	10	70.0	10.0	10.0	10.0	0.0	0.0
제주	4	75.0	0.0	0.0	25.0	0.0	0.0

표 72. 남북관계 II-1 한국 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지역별)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 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 능력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 체/평균	200	45.5	7.5	14.5	22.5	7.0	3.0
여성	96	43.8	6.3	15.6	20.8	8.3	5.2
남성	104	47.1	8.6	13.5	24.0	5.8	1.0

표 74. 남북관계 II-2 비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 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 능력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 체/평균	200	45.5	7.5	14.5	22.5	7.0	3.0
서울	38	60.5	10.5	10.5	10.5	5.3	2.6
부산	12	16.7	16.7	16.7	41.7	8.3	0.0
대구	10	40.0	30.0	10.0	0.0	10.0	10.0
인천	10	50.0	0.0	30.0	0.0	10.0	10.0
광주	7	42.9	0.0	0.0	42.9	0.0	14.3
대전	8	50.0	0.0	12.5	25.0	12.5	0.0
울산	4	50.0	25.0	0.0	0.0	25.0	0.0
경기	48	39.6	4.2	12.5	33.3	8.3	2.1
강원	6	33.3	16.7	33.3	16.7	0.0	0.0
충북	6	66.7	0.0	0.0	33.3	0.0	0.0
충남	10	60.0	0.0	10.0	10.0	10.0	10.0
전북	10	30.0	0.0	30.0	30.0	10	0.0
전남	9	33.3	0.0	22.2	44.4	0.0	0.0
경북	10	50.0	10.0	20.0	20.0	0.0	0.0
경남	12	50.0	8.3	16.7	16.7	8.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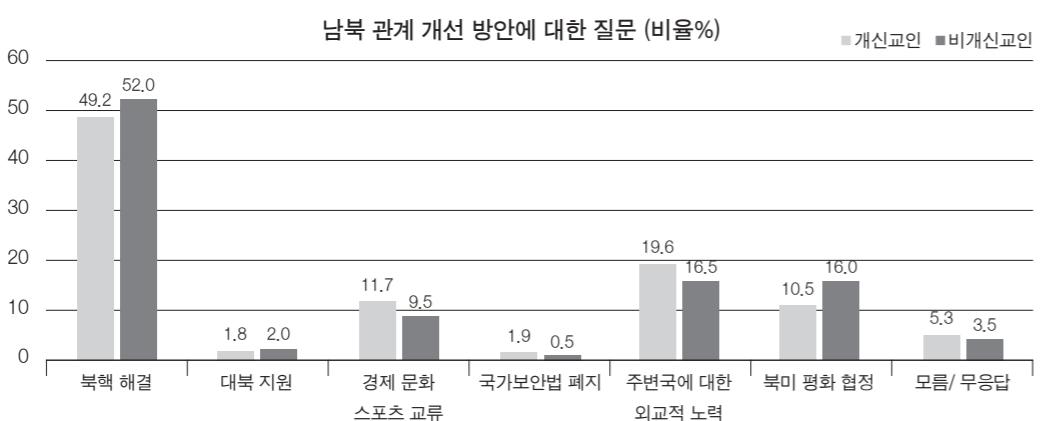
표 75. 남북관계 II-2 비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17. 비개신교인

	표본 수	북한의 핵개발	남한 내 친북세력	미국의 대 북정책	주변국의 영향력 확장	정부의 무 능력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 체/평균	200	45.5	7.5	14.5	22.5	7.0	3.0
만 20~29세	37	70.3	10.8	5.4	8.1	2.7	2.7
만 30~39세	39	35.9	0.0	12.8	35.9	7.7	7.7
만 40~49세	47	44.7	0.0	25.5	12.8	12.8	4.2
만 50~59세	48	41.7	12.5	12.5	31.2	2.1	0.0
만 60~69세	29	34.5	17.2	13.8	24.1	10.3	0.0

표 73. 남북관계 II-2 비개신교인의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 인식 분포(연령별)

18.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문항 18. 개신교인

	표본 수	북핵 해결	대북 지원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국가 보안법 폐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모름/ 무응답
	(명)	%	%	%	%	%	%	%
전체/평균	800	49.2	1.8	11.7	1.9	19.6	10.5	5.3
만 20~29세	147	53.0	2.7	10.9	0.7	15.0	10.2	7.5
만 30~39세	158	45.6	1.9	10.7	3.2	22.1	10.8	5.7
만 40~49세	190	41.6	1.0	11.1	4.2	20.0	14.7	7.4
만 50~59세	182	52.2	1.7	14.8	0.6	18.7	9.3	2.7
만 60~69세	123	56.9	1.6	10.6	0.0	22.8	5.7	2.4

표 76. 남북관계 III-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북핵 해결	대북 지원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국가 보안법 폐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모름/ 무응답
	(명)	%	%	%	%	%	%	%
전체/평균	800	49.2	1.8	11.7	1.9	19.6	10.5	5.3
여성	395	50.1	1.0	11.1	1.0	19.0	11.1	6.6
남성	405	48.4	2.5	12.3	2.7	20.2	9.9	4.0

표 77. 남북관계 III-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명)	북핵 해결 %	대북 지원 %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	국가 보안법 폐지 %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	북미 평화 협정 체결 %	모름/ 무응답 %
전체/평균	800	49.2	1.8	11.7	1.9	19.6	10.5	5.3
서울	159	50.3	3.1	9.4	1.9	21.4	10.1	3.8
부산	55	54.5	1.8	14.5	0.0	9.1	16.4	3.6
대구	39	38.5	0.0	2.6	7.7	33.3	12.8	5.1
인천	47	51.1	0.0	21.3	2.1	14.9	8.5	2.1
광주	21	38.1	0.0	19.0	0.0	19.0	14.3	9.5
대전	24	45.8	0.0	4.2	0.0	29.2	16.7	4.2
울산	18	66.7	0.0	11.1	0.0	11.1	0.0	11.1
세종	200	50.0	2.0	14.5	0.5	15.5	10.0	7.5
경기	24	45.8	0.0	4.2	4.2	33.3	4.2	8.3
강원	24	45.8	0.0	12.5	4.2	25	4.2	8.3
충북	31	41.9	0.0	9.7	0.0	35.5	9.7	3.2
충남	25	32.0	8.0	12.0	0.0	16.0	28.0	4.0
전북	27	48.2	0.0	14.8	7.4	22.2	3.7	3.7
전남	41	53.7	2.4	12.2	4.9	17.1	7.3	2.4
경북	51	56.9	2.0	5.9	2.0	21.5	9.8	2.0
경남	10	50.0	0.0	10.0	0.0	10.0	10.0	20.0
제주	4	50.0	0.0	25.0	0.0	0.0	25.0	0.0

표 78. 남북관계 III-1 한국 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18. 비개신교인

	표본 수 (명)	북핵 해결 %	대북 지원 %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	국가 보안법 폐지 %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	북미 평화 협정 체결 %	모름/ 무응답 %
전체/평균	200	52.0	2.0	9.5	0.5	16.5	16.0	3.5
만 20~29세	37	81.1	0.0	5.4	0.0	10.8	0.0	2.7
만 30~39세	39	43.6	2.6	12.8	2.6	15.4	17.9	5.1
만 40~49세	47	44.7	2.1	10.6	0.0	10.6	25.5	6.4
만 50~59세	48	54.1	2.1	14.6	0.0	14.6	14.6	0.0
만 60~69세	29	34.5	3.4	0.0	0.0	38.0	20.7	3.4

표 79. 남북관계 III-2 비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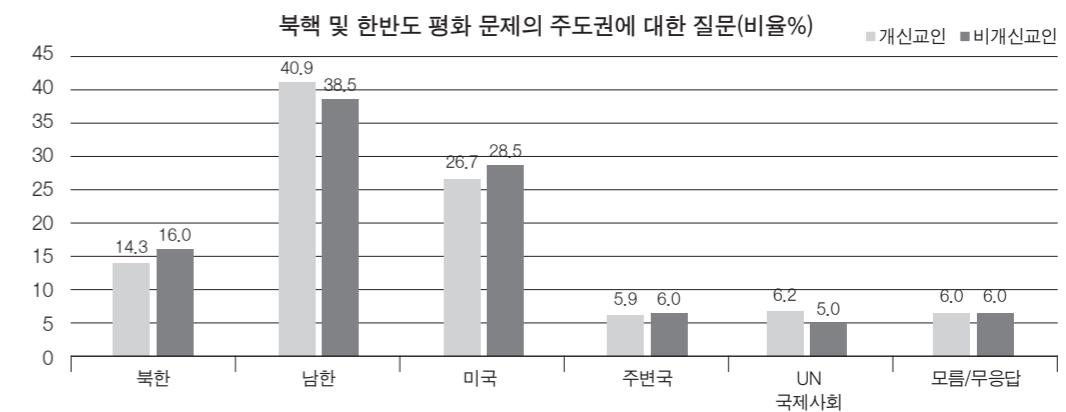
	표본 수	북핵 해결	대북 지원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국가 보안법 폐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모름/ 무응답
	(명)	%	%	%	%	%	%	%
전체/평균	200	52.0	2.0	9.5	0.5	16.5	16.0	3.5
여성	96	54.1	2.1	4.2	0.0	16.7	16.7	6.2
남성	104	50.0	1.9	14.4	1.0	16.3	15.4	1.0

표 80. 남북관계 III-2 비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북핵 해결	대북 지원	경제 문화 스포츠 교류	국가 보안법 폐지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	북미 평화 협정 체결	모름/ 무응답
	(명)	%	%	%	%	%	%	%
전체/평균	200	52.0	2.0	9.5	0.5	16.5	16.0	3.5
서울	38	60.5	0.0	5.3	0.0	23.7	7.9	2.6
부산	12	33.3	0.0	25.0	0.0	8.3	33.3	0.0
대구	10	70.0	0.0	0.0	0.0	10.0	10.0	10.0
인천	10	70.0	10.0	0.0	0.0	0.0	20.0	0.0
광주	7	57.1	0.0	0.0	0.0	14.3	14.3	14.3
대전	8	50.0	0.0	12.5	0.0	25.0	12.5	0.0
울산	4	75.0	0.0	0.0	0.0	0.0	25.0	0.0
경기	48	35.4	2.1	14.6	2.1	18.8	20.8	6.2
강원	6	33.3	0.0	0.0	0.0	50.0	16.7	0.0
충북	6	66.6	0.0	16.7	0.0	16.7	0.0	0.0
충남	10	70.0	0.0	0.0	0.0	10.0	10.0	10.0
전북	10	50.0	10	0.0	0.0	20.0	20.0	0.0
전남	9	33.3	11.1	22.2	0.0	22.2	11.1	0.0
경북	10	60.0	0.0	20.0	0.0	10.0	10.0	0.0
경남	12	66.7	0.0	8.3	0.0	0.0	25.0	0.0
경남	10	50.0	0.0	10.0	0.0	10.0	10.0	20.0
제주	4	50.0	0.0	25.0	0.0	0.0	25.0	0.0

표 81. 남북관계 III-2 비개신교인의 남북관계 개선 방안 인식 분포(지역별)

19.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19. 개신교인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800	14.3	40.9	26.7	5.9	6.2	6.0
만 20~29세	147	13.6	36.1	26.5	6.8	9.5	7.5
만 30~39세	158	15.8	36.1	27.2	5.7	8.2	7.0
만 40~49세	190	16.3	40.0	26.3	5.8	4.7	6.8
만 50~59세	182	15.9	43.4	26.4	6.6	3.8	3.8
만 60~69세	123	7.3	50.4	27.6	4.1	5.7	4.9

표 82. 남북관계 IV-1 한국 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800	14.3	40.9	26.7	5.9	6.2	6.0
여성	395	12.7	42.3	24.0	6.1	7.3	7.6
남성	405	15.8	39.5	29.4	5.7	5.2	4.4

표 83. 남북관계 IV-1 한국 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800	14.3	40.9	26.7	5.9	6.2	6.0
서울	159	13.8	36.5	29.6	6.9	4.4	8.8
부산	55	23.6	47.3	20.0	3.6	5.5	0.0
대구	39	2.6	48.7	30.8	10.2	2.6	5.1
인천	47	17.0	27.7	36.2	6.4	8.5	4.2
광주	21	9.5	47.6	19.0	4.8	9.5	9.5
대전	24	12.5	37.5	45.8	0.0	4.2	0.0
울산	18	5.5	38.9	38.9	0.0	11.1	5.6
세종	200	15.5	36.5	25.5	7.0	10.5	5.0
경기	24	8.3	58.3	12.5	8.3	4.2	8.3
강원	24	12.5	54.2	12.5	4.2	8.3	8.3
충북	31	12.9	48.4	19.4	9.7	3.2	6.4
충남	25	8.0	64.0	12.0	0.0	4.0	12.0
전북	27	3.7	51.9	33.3	3.7	0.0	7.4
전남	41	17.1	36.6	34.1	4.9	2.4	4.9
경북	51	19.6	39.2	23.5	5.9	5.9	5.9
경남	10	30.0	30.0	30.0	0.0	0.0	1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0.0

표 84. 남북관계IV-1 한국 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19. 비개신교인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38.5	28.5	6.0	5.0	6.0
만 20~29세	37	16.2	29.7	32.4	2.7	8.1	10.8
만 30~39세	39	12.8	38.5	33.3	5.1	2.6	7.7
만 40~49세	47	8.5	44.7	21.3	14.9	4.2	6.4
만 50~59세	48	22.9	33.3	35.4	0.0	4.2	4.2
만 60~69세	29	20.7	48.3	17.2	6.9	6.9	0.0

표 85. 남북관계IV-2 비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38.5	28.5	6.0	5.0	6.0
여성	96	13.5	42.7	21.9	7.3	6.3	8.3
남성	104	18.3	34.6	34.6	4.8	3.8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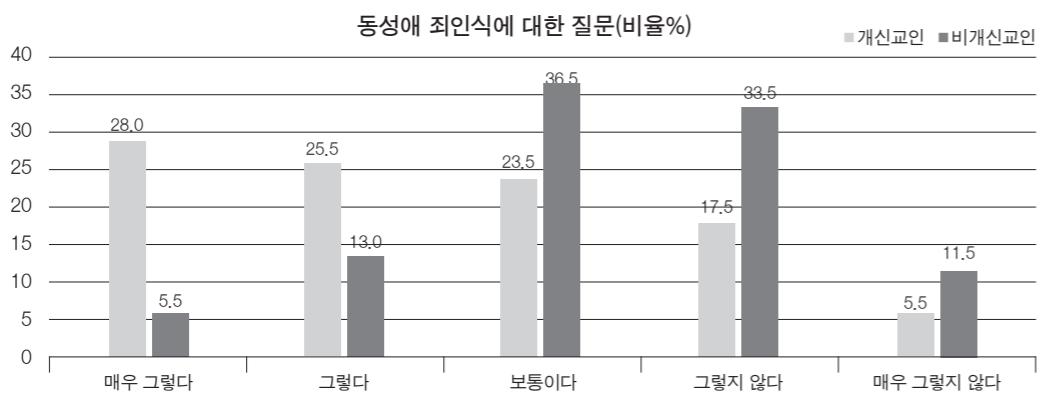
표 86. 남북관계IV-2 비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UN 등 국제사회	모름/ 무응답
	(명)	%	%	%	%	%	%
전체/평균	200	16.0	38.5	28.5	6.0	5.0	6.0
서울	38	15.8	34.2	29.0	10.5	2.6	7.9
부산	12	25.0	41.7	25.0	0.0	8.3	0.0
대구	10	20.0	20.0	40.0	0.0	0.0	20.0
인천	10	10.0	20.0	60.0	10.0	0.0	0.0
광주	7	14.3	28.6	42.8	0.0	0.0	14.3
대전	8	37.5	50.0	12.5	0.0	0.0	0.0
울산	4	0.0	50.0	25.0	25.0	0.0	0.0
경기	48	16.7	47.9	18.8	4.2	6.2	6.2
강원	6	0.0	50	33.3	0.0	0.0	16.7
충북	6	33.3	16.7	16.7	16.7	16.7	0.0
충남	10	40.0	10.0	40.0	0.0	0.0	10.0
전북	10	0.0	50.0	30.0	10.0	10.0	0.0
전남	9	0.0	55.6	22.2	11.1	0.0	11.1
경북	10	10.0	40.0	40.0	0.0	10.0	0.0
경남	12	8.3	41.7	25.0	8.3	16.7	0.0

표 87. 남북관계IV-2 비개신교인의 북핵 및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 주체 인식 분포(지역별)

V. 동성애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0. 개신교인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800	28.0	25.5	23.5	17.5	5.5
만 20~29세	147	19.0	21.1	21.8	24.5	13.6
만 30~39세	158	26.6	25.3	22.2	19.6	6.3
만 40~49세	190	25.3	25.8	29.5	16.8	2.6
만 50~59세	182	36.3	21.4	24.2	15.9	2.2
만 60~69세	123	32.5	36.6	17.1	9.7	4.1

표 88. 동성애 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전체/평균	800	28.0	25.5	23.5	17.5	5.5
여성	395	28.4	23.8	20.5	20.5	6.8
남성	405	27.6	27.2	26.4	14.6	4.2

표 89. 동성애 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전체/평균	800	28.0	25.5	23.5	17.5	5.5
서울	159	28.3	26.4	21.4	17.0	6.9
부산	55	36.4	14.5	21.8	23.6	3.6
대구	39	25.6	33.3	25.6	10.3	5.1
인천	47	27.6	29.8	23.4	12.8	6.4
광주	21	14.3	38.1	23.8	14.3	9.5
대전	24	25.0	37.5	12.5	16.7	8.3
울산	18	22.2	27.8	22.2	16.7	11.1
세종	200	26.5	24.0	26.5	16.5	6.5
경기	24	20.8	12.5	37.5	29.2	0.0
강원	24	12.5	25.0	20.8	41.7	0.0
충북	31	29.0	35.5	16.1	16.1	3.2
충남	25	20.0	24.0	32.0	20.0	4.0
전북	27	48.1	18.5	14.8	14.8	3.7
전남	41	29.3	26.8	31.7	9.8	2.4
경북	51	39.2	19.6	15.7	19.6	5.9
경남	10	10.0	50.0	30.0	10.0	0.0
제주	4	50.0	0.0	25.0	25.0	0.0

표 90. 동성애 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20. 비개신교인

	표본 수 (명)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지 않다 %
		%	%	%	%	%
전체/평균	200	5.5	13.0	36.5	33.5	11.5
만 20~29세	37	2.7	8.1	24.3	35.1	29.7
만 30~39세	39	2.6	7.7	33.3	41.0	15.4
만 40~49세	47	4.3	14.9	40.4	36.2	4.3
만 50~59세	48	6.3	14.6	50.0	20.8	8.3
만 60~69세	29	13.8	20.7	27.6	37.9	0.0

표 91. 동성애 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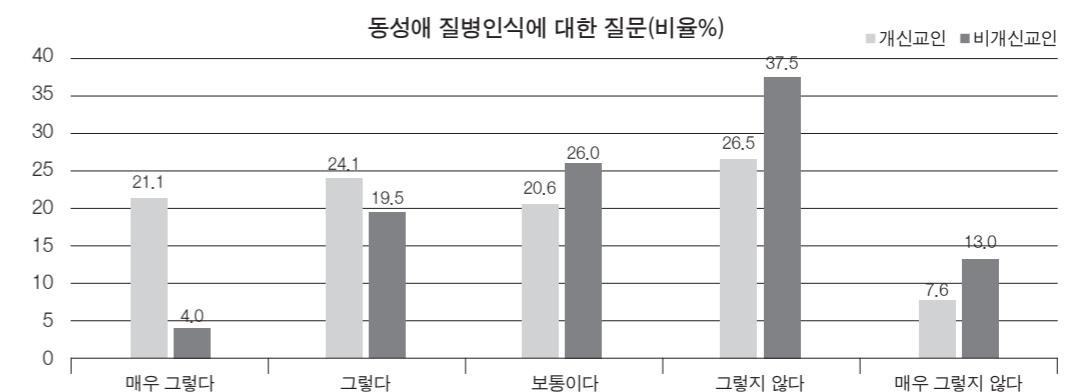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5.5	13.0	36.5	33.5	11.5
여성	96	1.0	7.3	35.4	37.5	18.8
남성	104	9.6	18.3	37.5	29.8	4.8

표 92. 동성애 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5.5	13.0	36.5	33.5	11.5
서울	38	13.2	2.6	44.7	29.0	10.5
부산	12	0.0	8.3	41.7	41.7	8.3
대구	10	10.0	20.0	10.0	60.0	0.0
인천	10	0.0	10.0	50.0	40.0	0.0
광주	7	0.0	0.0	57.1	42.9	0.0
대전	8	0.0	0.0	50.0	12.5	37.5
울산	4	0.0	75.0	0.0	25.0	0.0
경기	48	6.3	10.4	33.3	37.5	12.5
강원	6	0.0	33.3	33.3	33.3	0.0
충북	6	0.0	0.0	66.7	33.3	0.0
충남	10	0.0	30.0	40.0	20.0	10.0
전북	10	0.0	20.0	20.0	40.0	20.0
전남	9	0.0	22.2	55.6	11.1	11.1
경북	10	10.0	30.0	10.0	30.0	20.0
경남	12	8.3	8.3	25	33.3	25
경남	10	30.0	20.0	20.0	20.0	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표 93. 동성애 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죄 인식 분포(지역별)

21. 동성애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1.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1.1	24.1	20.6	26.5	7.6
만 20~29세	147	9.5	18.4	22.4	32.7	17.0
만 30~39세	158	22.8	18.3	15.8	34.2	8.9
만 40~49세	190	25.3	25.8	29.5	16.8	2.6
만 50~59세	182	28.0	26.9	20.3	22.0	2.7
만 60~69세	123	23.6	36.6	12.2	21.1	6.5

표 94. 동성애 I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1.1	24.1	20.6	26.5	7.6
여성	395	21.0	20.8	15.7	31.9	10.6
남성	405	21.2	27.4	25.4	21.2	4.7

표 95. 동성애 I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21.1	24.1	20.6	26.5	7.6
서울	159	23.9	25.2	20.1	23.3	7.5
부산	55	18.2	23.6	25.5	21.8	10.9
대구	39	12.8	41.0	20.5	18.0	7.7
인천	47	19.1	23.4	23.4	27.7	6.4
광주	21	19.1	19.1	19.1	33.3	9.5
대전	24	20.8	37.5	4.2	25.0	12.5
울산	18	27.8	16.7	22.2	16.7	16.7
세종	200	20.0	20.0	20.5	31.5	8.0
경기	24	16.7	16.7	29.2	29.2	8.3
강원	24	12.5	29.2	16.7	33.3	8.3
충북	31	22.6	25.8	19.4	29.0	3.2
충남	25	16.0	16.0	36.0	24.0	8.0
전북	27	40.7	22.2	18.5	14.8	3.7
전남	41	17.1	26.8	26.8	24.4	4.9
경북	51	27.4	21.6	11.8	33.3	5.9
경남	10	10.0	60.0	10.0	20.0	0.0
제주	4	50.0	0.0	25.0	25.0	0.0

표 96. 동성애 I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지역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4.0	19.5	26.0	37.5	13.0
여성	96	1.0	15.6	24.0	40.6	18.8
남성	104	6.7	23.1	27.9	34.6	7.7

표 98. 동성애 I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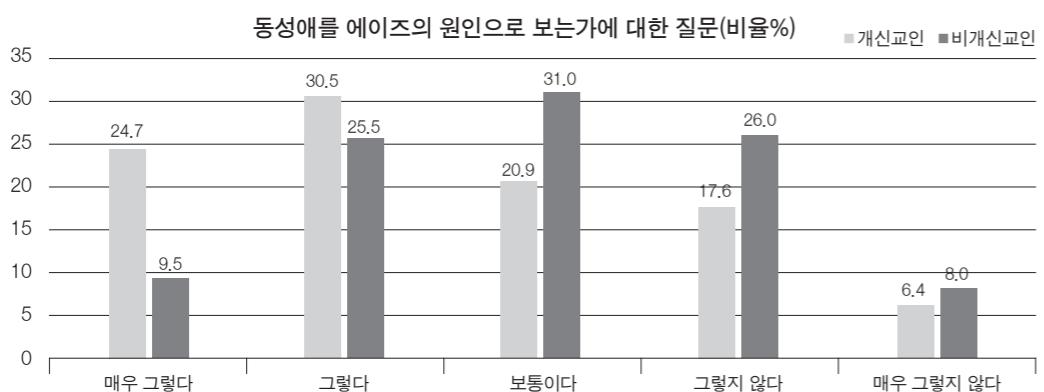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2.8	22.0	29.9	34.6	10.7
서울	38	10.5	10.5	26.3	42.1	10.5
부산	12	0.0	16.7	16.7	58.3	8.3
대구	10	0.0	10.0	40.0	50.0	0.0
인천	10	0.0	20.0	40.0	40.0	0.0
광주	7	0.0	14.3	42.9	42.9	0.0
대전	8	0.0	12.5	37.5	12.5	37.5
울산	4	0.0	50.0	50.0	0.0	0.0
경기	48	4.2	20.8	18.8	37.5	18.8
강원	6	16.7	33.3	16.7	33.3	0.0
충북	6	0.0	16.7	50.0	33.3	0.0
충남	10	0.0	30.0	20.0	40.0	10.0
전북	10	0.0	20.0	10.0	40.0	30.0
전남	9	0.0	22.2	44.4	22.2	11.1
경북	10	10.0	20.0	10.0	50.0	10.0
경남	12	0.0	33.3	25.0	16.7	25.0
경남	10	30.0	20.0	20.0	20.0	20.0
제주	4	25.0	50.0	25.0	0.0	0.0

표 99. 동성애 I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지역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4.0	19.5	26.0	37.5	13.0
만 20~29세	37	5.4	10.8	13.5	40.5	29.7
만 30~39세	39	2.6	12.8	28.2	38.5	17.9
만 40~49세	47	4.3	27.7	23.4	40.4	4.3
만 50~59세	48	2.1	18.8	41.7	31.2	6.2
만 60~69세	29	6.9	27.6	17.2	37.9	10.3

표 97. 동성애 I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연령별)

22. 동성애는 에이즈와 같은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2.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4.7	30.5	20.9	17.6	6.4
만 20~29세	147	17.7	21.8	24.5	21.1	15.0
만 30~39세	158	24.0	28.5	22.2	17.7	7.6
만 40~49세	190	21.1	32.1	24.7	18.4	3.7
만 50~59세	182	30.2	33.5	17.0	15.9	3.3
만 60~69세	123	30.9	36.6	14.6	14.6	3.3

표 100. 동성애III-1 한국 개신교인의 질병의 원인으로서 동성애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4.7	30.5	20.9	17.6	6.4
여성	395	24.6	28.6	19.0	19.2	8.6
남성	405	24.7	32.3	22.7	16.1	4.2

표 101. 동성애III-1 한국 개신교인의 질병의 원인으로서 동성애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24.7	30.5	20.9	17.6	6.4
서울	159	23.3	37.1	20.7	14.5	4.4
부산	55	30.9	21.8	18.2	18.2	10.9
대구	39	25.6	33.3	20.5	12.8	7.7
인천	47	17.0	36.2	23.4	12.8	10.6
광주	21	14.3	28.6	23.8	23.8	9.5
대전	24	25.0	37.5	8.3	20.8	8.3
울산	18	22.2	33.3	22.2	11.1	11.1
세종	200	26.5	24.5	25.0	17.5	6.5
경기	24	12.5	20.8	16.7	41.7	8.3
강원	24	25.0	29.2	20.8	20.8	4.2
충북	31	22.6	38.7	12.9	25.8	0.0
충남	25	24.0	24.0	28.0	16.0	8.0
전북	27	37.0	26.0	22.2	11.1	3.7
전남	41	24.4	34.1	17.1	19.5	4.9
경북	51	29.4	31.4	17.6	19.6	2.0
경남	10	0.0	50.0	20.0	10.0	20.0
제주	4	50.0	25.0	0.0	25.0	0.0

표 102. 동성애III-1 한국 개신교인의 질병의 원인으로서 동성애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22. 비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9.5	25.5	31.0	26.0	8.0
만 20~29세	37	10.8	10.8	29.7	37.8	10.8
만 30~39세	39	10.3	18.0	25.6	33.3	12.8
만 40~49세	47	12.8	27.7	31.9	23.4	4.2
만 50~59세	48	4.2	39.6	35.4	14.6	6.2
만 60~69세	29	10.3	27.6	31.0	24.1	7.0

표 103. 동성애III-2 비개신교인의 질병의 원인으로서 동성애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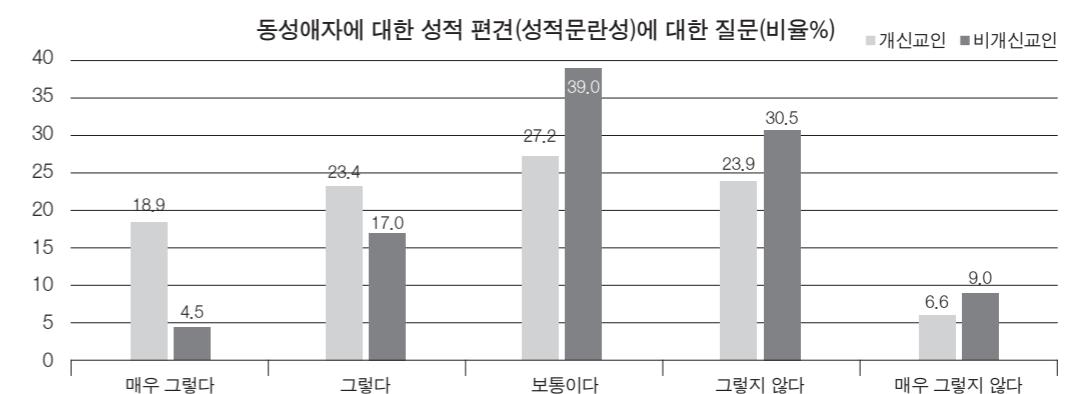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9.5	25.5	31.0	26.0	8.0
여성	96	8.3	20.8	30.2	29.2	11.5
남성	104	10.6	29.8	31.7	23.1	4.8

표 104. 동성애III-2 비개신교인의 질병의 원인으로서 동성애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9.5	25.5	31.0	26.0	8.0
서울	38	15.8	23.7	28.9	21.1	10.5
부산	12	0.0	33.3	41.7	16.7	8.3
대구	10	0.0	30.0	30.0	40.0	0.0
인천	10	20.0	50.0	0.0	30.0	0.0
광주	7	0.0	14.3	14.3	57.1	14.3
대전	8	0.0	12.5	37.5	37.5	12.5
울산	4	25.0	50.0	25.0	0.0	0.0
경기	48	10.4	22.9	25.0	27.1	14.6
강원	6	16.7	33.3	16.7	33.3	0
충북	6	0.0	0.0	66.7	33.3	0.0
충남	10	0.0	40.0	50.0	0.0	10.0
전북	10	20.0	20.0	20.0	30.0	10.0
전남	9	0.0	33.3	44.4	22.2	0.0
경북	10	10.0	20.0	30.0	40.0	0.0
경남	12	8.3	16.7	25.0	16.7	0.0

표 105. 동성애I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질병 인식 분포(지역별)

23. 동성애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3.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8.9	23.4	27.2	23.9	6.6
만 20~29세	147	11.6	16.3	23.1	32.0	17.0
만 30~39세	158	17.7	21.5	31.0	22.8	7.0
만 40~49세	190	16.3	22.6	34.2	23.2	3.7
만 50~59세	182	23.6	23.6	25.8	23.6	3.3
만 60~69세	123	26.0	35.0	18.7	17.1	3.2

표 106. 동성애I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8.9	23.4	27.2	23.9	6.6
여성	395	20.0	19.2	25.3	26.3	9.1
남성	405	17.8	27.4	29.1	21.5	4.2

표 107. 동성애I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18.9	23.4	27.2	23.9	6.6
서울	159	22.6	27.0	20.8	23.9	5.7
부산	55	16.4	23.6	27.3	21.8	10.9
대구	39	12.8	38.5	25.6	15.4	7.7
인천	47	17.0	29.8	25.5	19.2	8.5
광주	21	9.5	19.0	38.1	23.8	9.5
대전	24	20.8	25.0	20.8	25.0	8.3
울산	18	16.7	5.6	55.6	11.1	11.1
세종	200	20.0	17.5	28.5	26.5	7.5
경기	24	16.7	16.7	16.7	41.7	8.3
강원	24	16.7	16.7	33.3	29.2	4.2
충북	31	12.9	45.2	16.1	25.8	0.0
충남	25	12.0	16.0	36.0	28.0	8.0
전북	27	33.3	11.1	33.3	18.5	3.7
전남	41	22.0	31.7	22.0	17.1	7.3
경북	51	19.6	21.6	31.4	25.5	2.0
경남	10	0.0	20.0	60.0	20.0	0
제주	4	0.0	25.0	50.0	25.0	0

표 108. 동성애I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23. 비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4.5	17.0	39.0	30.5	9.0
만 20~29세	37	2.7	8.1	35.1	35.1	18.9
만 30~39세	39	2.6	7.7	33.3	43.6	12.8
만 40~49세	47	6.4	25.5	40.4	23.4	4.3
만 50~59세	48	2.1	25.0	39.6	31.2	2.1
만 60~69세	29	10.3	13.8	48.3	17.2	10.3

표 109. 동성애I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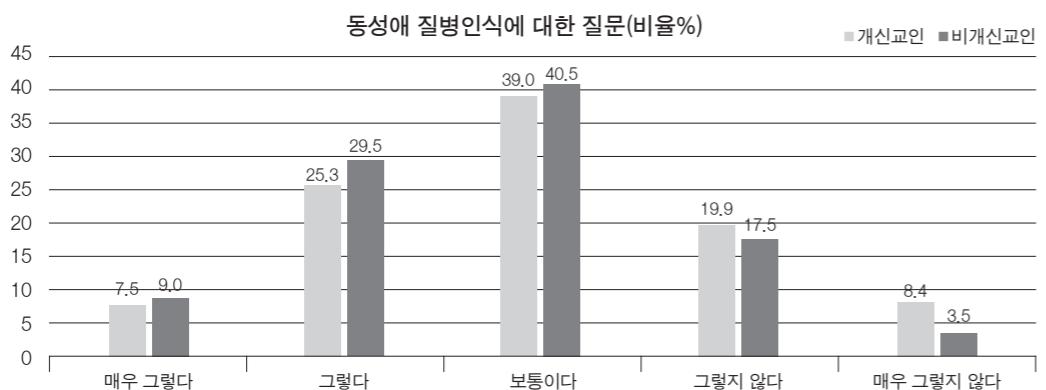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4.5	17.0	39.0	30.5	9.0
여성	96	4.2	11.5	35.4	35.4	13.5
남성	104	4.8	22.1	42.3	26.0	4.8

표 110. 동성애I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4.5	17.0	39.0	30.5	9.0
서울	38	2.6	21.1	31.6	36.8	7.9
부산	12	0.0	16.7	58.3	16.7	8.3
대구	10	0.0	20.0	40.0	40.0	0.0
인천	10	10.0	30.0	30.0	30.0	0.0
광주	7	0.0	0.0	42.9	57.1	0.0
대전	8	0.0	0.0	62.5	12.5	25.0
울산	4	0.0	50.0	25.0	25.0	0.0
경기	48	10.4	18.8	25.0	25.0	20.8
강원	6	0.0	50.0	16.7	33.3	0.0
충북	6	0.0	0.0	50.0	50.0	0.0
충남	10	0.0	10.0	80.0	0.0	10.0
전북	10	10.0	0.0	30.0	50.0	10.0
전남	9	0.0	11.1	66.7	22.2	0.0
경북	10	10.0	20.0	40.0	30.0	0.0
경남	12	0.0	8.3	50.0	41.7	0.0

표 111. 동성애I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성적 문란 사이의 연관성 인식 분포(지역별)

24. 가까운 지인이 동성애자임을 밝힌다면 기존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문항 24.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7.5	25.3	39.0	19.9	8.4
만 20~29세	147	15.6	30.6	35.4	12.9	5.4
만 30~39세	158	9.5	30.4	34.8	17.7	7.6
만 40~49세	190	3.2	27.4	43.7	20.0	5.8
만 50~59세	182	6.0	20.3	41.8	21.4	10.4
만 60~69세	123	4.1	16.3	37.4	28.5	13.8

표 112. 동성애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7.5	25.3	39.0	19.9	8.4
여성	395	9.1	28.9	35.7	18.0	8.4
남성	405	5.9	21.7	42.2	21.7	8.4

표 113. 동성애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7.5	25.3	39.0	19.9	8.4
서울	159	8.2	28.9	39	15.7	8.2
부산	55	7.3	29.1	36.4	16.4	10.9
대구	39	7.7	7.7	35.9	33.3	15.4
인천	47	6.4	27.7	44.7	14.9	6.4
광주	21	4.8	38.1	38.1	19	0.0
대전	24	12.5	20.8	20.8	45.8	0.0
울산	18	11.1	27.8	50.0	11.1	0.0
세종	200	9.5	28.5	39.5	15.5	7.0
경기	24	0.0	29.2	45.8	20.8	4.2
강원	24	8.3	8.3	62.5	16.7	4.2
충북	31	3.2	29	35.5	22.6	9.7
충남	25	8.0	12.0	52.0	16.0	12.0
전북	27	3.7	11.1	33.3	25.9	25.9
전남	41	7.3	24.4	29.3	26.8	12.2
경북	51	5.9	21.6	37.3	27.5	7.8
경남	10	0.0	30.0	30.0	40.0	0.0
제주	4	0.0	25.0	25.0	25.0	25.0

표 114. 동성애 V-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24. 비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9.0	29.5	40.5	17.5	3.5
만 20~29세	37	27.0	27.0	32.4	13.5	0.0
만 30~39세	39	7.7	38.5	41.0	12.8	0.0
만 40~49세	47	6.4	23.4	51.1	17.0	2.1
만 50~59세	48	0.0	31.2	39.6	20.8	8.3
만 60~69세	29	6.9	27.6	34.5	24.1	6.9

표 115. 동성애 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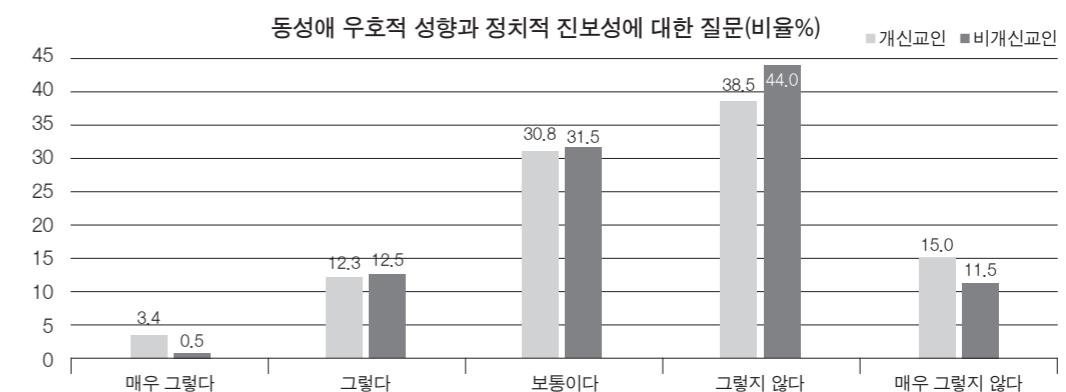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9.0	29.5	40.5	17.5	3.5
여성	96	11.5	31.2	38.5	16.7	2.1
남성	104	6.7	27.9	42.3	18.3	4.8

표 116. 동성애 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200	9.0	29.5	40.5	17.5	3.5
서울	38	5.3	31.6	34.2	23.7	5.3
부산	12	8.3	41.7	33.3	8.3	8.3
대구	10	0.0	60.0	30.0	10.0	0.0
인천	10	0.0	30.0	50.0	20.0	0.0
광주	7	0.0	42.9	57.1	0.0	0.0
대전	8	37.5	12.5	37.5	12.5	0.0
울산	4	0.0	0.0	50.0	50.0	0.0
경기	48	14.6	25.0	43.8	12.5	4.2
강원	6	0.0	33.3	16.7	50.0	0.0
충북	6	0.0	33.3	66.7	0.0	0.0
충남	10	20.0	20.0	40.0	20.0	0.0
전북	10	0.0	20.0	70.0	10.0	0.0
전남	9	0.0	33.3	33.3	33.3	0.0
경북	10	10.0	30.0	40.0	10.0	10.0
경남	12	16.7	25.0	25.0	25.0	8.3

표 117. 동성애 V-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 지인과의 관계 유지 인식 분포(지역별)

25. 동성애에 우호적이면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25. 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3.4	12.3	30.8	38.5	15.0
만 20~29세	147	2.7	9.5	35.4	35.4	17
만 30~39세	158	3.8	11.4	31	41.8	12
만 40~49세	190	1.1	10	35.3	38.9	14.7
만 50~59세	182	5.5	14.8	22.5	40.7	16.5
만 60~69세	123	4.1	16.3	30.9	34.1	14.6

표 118. 동성애 V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의 연관성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 체/평균	800	3.4	12.3	30.8	38.5	15.0
여성	395	4.1	12.2	27.8	41.3	14.7
남성	405	2.7	12.3	33.8	35.8	15.3

표 119. 동성애 V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의 연관성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800	3.4	12.3	30.8	38.5	15.0
서울	159	5.0	13.8	28.9	32.7	19.5
부산	55	3.6	21.8	25.5	36.4	12.7
대구	39	2.6	12.8	10.3	59.0	15.4
인천	47	0.0	10.6	23.4	57.4	8.5
광주	21	4.8	14.3	38.1	33.3	9.5
대전	24	0.0	16.7	20.8	58.3	4.2
울산	18	5.6	11.1	38.9	27.8	16.7
세종	200	3.5	11.1	34.5	36.5	14.5
경기	24	4.2	20.8	29.2	37.5	8.3
강원	24	4.2	4.2	45.8	29.2	16.7
충북	31	3.2	9.7	25.8	41.9	19.4
충남	25	0.0	8.0	40.0	28.0	24.0
전북	27	3.7	3.7	33.3	40.7	18.5
전남	41	7.3	9.8	31.7	39.0	12.2
경북	51	0.0	7.8	45.1	31.4	15.7
경남	10	0.0	20.0	20.0	50.0	10.0
제주	4	0.0	25.0	0.0	75.0	0.0

표 120. 동성애VI-1 한국 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의 연관성 인식 분포(지역별)

문항 25. 비개신교인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0.5	12.5	31.5	44.0	11.5
만 20~29세	37	0.0	18.9	29.7	35.1	16.2
만 30~39세	39	2.6	10.3	20.5	56.4	10.3
만 40~49세	47	0.0	6.4	40.4	40.4	12.8
만 50~59세	48	0.0	10.4	33.3	45.8	10.4
만 60~69세	29	0.0	20.7	31.0	41.4	6.9

표 121. 동성애V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 인식 분포(연령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0.5	12.5	31.5	44.0	11.5
여성	96	1.0	12.5	31.2	45.8	9.4
남성	104	0.0	12.5	31.7	42.3	13.5

표 122. 동성애V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 인식 분포(성별)

	표본 수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명)	%	%	%	%	%
전체/평균	200	0.5	12.5	31.5	44.0	11.5
서울	38	0.0	15.8	36.8	34.2	13.2
부산	12	0.0	8.3	8.3	75.0	8.3
대구	10	0.0	40.0	20.0	40.0	0.0
인천	10	0.0	10.0	10.0	70.0	10.0
광주	7	0.0	0.0	57.1	42.9	0.0
대전	8	0.0	0.0	75.0	12.5	12.5
울산	4	0.0	25.0	0.0	75.0	0.0
경기	48	2.1	10.4	27.1	45.8	14.6
강원	6	0.0	33.3	0.0	66.7	0.0
충북	6	0.0	16.7	16.7	33.3	33.3
충남	10	0.0	0.0	80.0	10.0	10.0
전북	10	0.0	10.0	30.0	40.0	20.0
전남	9	0.0	22.2	22.2	44.4	11.1
경북	10	0.0	10.0	20.0	60.0	10.0
경남	12	0.0	0.0	50.0	41.7	8.3

표 123. 동성애VI-2 비개신교인의 동성애와 정치 성향 인식 분포(지역별)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변화 앞에서 선, 한국 개신교와 개신교인들의 현실

초판 1쇄 찍은 날 / 2019년 4월 7일
초판 1쇄 펴낸 날 / 2019년 4월 8일

지은이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펴낸곳 / 도서출판 따뜻한평화

등록 / 2019년 3월 11일 제 00000-2019-00000호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길, 성지빌딩 515호

전화 / 02-332-4220, 팩스 / 02-332-4221

웹하드 / peacebook/1004

© 201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ISBN 979-11-965808-0-3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자와 출판사의 서면 허락 없이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all rights reserved, except for brief quotations in critical articles or reviews,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manner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